2004학년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칼빈의 구원론의 관점에서 본

백영희 구원론

총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장 윤 석

칼빈의 구원론의 관점에서 본 백영희 구원론

지도교수 최홍석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2월 10일

총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장 윤 석

장윤석의 석사학위(Th.M)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최 홍 석 (인)

심사위원 서 철 원 (인)

심사위원 김 광 열 (인)

2004년 12월 10일

총신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특별히 구별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논문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도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제목으로 논문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세심하게 지도하시며 격려해주신 최홍석 교수님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훌륭한 인격으로 후학들에게 감화를 끼쳐주시는 교수님을 가까이에서 교제하며, 또 앞으로도 학문적으로 계속하여 대화하며 지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됨은 또 다른 큰 유익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본 논문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신 대학원장님이신 서철원 교수님과, 교회론을 지도하시며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 김광열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논문이 쓰여지기까지 기도해주시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신 창동교회 문석표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거제동 교회 김문태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곁에서 든든한 정신적 배경이 되어주시는 어머니와 형님 누님 내외분, 그리고 동원 여원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며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내조하는 사랑하는 아내 김기남 사모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목 차례>

I. 서 론 ····· 1
A. 문제의 제기 ····· 1
B. 논문의 의도와 목적 ····· 2
C. 연구방법 및 범위 ····· 4

II. 백영희 목사의 생애와 신앙 ····· 5
A. 백영희 목사의 생애 ····· 5
B. 백영희 목사의 신앙 ····· 6

III. 백영희 구원론의 교리사적 배경 ····· 10
A. 고대와 중세의 구원론 ····· 10
1. 고대 교부들의 구원관 ····· 10
2. 펠라기우스의 구원관 ····· 11
3. 어거스틴의 구원관 ····· 12
4. 반(半)펠라기우스파(semi-Pelagianism)의 구원관 ····· 31
5. 스콜라시대의 구원관 ····· 14
B.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구원론 ····· 15
1. 루터의 구원관 ····· 15
2. 칼빈의 구원관 ····· 16
3. 알미니우스의 구원관 ····· 17
4. 웨슬레의 구원관 ····· 18
5. 개혁파 구원관 ····· 19
C. 한국장로교회의 구원론 ····· 21

IV. 백영희 구원론의 배경으로서의 칼빈의 구원론 ····· 23
A. 칼빈의 구원론 이해 ····· 23
1. 칼빈의 구원론 개요 ····· 24
2. 칼빈의 구원론에서 성화의 위치 ····· 26
(1) 구조적 위치 ····· 26
(2) 내용적 위치 ····· 27
3. 칼빈의 용어 이해 ····· 29
B. 칼빈의 성화론 이해 ····· 30
1. 칭의와 성화의 관계 ····· 30
2.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해 ····· 33
3. 믿음과 성화의 관계 ····· 36
4. 회개와 성화의 관계 ····· 39
C. 성화의 삶 ····· 42
1. 자기부정 ····· 42
2. 십자가를 짐 ····· 46
3. 선행 ····· 48
4. 내세에 대한 명상 ····· 51
5. 기도 ····· 53
D. 칼빈의 성화론의 특징 ····· 55
1. 하나님 은혜 중심의 성화 ····· 55
2. 실천적이고 전투적인 성화 ····· 57
3. 일평생 지속적인 성화 ····· 58

V. 백영희 목사의 구원론 ····· 60
A. 백영희 구원론의 이해 ····· 60
1.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개요 ····· 60

2. 백영희 구원론의 이해를 위한 인간론 ····· 61
3.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구별의 당위성 ····· 63
(1) 신학적 당위성 ····· 63
(2) 성경해석적 당위성 ····· 65
(3) 신앙현실적 당위성 ····· 67
B. 공통적인 기본구원 ····· 69
1. 기본구원의 요건 ····· 70
(1) 예수님 ····· 71
(2) 성령과 진리의 역사 ····· 71
(3) 믿음 ····· 71
2. 기본구원의 내용 ····· 73
(1) 목적과 예정 그리고 창조 ····· 73
(2) 예수님의 대속 ····· 74
(3) 영의 중생 ····· 75
(4) 하나님의 아들 됨 ····· 77
(5) 천국시민권(또는 천국영생) ····· 77
(6) 성령과 진리와 피의 보증(건설구원의 씨) ····· 87
(7) 생명의 부활 ····· 79
3. 기본구원의 성격 ····· 79
(1) 단번구원 ····· 79
(2) 완전구원 ····· 80
(3) 영원 구원 ····· 83
C. 개별적인 건설구원 ····· 83
1. 건설구원의 요건 ····· 85
(1) 성령의 역사 ····· 85
(2) 대속과 진리 ····· 86

(3) 순종 ····· 87
2. 건설구원의 내용 ····· 88
(1) 심신의 성화 ····· 88
(2) 심신의 기능의 실력을 갖춤 ····· 89
(3) 예비하신 상급을 받음 ····· 92
3. 건설구원의 성격 ····· 97
(1) 중복적 성격 ····· 97
(2) 개별적 성격 ····· 97
D. 백영희 구원론의 특징 ····· 99
1. 구원에 있어서 전적 은혜를 강조 ····· 99
2.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에 연합을 강조 ····· 101
3.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건설구원을 강조 ····· 103
4. 주어진 현실의 구원론적 긴장 강조 ····· 104
5. 성화와 상급의 차별성 강조 ····· 106

VI. 백영희 구원론의 평가 ····· 107
A. 칼빈의 구원론 관점에서의 평가 ····· 107
1.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은혜의 관점 ····· 107
2. 하나님의 예정을 다루는 관점 ····· 109
3. 은혜의 상급이라는 관점 ····· 109
4. 구원받고 난 이후 삶의 관점 ····· 111
5. 성화의 점진성의 관점 ····· 112
6. 성화의 개별적 차이점 대한 관점 ····· 113
7.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관점 ····· 114
8. 회개와 성화에 대한 관점 ····· 114
9. 내세관과 현실관에 관한 관점 ····· 115

B. 한국교회의 구원론적 관점에서의 평가 ····· 117

VII. 결 론 ····· 119

A. 요 약 ····· 119

B. 한계 및 전망 ····· 124

참고문헌 ····· 126

ABSTRACT ····· 14

국문요약

본 논문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칼빈의 구원론의 관점에서 백영희 구원론을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서 백영희 구원론을 소개하고, 그 구원론이 칼빈의 신학의 터 위에서 발전된 것임을 밝히려는 것이다.

백영희 목사(1910-1989)는 25세에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어 28세에 무급 교역자로 4개의 교회를 섬겼다. 그는 일제 식민지 기간동안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6.25 공산 치하에서는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왔다. 그는 고려신학교를 졸업하고 고신 교단의 제일의 부흥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산 서부교회에 부임하여 80년대에는 부산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다. 또한 최대 1만 3천명의 어린이가 출석하는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의 신학은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신앙은 주기철 손양원 주남선 목사 등에게 영향을 받은 순교적 신앙이었다. 그의 목회와 설교는 성경 말씀 중심을 지켰다. 신학과 신앙과 삶이 일치된 그의 설교는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미쳤다.

고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원론의 주된 논쟁은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백영희 목사의 구원론은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의 신학적 전통 위에 서 있다.

칼빈은 종교개혁의 모토인 이신칭의의 구원도리를 굳게 붙잡았다. 동시에 그는 성화의 신학자라로 불릴만큼 거룩한 삶을 강조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이중의 은혜이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성을 강조하였다. 칭의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이다. 이런 은혜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Mortification) 사는(vivification)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거룩함을 입는다. 칼빈의 성화론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이면서, 인간 편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실천적이고 전투적인 특성을 가진다. 칼빈의 구원론은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하나의 구원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있는 삶을 동시에 붙잡고 있다.

백영희의 구원론은 비록 그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칼빈의 강조점과 같다. 그는 구원을 예수님과 바울이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한 것에 따라서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으로 구별하여 설명한다. 기본구원은 모든 믿은 사람이 동일하게 얻는 구원이다. 기본구원은 예수님의 대속, 성령과 말씀의 사역, 믿음으로 얻는다. 기본구원으로 영의 중생, 자녀의 신분, 천국시민권,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 기본구원은 단번에 적용되며, 그 효력은 영원하고 완전하며,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한편 건설구원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성화의 삶을 강조한다.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성령과 말씀 대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건설구원이 이루어 진다. 건설구원이 이루어진 것만큼 성화되며, 하나님 나라의 실력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며, 영원한 상급을 얻는다. 기본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지만, 건설구원은 성화된 것 만큼의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백영희 목사에게 있어서 기본구원도 건설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이중의 은혜이다. 이점에 있어서 칼빈과 동일한 강조점을 가진다. 백영희 목사가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한 점도 칼빈과 동일하다. 칼빈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성화의 교리로 강조하였고, 백영희 목사도 건설구원의 삶으로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구원론의 큰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칼빈은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성을 강조하였으나, 백영희 목사는 기본구원은 받았지만 건설구원에는 실패하는 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칼빈은 성화의 개별적 차이는 설명하지 못하였지만, 백영희는 건설구원의 도리를 통하여 각 사람의 성화의 차별성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그의 구원론은 성도의 성화를 더욱 촉진시키며 하늘의 소망을 더욱 굳게하는 유익을 한국교회에 안겨주었다.

I. 서 론

A. 문제의 제기

오늘날 개신교 안에는 두 가지 거대한 신학 조류가 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그것이다. 이들은 험준한 산맥을 형성하여 우뚝 솟아 있으며 그 밖의 모든 신학사상들은 이들 양대산맥의 기슭이나 산등성이에 지나지 않는다[1]. 두 신학사상의 중요한 논쟁점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 관련된 것이다. 같은 논제를 가지고 출발한 이들 두 사상은 논리 방향이 점점 멀어지더니 급기야는 극과 극으로 멀어지게 되었다[2]. 일반적으로 칼빈주의는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고,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한다.

한국교회도 이 두가지 신학의 큰 흐름 속에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대부분 장로교회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은 칼빈의 후예라는 말이기도 하다[3]. 한국교회의 대부분이 장로교요 칼빈의 후예라고 자칭하면서도 실상은 칼빈의 구원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칼빈의 구원론은 종교개혁의 기본원리인 이신칭의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면서,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칭의 받은 자는 아울러 거룩함도 함께 이중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포함된 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오늘날 급성장 하던 한국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그 원인을 지적

---

1) R. C. Reed, 「칼빈주의의 뿌리와 열매」 홍병창 역 (서울: 교회교육연구원, 1985), p.12.

2) 최근에 와서는 이 두 사상의 일치 가능성을 찾으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일례로 칼빈 연구로 잘 알려진 한철하 박사는 최근의 신학 논문이나 강좌를 통하여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상신, “A Comparative study of John Calvin's and John Wesley's Thelogies of Sanctification”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1. 같은 내용으로, Geore E. Cell, 「존 웨슬리의 재발견」 송홍국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pp.156-157.

3) 존 H. 리스, 「칼빈의 삶의 신학」 이용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p.3.

할 때에,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을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는 이신칭의의 원리를 오용하여 예수-천당 불신-지옥 식의 도식만 가지고 막연하게 믿기만 하면 천국간다는 생각으로 거룩한 삶을 도외시하고 방종으로 빠졌기 때문이다. 거듭남 죄사함만을 강조하는 구원파의 이단들 뿐만 아니라 칼빈의 후예라 자칭하는 장로교 안에서도 구원의 확신만 강조하고 거룩한 삶은 도외시하는 교인들이 많다. 그러나 칼빈의 구원론은 칭의와 함께 성화를 강조한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힘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 "인자가 올 때에 각 사람들에게 행한대로 갚아주리라.(마16:27)", "한번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히6:5-6)"는 등의 말씀을 보고 선행을 하지 못하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여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견해들은 칼빈의 구원론을 잘못 이해한 탓이라 생각된다.

오늘날 한국장로교회는 세계적으로 만연된 인본주의 세속주의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에 있다. 이는 교회가 마이너스성장으로 접어들면서 교회성장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합리화시켜 버리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회지도자들의 관심이 한 영혼의 전인적인 온전한 구원을 등한히 한체 건물과 숫자에만 집중할 이때에 다시 한번 한 영혼 한 영혼의 성경적인 온전한 구원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B. 논문의 의도와 목적

따라서 위와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칼빈의 구원론을 정리하며 건전한 구원론의 틀을 세우고, 그 틀 안에서 한국교회사 가운데 한 명의 목회자요 설교자였던 백영희 목사의 구원론을 칼빈의 구원론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백영희 목사는 구원을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으로 나누어 설명하

였다[4]. 구원은 먼저 튼튼한 기초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운다는 점에서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여 구원론을 전개하였다[5]. 이는 종래의 전통적인 구원론이 구원서정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백영희 목사의 구원론이 한국교회에 소개된 이래로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던 반면에 그 용어의 생소함 때문에 여러차례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즉, 그가 말하는 기본구원에 인간의 책임이나 행위가 개입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교리는 거룩한 삶을 무시하여 방종에 이르게 하는 구원파의 구원도리가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칼빈이 성화를 강조하였듯이 백영희 목사의 구원론은 건설구원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음을 드러내려고 한다.

또 하나의 반대의 오해는 그가 말하는 건설구원의 내용이 인간 편에서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강조하며, 또한 종래의 '성화'라는 표현을 두고 '구원'이란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 또는 공로주의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는 칼빈이 성화를 강조하며 선행을 주장할 때에 대적들이 "선행도 의로 간주되므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6]"고 결론을 내린 것과 같은 오해이다. 본 논문은 칼빈의 성화가 칭의와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중의 은혜인 것처럼, 건설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속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의 주된 의도를 요약하자면 백영희 목사의 구원론이 전통적인 구원교리와 단절된 어떤 것이 아니라, 칼빈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구원론 전통 안에 있음을 밝히고자 함이다. 이 연구의 과정은 먼저 모든 개혁신학의 터가 되는 칼빈의 구원론을 정리한 후에, 백영희 목사의 구원론을 소개하고, 그

---

4) 백영희, 「목회설교록」제 168권 (부산: 백영희 목회연구소, 1988), p.488이하 참조. 이하에서는 「목회설교록」으로 약식표기함.

5) 마 7:24-27, 마 16:17-19, 고전 3:19-15, 엡 2:20-22, 벧전 2:2 하반절, 2:5 등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음.

6) 죤 칼빈, 「기독교강요(중)」(서울:생명의 말씀사, 1999), p.358. 이하에서는 강요의 영어약자인 Inst. 3(권).17(장).9(절).이라는 식으로 표기함.

구원론을 칼빈의 구원론의 틀 안에서 재조명하며 평가를 내리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하여서 교단과 교파 사이에 약간의 성경적인 깨달음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구원론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른 구원론의 정립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이 주는 기쁨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는 투쟁을 통하여 세상을 변혁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나타낼 수 있게 한다. 이런 목적 하에서 한국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구원을 돕는 구원도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며 본 연구을 진행하고자 한다.

C. 연구방법 및 범위

위와 같은 일련의 연구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본 논문은 칼빈과 백영희 목사의 문헌을 자료로 하여서 구원론의 큰 맥 속에서 서로 일치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칼빈의 경우 그의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기독교강요」(최종판)을 중심으로 하여 그의 주석,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칼빈의 구원론 체계를 정리할 것이다. 백영희 목사의 구원론을 소개하는 데에는 그가 목회사역의 현장에서 설교한 내용을 약 180여권의 설교집으로 엮어 놓은 「목회설교록」을 주로 중심으로 하며, 그에 대한 약간의 연구자료들을 참고로 할 것이다. 이렇게 문헌 연구를 통하여 칼빈과 백영희 목사의 일치점을 찾아서, 백영희 구원론이 칼빈의 신학의 근본 터 위에 서 있음을 발견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그 내용상 본 연구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거나, 구원론의 본질이 아닌 세세한 성경구절들의 해석을 다다룰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앞으로의 또 다른

연구과제로 미루고 본 논문이 의도하는 과제에 충실 하기로 한다. 본 논문의 서술 방법도 교의신학적인 접근을 취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성경신학적 해석에 대하여는 설명이 부족할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모든 신학의 결과물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하여, 칼빈도 백영희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시대의 인물이요, 절대적 인물이 아니므로 그들에게도 해석학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로 본 연구에 임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절대화 할 수 없으며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전제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구원론이라고 하는 연구의 주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그 뜻이 깊고 신비해서 인간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구주로서 예수님 앞에 직면하여 설 때에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도리를 연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 속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 함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행할 것이다.

II. 백영희 목사의 생애와 신앙

A. 백영희 목사의 생애

백영희 목사는 1910년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에서 출생하여 웅양보통학교 5년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한학을 독학하였다. 16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3년 동안 체류한 후에 귀국하여 양조장을 경영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였다. 25세에 자원하여 전도인을 초청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 믿

고 나흘 만에 술담배를 끊고, 17일만에 양조장을 처분하였다[7]. 또한 많은 채권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성서공회에 기증하였다. 집사가 되어 28세에 무급 교역자로 고제면에 있는 네 교회(웅양,봉산,운기,개명)를 동시에 맡아 시무하면서 그 교회들이 전성기가 되도록 성장시켰다[8]. 호주 선교부에서 경영하는 진주 경남 성경학원을 졸업하고 40세가 지나서 고려신학교를 졸업하였다. 이때까지 전국에 다니며 부흥사로 활동하였으며, 부산서부교회에 김창인 목사의 후임으로 부임하여 80년대 당시에 부산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다. 동시에 최대 1만 3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출석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1300여명이나 되는 세계 최대규모의 어린이 교회를 이룸으로써 국내외의 수천교회가 견학을 하기도 하였다[9]. 83세의 일기로 그가 평소에 설교하다가 숨지기를 소원하던 대로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괴한의 칼에 찔려 1989년 8월 27일 소천하였다[10]. 그는 52년의 목회 기간 동안 국내외 200여개의 교회를 개척하였다.

B. 백영희 목사의 신앙

그의 신앙의 표어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었다[11]. 이처럼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요시하였다. 이와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강조는 칼빈의 기독교강요 3권 구원론의 강조점이기도 하다. 또한 예수님의 사활대속은 그의 신앙의 생명이며 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지는 엿새동안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대속은 목숨을 바치신 영원한 구속이기

---

7) 「신앙계」 통권 194호, p.111.

8) 「목회설교록」 제 137권, pp.76-77.

9) 「신앙계」 통권 194호, p.110. 「교사의 벗」(서울, 1986.2), p.70. 「크리스찬라이프」(서울, 1986.8), p.21. 「목회와 신학」(서울, 1989. 7), pp.189-195.

10) 「국민일보」, 1989.9.10.일요일.

11) 「목회설교록」 제 146권, p.348.

때문이다.

그는 바울, 어거스틴, 칼빈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중심의 신학에 영향을 받음으로 성경중심의 신앙을 가졌었다. 성경 전체를 거의 암송할 정도로 열심히 읽었고 그가 설립한 목회자 양성원은 성경을 100번 읽어야 졸업하도록 성경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 그는 또한 80노경에도 산기도를 늘 다닐 정도로 기도에 힘을 쓴 설교자요 목회자였다.

한편 그는 순생의 삶과 순교적 신앙을 늘 강조하였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가 강요되는 때 일본 경찰은 6년 동안 계속 그의 시골 교회를 찾아와 강요하였지만 그는 물론 어린 주일학생까지도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였다. 교인 한 사람도 신사참배를 안 한 교회는 전국에 그 교회뿐일 것이다. 이 일로 그의 큰 아들은 당시 퇴학을 당하기도 하였다[12]. 해방 후 거창 지방에는 좌익세력이 일어나서 양민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면 단위마다 좌익건국 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그의 반대로 그가 있는 고제면만 좌절되었다. 이로인해 토벌대를 가장한 공비들이 그를 찾아와 무수히 때려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갔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하였다. 6.25 공산치하에서는 인민재판을 통해 사형을 언도 받았으며, 3개월동안이나 그를 잡아 죽이려는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3번씩 종을 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13]. 그의 제자들 중에는 인민군에게 끌려가 칼로 배를 도려 내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다가 죽은 변판원 선생[14] , 주일을 지키다가 죽은 박기천 전도사 같은 순교자들이 있었다[15].

종전 후 그가 가르친 주일학교 학생들은 국기 배례가 신사참배와 대상만

---

12) 「목회설교록」 제 177권 (1989.4.4.오전).

13) 「목회설교록」 제 168 권, pp.592-594.

14) 이영인, “산곡에 백합화 성도들이여-봉산교회주일학교와 순교자 변판원”, 「백영희 목사님의 주일학교목회 연구」 제 3 권 (백영희 목회연구소, 1997).

15) 「목회설교록」 제 137 권, pp.170-171. 같은 내용으로, 심군식 「해와 같이 빛나리」(서울:교회교육원,1990), pp.249-253. passim

바뀐 우상숭배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를 거부하여 많은 학생들이 매맞고 퇴학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들이 발단이 되어 당시 손양원 목사가 건의하고 이범석 내무부 장관이 주선해서 국무회의를 거쳐 "국기배례"라는 구령이 없어지고 "국기에 대한 주목" 이라는 구령으로 바뀌게 하기기도 하였다[16].

백 목사의 순교적 신앙에 영향을 미친 분들은 주기철, 손양원, 주남선, 김현봉 목사 등이었다. 특히 백영희 목사의 신앙의 절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고려신학교 설립이사장이고 평양 감옥에서 출옥한 거창읍교회 주남선 목사였다. 백영희 목사는 주남선 목사의 특별한 지도를 받으며 목회생활을 하였다[17]. 또한 손양원 목사의 순교 후에는 손 목사의 애양원 교회에서 백영희 조사(당시)를 초청하여 부흥회를 하고 후임으로 청빙하려고 할 만큼 손목사와의 교분이 돈돈하였으며, 백영희 목사 역시 손 목사를 존경하며 순교를 부러워하였다.

한편 그는 김창인 조사(당시)의 후임으로 부산서부교회에 청빙받아 가서 큰 부흥을 일으켰으며, 고신 교단 제일의 부흥사로 연중무휴 집회를 인도하였고, 그의 집회에는 신유와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당시 고신 교단의 신학적 흐름은 사도 이후 은사의 소멸을 주장하였기에 그의 은사운동이 억제되기도 하였다. 그는 당시 고신교단의 학생신앙운동(현,sfc운동)의 연중 2회 전국수양회의 강사로 늘 인도했었는데 그때의 많은 학생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각분야에서 중추적인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18]. 그의 목회 초기에 감리교 감독 변홍규 목사가 시무하는 남산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할 만큼 부흥사로서 그의 명성이 전국에 알려졌다[19]. 피난시절에는 백 목사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16) 이영인, "국법을 바꾼 주일학교-위천교회 주일학교의 국기배례 환란", <백영희 목사님의 주일학교 목회 연구>, 제 2 권 (백영희 목회연구소, 1997).

17) 심군식, op. cit., pp.274-276.

18) 국민일보, 1994.3.7. 21면.

19)「목회설교록」제 168 권, p.486.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서울에 여러군데가 있는데 변영태 총리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내수동교회, 중앙교회, 원남교회 등이 있다.

백영희 목사는 고신 교단의 유력한 목회자로 있다가 고신 지도부가 진리중심의 신앙노선에서 교권중심의 정치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을 지적하다가 1959년 상회 불복종이라는 이유로 교단에서 제명당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그가 지적한 고신 교단의 문제점 중 하나는 소송문제였다. 고신 교단이 설립되면서 전국의 여러 교회가 분열로 인한 소송이 제기 되었는데, 백영희 조사는 고전 6장 1절 이하를 근거로 소송을 반대하고 포기를 주장했었다. 그후 고신 교단은 다시 내부 소송으로 삼분되면서 고소파와 반소파로 나누어지게 되었으며[20], 각 파는 백 목사와 연합을 제의하였지만 그는 처음 고신이 추구하던 진리중심의 노선을 지키며 독자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복음운동에만 전념하였다. 그후 작지만 하나의 교파로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가 조직되었고 현재까지 목회자 양성원을 통해 많은 목회자를 배출하였다.

그의 목회후기에는 전국의 집회인도 초청을 사양하고 1년에 두 번 대구, 거창 기도원에서 천막집회만을 수십년간 인도하였다. 그는 많은 외국집회 초청을 사양하면서, 자연관광보다는 사람연구가 더 좋고, 사람연구보다는 성경연구가 더 좋고, 성경연구보다는 하나님 묵상이 더 좋다고 하면서 평생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도리를 외치다가 일생을 마쳤다.

그의 성경중심의 신학은 바울, 어거스틴,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의 순교적 신앙은 손양원, 주남선 등의 순교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 외에도 그는 프란시스의 청빈사상과 썬다씽의 신비적 경건에 감명을 받기도 하였으며, 이용도, 이성봉, 조용기 목사 등의 열심을 칭송하기도 하였다[21].

---

20) 전용복,「한국장로교회사」(서울:성광문화사, 1990), p.175.

21) 송종섭, “백영희의 구원론”(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미간행 석사논문, 1994), pp.10-17. passim

III. 백영희 구원론의 교리사적 배경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거와 단절된 인물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베른하르트 로제가 강조하듯이 교리사는 연속적 성질[22]을 가진다. 칼빈이 위대한 교회사적 교리사적 업적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독보적 인물이 아닌 것이다. 그 역시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의 업적들을 딛고 일어서서 그터를 견고히 할 수 있었음을 부인할 자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백영희 목사의 구원론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그의 구원론의 배경으로서 교리사에 있어서 구원론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룰려고 하는 핵심과 관련하여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속한 것이냐 인간의 공로가 개입되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논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개관하도록 하겠다.

A. 고대와 중세의 구원론

1. 고대 교부들의 구원관

사도들은 영지주의자들의 반율법적 태도에 대해서는 율법을 옹호하면서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복음을 들고 대항하였다. 육체의 구원을 무시하는 금욕주의자들에게는 육체로 임하셔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육체의 자유와 구원의 귀중함을 증거하였다.

대체로 어거스틴 이전의 모든 교부들은 구원을 얻는 데에는 자유와 은혜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인간이 구원의 축복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신약성경의 진술(행 3:19, 16:31)과 일치하게 초대 교부들은 이 모든 조건들을 강조하였다[23]. 이것은 속사도 교부들

22) 베른하르트 로제, 「기독교교리사」 구영철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0), p.20.

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후대 교부들에 의해서 더욱 더 발전하였다. 이것은 바울의 구원론과 조화되지 않는 도덕주의를 나타내고 신율법주의 복음으로 묘사되면서 신앙과 회개는 때때로 단순히 인간의 자유의지에 좌우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인간의 자원적 협력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수단으로서의 신앙과 동등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 선행관은 복음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율법적이었다. 이것은 유대 율법주의가 기독교회에 들어올 문호를 열어준 셈이다[24].

2. 펠라기우스의 구원관

펠라기우스는 어느 초대교부들보다도 구속적용을 표현함에 있어서 성경적 입장에서 멀리 탈선하였다.[25] 그는 로마교회의 도덕적 해이에 경악하여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모범, 인간의 자기향상을 강조했다[26]. 그는 기독교인의 선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의 개선과 도덕적 상태를 향상시키는데 헌신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지도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는 극단적 금욕주의자는 아니었으나 그의 가르침은 엄격했고, 교회 안에서 더욱 많은 신중한 사람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가졌다.[27]

구원에 있어서 펠라기우스주의는 자율적 인간의 종교로 간주되는 바, 인간은 자기구원의 주도권을 스스로 쥘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구원의 근원이 인간 내부에 있음을 가르쳤다. 개별 인간은 모두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또한 인간은 은혜의 역사를 거절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

23) 루이스 벌콥,「기독교교리사」신복윤 역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79), p.235.

24) Ibid., p.237.

25) Ibid., p.238

26) 앨리스터 맥그래스, 「신학의 역사」소기천 외2인 역 (서울: 지와 사랑, 2002), p.65.

27) 밀드레드 와인콥, 「칼빈주의와 웨슬레 신학」한영태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1), p.22.

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을 부인하였고[28],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구원은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으로서, 하나님은 단지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시하는 존재이며, 구원은 정당하게 획득한 상인 것이다. 따라서 펠라기우스주의의 신조는 "공로로 인한 구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29]. 그는 동방교회의 인정을 받고 그의 주장은 동방교회의 주된 신학 신조들이 되었지만, 초대교부들이 신성시하던 성경적 기초를 버리고 이교 철학의 자아충족원리를 재주장하게 되었다[30].

3. 어거스틴의 구원관

펠라기우스에 반대한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래로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31]. 그의 주장들은 정통 교리로 서방 교회에 받아들여졌고, 칼빈에 의하여 계승되므로 현대 교회에도 폭넓고 원만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타락, 자유 선택, 그리고 은혜의 이론을 종합한 첫 번째의 신학자였다[32].

특히 하나님 주권사상을 강조한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를 반대하여, 인간의 전적부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 믿고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를 부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구원을 향해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필요한 자유를 소유하지 못한다. 따라서 구원의 근원은 인간 외부, 곧 하나님 자신 안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구원의 여정을 주도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했다는 예정교리를 전개하고 있다[33]. 따라서

---

28) Ibid., p.23.

29) 앨리스터 맥그라스, op. cit., pp.65-68. passim

30) 루이스 벌콥, op. cit., p.238.

31) 밀라드 와인콥, op. cit., p.25.

32) 채은수, "어그스틴의 구원론에 대한 선교학적 반성", 「신학지남」 통권 제262호(2000년 봄): 106.

구원은 공로 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적 은혜(Prevenient grace), 공작적 은혜(Operative grace), 협력적 은혜(Co-operative grace) 3단계로 구분하였다. 준비적 은혜는 죄를 깨우치기 위해 율법을 사용, 공작적 은혜는 성령이 복음을 사용하여 신앙과 칭의와 화목케 하는 속죄사역, 협력적 은혜는 인간의 성화된 의지가 일생토록 성령과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4]. 이러한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며, 인간의 의지를 강제로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자발적으로 의를 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백영희 목사의 기본구원은 어거스틴의 말하는 하나님 은혜의 독력성의 성질을 가지며, 건설구원 역시 하나님 은혜의 협력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구원의 은혜가 전적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된다. 이는 어거스틴의 교리체계의 주목할만한 특징이기도하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아직 칭의(justification)과 성화(santification)를 구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35].

4. 반(半)펠라기우스파(semi-Pelagianism)의 구원관

어거스틴 이후에 카시아누스(John Cassian), 빈켄티우스(Vincent), 파우스투스(Faustus)등은 펠라기우스를 반대하면서도 어거스틴의 주장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든 사람 속에는 창조주의 선한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만 성취된다고 보았다[36]. 이렇게 반펠라기우스파는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전적부패를 부인하면서도 은혜 없는 구원을 부인하였다[37]. 반펠라기안의

33) 앨리스터 맥그래스, op. cit., pp.66-68. passim

34) 김길성 ,「구원론」(서울: 총신대신대원, 1999), p.51.

35) 루이스 벌콥, op. cit., p.240.

36) 윌리스턴 워커, 「기독교회사」송인설 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p.242.

입장을 정리하면 “인간이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성령이 인간 속에 들어와 활동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였고, 더 나아가 인간이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은 “값 없는 은혜”, 즉 성령의 감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인간은 “동일한 성령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말해 어거스틴의 견해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킨다고 확증하여 펠라기우스를 배척한 반면에, 예정 및 하나님 주권에 대하여서는 어거스틴의 견해를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38]. 결론적으로 이 견해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협력을 주장하면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5. 스콜라시대의 구원관

스콜라 신학자들 사이에서 초기에 널리 유행했던 일반적인 견해는 펠라기우스주의나 반펠라기우스 보다도 오히려 어거스틴주의에 일치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교회는 온건한 어거스틴주의 입장을 취하다가 반펠라기우스주의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게된다.

스콜라 신학자들에게서 무상의 교리, 칭의의 교리와 관련하여 공로의 교리가 표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어거스틴이 칭의와 성화를 혼돈한 것을 수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두 종류의 공로, 즉 ‘당연한 공로’(merit of condignity)와 ‘합당한 공로’(merit of congruity)를 구별하였는데, 전자는 公義는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과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후자는 보상을 받기에 합당하며 또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영향 아래 로마교회의 은혜적용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하였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 출생한 아이들은 세례 받음으로 은혜의 주입과 사죄를 포함하는 중생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37) 루이스 벌콥, op. cit., p.241.

38) 윌리스턴 워커, op. cit., pp.243-244.

후년에 복음의 감화를 받은 자들은 충족은혜를 받게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함으써, 칭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한다. 그 준비는 ①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에 동의 ②자기의 죄악한 상태를 통찰 ③하나님의 긍휼을 바람 ④하나님을 사랑함 ⑤죄를 미워함 ⑥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심 ⑦세례를 기다림이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신앙이 중심점이 아니고 그 신앙에 준비적인 요소들이 신앙과 대등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준비가 끝난 후, 세례를 통하여 칭의를 얻게 된다. 이로써 은혜가 주입(초자연적)되고, 그 다음에 사죄가 따라 온다. 그리고 그것은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보존된다. 칭의의 은사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언제든 불신앙과 치명적 죄에 의하여 잃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성례를 통하여 다시 회복 할 수 있다[39]. 구원에 있어서 공로주의가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B.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구원론

1. 루터의 구원관

로마 교회의 고해성사와 면죄부 판매에 자극을 받은 루터(1483-1546)는 죄의 교리와 은혜의 교리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신칭의의 교리만이 구원의 도리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후에 와서 루터파 신학자들은 구원의 순서를 소명, 조명, 회심, 중생, 신앙, 칭의, 신비적 연합, 갱신, 보전의 순서[40]로 정하였다. 이런 견해는 보편적 속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간의 요소가 가미된 회심을 중생보다 앞세우고 있으므로 신인협력설이 싹트기 시작하였다[41].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물리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느 곳에서나 저항을 받을 수 있으며 또 구원의 일이 얼마나 진행되었던가를 불문하고 언제라도

39) 루이스 벌콥, op. cit., pp.247-250. passim

40) Hollatz(1648-1713)와 Philippi가 제정함. 김길성, op. cit., p.61.

41) Ibid.

상실될 수 있는데, 한 번 뿐만 아니라 여러번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루터의 초기에 이신칭의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기에 가서는 인간은 사실상 신적 공작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결정권은 언제나 인간에게 있게 되었다.

2. 칼빈의 구원관

기독교 신학의 대표자로 누구보다 일관성 있게 교리를 체계화한 이는 칼빈(1509-1564)이다. 2000년 교회사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세속사에도 칼빈 만큼 영향을 끼친 이는 없다고 할 만큼 그의 사상은 체계적이고 심오하였다[42]. 그의 영향력은 성경적이었으며 실천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43]. 베자는 칼빈이 죽은 후 "해가 지는 그날,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던 가장 큰 빛이 하늘로 돌아가고 말았다[44]"고 기록했다.

백영희 목사도 목회 초기에 "칼빈주의로 삽시다"라고 인사를 할 정도로 칼빈의 신앙과 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칼빈 구원론의 제일가는 원리는 그의 신학사상 전반에 면면히 흐르는 위대한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다(롬 11:36). 이는 칼빈주의 근본원리이며[45], 그의 모토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란 말로 요약될 수 있다[46]. 인간구원에서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는 근본되는 원리이다. 또한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 삶의 목표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다[47]. 이러한 그의 사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

---

42) 프레드 그래함,「건설적인 혁명가 칼빈」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6), pp.289-309. passim

43) 스탠포드 리드 편저,「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홍치모, 이훈영 공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p.445.

44) 이종성,「칼빈」(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45) 헨리 미터,「칼빈주의」박윤선, 김진홍 공역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86),p.16. 같은 내용으로, 이근삼,「칼빈, 칼빈주의」(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9), p.75. 79. passim

46) 정성구,「칼빈주의 사상대계」(서울: 총신대출판부, 1995),p.54.

47) 로버트 A. 피터슨,「칼빈의 구원도리」황영철 역 (서울:반석문화사, 1994), p.162.

께서 그를 높여 최고의 신학자로 들어 쓰시게 했다. 이런 하나님 중심 사상이 구원에 관련하여 나타난 논리적 결론이 예정론이다[48]. 칼빈은 바울, 어거스틴으로 이어가는 구원의 예정사상을 누구보다 대담하고 뚜렷하게 세상에 전파하였다.

백영희 목사도 에베소 1장 4절이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예정에서 시발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3절에서 14절까지 네 번이나 반복되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유일한 뜻이요 목적이라고 하며 예정론을 신성시하고 영화롭게 극대화하였다. 칼빈은 일관되게 구원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선택에 두었다. 그는 이신칭의의 교리에서 루터와 일치하였으며 죄인이 믿음으로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하는 의에서만 구원의 근거를 찾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점진적 사역으로 보지 않고 즉각적이요 즉시에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 또 신자는 진노와 정죄의 상태에서 은총과 수납의 상태로 영원히 변화된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이런 입장은 후술하겠지만 백영희 목사의 기본구원의 강조점이기도 하다. 반면 루터파의 신학은 언제나 이 입장을 유지하지 못하였다[49].

3. 알미니우스의 구원관

알미니우스(Jacobus Arminius, 1559/1560-1609)는 칼빈주의의 절대적 예정교리를 따르지 않고 예지예정론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구원될 개인의 편에서는 믿는 행위, 반대로 저주받은 측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제공을 거절한 행위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의지는 죄의 노예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은혜로 인해 개인은 믿는 행위에서 하나님과 협력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은혜(cooperation grace)는 엄격한 칼빈

48) 이근삼, op. cit.. p.82.

49) 루이스 벌콥, op. cit., p.257.

주의 안에는 설자리가 없다[50].

알미니우스를 잇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 역사의 반은 하나님의 일이고 반은 사람의 일이라고 말한다[51].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반적 은혜를 주셨다고 가르쳤는데, 이 은혜는 죄인으로 하여금 믿게하며, 또 복음을 순종케 하는 데 충분하다고 하였다[52]. 알미니안주의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결정하는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결과 구원의 계기를 만드신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것을 움직이는 인간에게 각각 영광을 돌린다[53].

4. 웨슬레의 구원관

알미니우스의 견해를 영국에서 존 웨슬레(1703-1791)가 채택하여 일반화시켰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알미니안주의를 전수했고 그의 제자들은 전 세계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전파했다. 그 결과 그의 사상은 세계교회의 부흥과 사회정화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웨슬리안은 알미니안주의 한 형식이지만 그보다 더 경건한 면이 있다. 웨슬레는 알미니우스의 토대 위에 성령의 역사라는 본질을 더 하였다[54]. 그러기에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 역동적이다[55]. 역동적인 믿음은 복음선교의 열정으로 나타난다. 율법을 가르침으로 죄인을 넘어뜨려, 절망의 벼랑으로 끌고가서,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였다가, 갑자기 영광스러운 구속의 복음 앞으로 인도해 내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도록 호소한다는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구원받은 자의 즉시적 확신을 가져온다.

---

50) 윌리스턴 워커, op. cit., p.602.

51) 알란 셀,「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구원」김경진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p.9.

52) 루이스 벌콥, op. cit., p.257.

53) D.스틸/ C. 토머스,「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이상화 역 (서울: 엠마오, 1996), p.35.

54) 밀드레드 와인콥, op. cit., p.69.

55) Ibid.,p.65.

더 나아가서 웨슬레는 제 2의 축복으로서 성결교리를 선포하였다[56]. 웨슬리안들은 2차의 근본적인 변화가 완전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며 또 실제로 사람안에서 역사한다고 주장하였다[57]. 웨슬레는 요일 3:10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란 말씀과 요일 5:18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나니"라는 말씀을 이용하여 완전성화를 입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58]. 그러나 1760년 이후에는 이 생각을 번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실족할 수 없는 줄 알았으나 지금은 그와 반대로 알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허다한 실례가 있는데 성결의 정도가 아무리 높고 강하다 할지라도 실족의 가능성이 없는 성결은 없다.[59]"

웨슬레의 구원론은 그의 뜨거운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상 가장 열심있는 성결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경험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것을 보게된다. 은혜를 강조하다가 서서히 행위를 앞세우는 알미니우스의 경향을 보게 된다. 구원의 책임과 최후 결정이 인간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5. 개혁파 구원관

칼빈의 전통을 이은 개혁주의 구원론은 대체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이것은 개혁파 전통의 구원의 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찰스 핫지의 서정을 보면 유효적 소명 - 중생 - 신앙 - 칭의 - 양자 - 성화의 순서이며,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을 요약한 루이스 벌콥의 경우 신비적 연합 - 외적 소명 - 중

---

56) Ibid., p.68.

57) 루이스 벌콥, op. cit., p.259.

58) 송홍국, 「웨슬레와 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p.149.

59) Ibid., p.152.

생과 유효적 소명 - 회심 - 신앙 - 칭의 - 성화 - 성도의 견인의 순서로 되어 있다[60]. A. A. 핫지 역시 유효적 소명 - 중생 - 신앙 - 구원적 회개 - 칭의 - 양자 - 성화 - 성도의 견인의 순서를 말하며[61],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한다[62].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신앙 이전에 소명과 중생이 있다는 점이다. 이런 구원 서정이 시간적 순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볼 때에 신앙이나 회심(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인간편에서의 반응과 관련된 부분이다[63]. 이렇게 볼 때에 구원적용의 논리적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적용될 때에 인간편에서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64]. 개혁파 구원론은 인간편에서의 어떤 작용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며, 그 은혜는 영화의 단계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개혁파 구원론은 하나님의 주권의 전통을 따른다고 할 것이다.

살펴본바와 같이 구원론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계속하여 구원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인간에게 속하였는지에 대한 논쟁의 역사였다. 구원론의 이런 논쟁점은 오늘날도 성경의 구원도리를 해석하는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백영희 목사의 구원론은 용어의 생소함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 어거스틴에서 칼빈으로 칼빈에서 개혁파로 내려오는 하나님 주권의 입장을 확고히 붙잡고 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의 반론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그 지적대로 칼빈주의가 하나님 주권을 강조함으로 뿌리 깊은 청교도 운동의 근원이 되어 기독교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지만, 논리적 교리적 사고의 결과로 교회의

60) 김길성, 「구원론」, p. 130. 같은 내용으로, 김길성, “개혁주의 성령논 고찰” ,「신학지남」

61) A. A. 핫지, 「핫지 조직신학」제 3 권,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2), p.5.

62) Ibid., p.75.

63) 김광열, 「구원과 성화」(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0), p.55.

64) 김광열 교수도 위의 책에서 구원적용을 설명할 때에 “예정-소명-중생-회심(믿음, 회개)-칭의-양자-성화/견인-영화”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Ibid., p.23.

분열과 도덕적 책임결여라는 부작용도 있었음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 시대에도 그러했듯이, 알미니우스의 도덕적 선행은 사회에 큰 호소력이 있었으며, 거기에다 웨슬레의 성령의 체험적 역동적인 역사는 기독교 부흥의 크나큰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런 운동 역시 그 뿌리가 하나님 주권보다 인간의 책임으로 기울어지며 체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속화의 부작용이 있은 것도 사실이다.

백영희 구원론은 철저하게 칼빈 이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영광을 강조하면서 그 구원론의 뿌리를 체험이 아닌 말씀에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건설구원의 교리를 통하여 현실 현실의 구원론적 긴장을 강조함으로 웨슬리안 보다 더 완전한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한 기초 위에 건설하는 구원도리를 제시함으로써 어느 한쪽을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구원론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C. 한국장로교회의 구원론

선교초기 한국교회, 특별히 장로교회는 "보수주의적 복음주의"였다[65]. 그 이유는 초기 선교사들의 청교도적인 신앙이 미국, 카나다, 호주 선교부를 통하여 한국에 들어와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66]. 한국장로교회를 설립한 초기의 선교사들의 대다수는 프린스톤 신학교, 메코믹(McCormic)신학교 출신들로서 찰스 핫지와 B.B.워필드의 제자들이었으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확고하게 신봉하는 자들이었으며, 한국장로교회가 칼빈주의적 신학이 되도록 하는 주요한 근원이 되었다[67]. 이장식 교수가 한국교회 백년사를 기록하면서 "장로

65) 박용규, 「한국장로교 사상사」(서울: 총신대출판부, 2001), p.19.

66) Ibid., p.22.

67) 나용화,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과 한국장로교회", 「신학지남」통권 268호(2001년 가을) : p.106.

교의 신학은 다소 보수적인 칼빈주의였으나, 선교초기의 평양장로회 신학교 선교사 교수들은 온건한 보수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68]"라고 기록한 것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이렇게 한국장로교회는 칼빈의 전통에 서 있었다.

그후 1930년대에 와서 한국 장로교회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대립을 겪으면서 보주주의가 절대 우세하였다[69]. 특히 박형룡 박사는 보수주의 신학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구원론에 있어서도 한국장로교회가 칼빈의 개혁주의 구원론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형룡 박사의 조직신학은 루이스 벌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그의 구원서정을 보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 칭의 - 수양 - 성화 - 성도의 견인 - 영화의 순서[70]이다. 이도 역시 신앙 이전에 이미 소명 중생이 있음을 보아 핫지나 벌콥의 강조점과 다르지 않다고 볼 것이다.

요컨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한국장로교회는 칼빈의 개혁주의 전통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중심의 구원론을 따르고 있다고 볼 것이다. 백영희 목사의 보수적인 신학과 신앙 성향과 구원론도 역시 이런 한국장로교회 초기의 영향 아래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백영희 목사의 배경을 살펴봄에 있어서 한국교회사의 중요한 두가지 사건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사 중에서 가장 큰 시련은 일제 치하의 신사참배강요와 6.25공산 치하에서의 교회 탄압이었다. 이 두가지 시험을 이긴 대표적 목회자로서 주기철, 손양원 목사를 들 수 있다. 한국장로교회사를 볼때 이 두분의 순교적 신앙을 계승할려고 했던 교단은 고신교단을 꼽을 수 있다. 백영희 목사는 고려신학교 출신으로서 이 두 경건한 목회자의 신앙을 계승하며, 고신교단에서 제일의 부흥사로 활약을 하였다. 또한 신학에 있어서 그의 구원론은 이런 신앙적 배경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후 그

68) 박용규,「한국장로교 사상사」, p.20에서 재인용.

69) 전용복,「한국장로교회사」(서울: 성광문화사, 1992), p.85; 박용규,「한국기독교회사」(서울:총신대신대원 한국교회사 연구소, 2001). p.524.

70) 김길성, 「구원론」p. 62.

가 고신교단과 결별하여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된 이유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리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따라서 백영희 구원론은 초기 선교사들이 심어놓은 성경중심의 보수적 신학전통을 이은 것이다.

지금까지 구원론의 역사를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 관점에서 개관하였다. 어거스틴 - 칼빈 - 개혁주의로 내려오는 전통과, 펠라기우스 - 반펠라기안 - 루터파 - 알미니우스 - 웨슬리안으로 내려오는 전통으로 대별할 수 있었다. 백영희 목사의 초기 진리중심의 보수적인 고신교단과의 연속성을 고려하며, 아울러 앞으로 자세히 설명할 그의 구원론의 실제적 내용을 볼 때에, 그의 구원론의 교리사적 배경은 칼빈의 맥을 잇는 개혁파의 전통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구원론은 구원의 전제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에 근거하여 논리적 순서로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으로 구별되는데, 모두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따라서 그는 칼빈의 하나님 주권의 전통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 건설구원론을 통하여 인간 편에서의 책임을 강조함으로 은혜와 책임 사이의 성경적 균형을 유지하려 하였다.

IV. 백영희 구원론의 배경으로서의 칼빈의 구원론

본 논문은 백영희의 구원론이 칼빈 전통 위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백영희 구원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칼빈의 구원론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칼빈이나 백영희나 모두 구원 받고 난 이후의 삶을 강조하고 있기에, 성화론을 중심으로 칼빈을 고찰해 보도록 한다.

A. 칼빈의 구원론 이해

칼빈의 종합적이고 핵심적인 사상은 그가 일생에 걸쳐서 기록한 「기독교강요」에 나타나 있다. 다른 모든 논문들과 주석들은 이 책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칼빈의 저술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71]. 칼빈 자신의 사상을 가장 출실하게 해설한 요약서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의 종합적인 이론을 대표할만한 책이기도 하다[72]. 이 책은 주후 1536년 3월에 초판이 발행 된 후 몇 차례 개정, 보완을 거듭하다가 주후 1559년에 모두 4권으로 된 최종판이 발간 되었다[73].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로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칼빈의 구원론을 살펴볼 것이다.

1. 칼빈의 구원론 개요

칼빈신학의 뼈대라 할 수 있는 최종판「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신학적 구조는 구원론적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구원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강요 전체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본 논문의 연구의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강요의 구성을 크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권	제 2 권	제 3 권	제 4 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세주 예수님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성령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교회)
창조, 섭리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속	구속의 은혜를 받는 받는 방법과 구원의 유익과 결과들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는 외적인 수단들

71) F. Wendel, *Calvin*. trans. Philip Mairet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50), p.42.

72) 강요는 '냉정한 논리'를 가지나 사변적이지 않고, 목회적이고 삶과 직접 연관된 은혜로운 책이다. T.H.L.파커,「칼빈신학입문」박희석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p.24; 또한 강요를 중심으로 한 칼빈의 신학을 경건과 학문의 결합으로 보기도 한다. 김재성,「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수원: 합동신대원출판부, 1997), p.119.

73) 존 칼빈,「기독교 강요」김종흡 외 3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pp.20-25. 본 논문의 모든 칼빈의 강요 인용은 최종판에서 인용한 것임.

부연설명을 하자면, 칼빈은 강요 Ⅰ권 5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타락한 인간에 대해 가르치면서 이 모든 지식이 성경(Ⅰ.1)과 성령의 증거(Ⅰ.7)로서만 확증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시작이 되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Ⅱ권에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로서 오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가르친다. 그리스도는 그의 성육신(Ⅱ.12-14)뿐만 아니라 중보자로서 삼중 직임(Ⅱ.15)을 통해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다(Ⅱ.17)[74].

강요 Ⅲ권은 본격적으로 칼빈의 구원론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은 방법과 그 유익과 효과, 성령께서 주시는 신앙과 그로 말미암는 회개, 중생, 칭의 그리고 성화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특별히 칼빈은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얻는다고 말하며(Ⅲ.1.1)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롬8:9, Ⅲ.1.2) 이라고 하여 성자와 성령의 신적 본질의 동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강요 Ⅳ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 성령의 내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사들과 교사들을 세워 은혜의 외적 수단인 설교(복음선포)와 성례전(세례, 성찬)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Ⅳ.1)고 가르치고 있다.

이와같이 칼빈의 강요는 한마디로 그 자체가 구원론적이요 구원의 목적을 위해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75]. 이러한 칼빈의 모든 신학적 논의는

---

74)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논할 때에 공로의 시초가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의 결정으로 돌린다. 하나님이 오직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를 우리의 구원을 얻어주는 중보자로 임명하신 것이다." (Inst.,2.17.1). 이처럼 칼빈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하나님께로 돌려 그리스도의 은혜가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삼위일체론적인 unity를 확인할 수 있다.

75) 좀더 풀어서 언급하면 강요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이라

하나님 중심 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있다. 구원론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의 모든 사건을 포함시키고 있다[76]. 백영희 목사의 강조점도 "하나님 중심"에 있으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2. 칼빈의 구원론에서 성화의 위치

(1) 구조적 위치

칼빈은 이신칭의를 강조하면서도, 거기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가 성화를 강조한 성화의 신학자로 알려져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칼빈의 구원론에서 성화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앞서서 칼빈은 강요 제 3 권에서 구원론 전체를 다루고 있음을 보았다. 3권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장	성령	14-19장	칭의의 지속적인 진전, 선행, 그리스도인의 자유
2장	믿음		
3-5장	믿음에 의한 중생(회개)	20장	기도
6-10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21-24장	예정, 선택
11-13장	칭의	25장	부활

위의 구원론적 구조[77]를 요약할 볼때 구원은 성령이(1장) 믿음을 줌(2장)으로서, 중생(3-5장)되고 그 중생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계속적인 회개의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성화의 과정으로 보며[78], 이어서 6-10장 사이에서 성

는 것이다. 기독교의 전체를 받치고 있는 주축(main hinge)라고 불리우는 이신칭의의 근본원리가 강요 전체의 내용에 중심을 이루며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칼빈의 기독교강요는 "구원론"중심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신칭의의 원리는 바울의 중심적 가르침이었고, 어거스틴-루터-칼빈-웨슬리로 흘러 내려오는 기독교의 중심 교리이다. 한철하, "칼빈 신학의 구원론적 이해와 복음사역의 중요성",「성경과 신학」제 15 권 (1994), p.13.

76) Inst,, 3. 21-24.

77) 한철하 교수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구원론적인 구조를 칼빈신학의 과학성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한국칼빈학회 편저,「최근의 칼빈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p.81 안의 내용: 한철하 "신학방법: 칼빈의 과학적 신학방법"

78) 칼빈은 특히 회개와 성화의 긴밀한 '내적 연관성'을 주장한다. 회개를 언급하면서 자연히 성화에

화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런 삶의 원인이 칭의에 있음을 11-13장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13장에서는 칭의에 대해 유의할 사항까지 말하며 칭의에 대해 일단락 짓고 있다. 그러고 14장 '칭의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제목으로부터 20장 기도까지 칭의를 받은 자가 반드시 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1-24장에서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예정,선택) 속에 있음을 밝히며, 25장에서는 완성된 구원으로서 부활을 다루고 있다.

위의 구원론적 구조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성화론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W. Niesel와 O. Weber는 제 3 장부터 성화론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F. Wendel은 6장-19까지를 성화론으로 보았다[79]. 그러나 살펴본 바와같이 3-10까지를 성화론으로 보며, 다시 14-20장까지를 성화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20장 기도도 칼빈에 의하면 성화의 삶 속에서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성화론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강요 3권 구원론 전체의 대부분이 성화와 관련된 내용임을 볼때에 칼빈을 성화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며, 칼빈이 얼마나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강조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2) 내용적 위치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

관련된 부분을 언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회개는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신자의 전체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백영희 목사도 회개를 단순히 뉘우침으로 보지 않고 고치는 변화라고 정의하였으며, 성화(백목사는 건설구원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아직 설명치 않은 단계이므로 편의상 성화라고 표현함)의 과정을 회개와 순종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회개를 통해 자신을 고치는 것만큼 성화가 되므로 회개와 성화를 제유법적으로 사용하였다.

79) W, Niesel, 「칼빈의 신학」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p.125.
O. Weber, *Foundation of Dogmatics* vol. 2. (Grand Rapids: Eerdmans Pulishing. 1962), p. 318.
F. Wendel, op. cit., p.233.

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또한 성화되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롬 8:30). 칼빈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화는 그 믿음의 두 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며, 하나님의 이중은혜 중에 하나이다.

성화는 구원의 여러 단계들 중의 하나이며, 다른 단계들과 연속선상에 있고[80], 각 단계들과 분리할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81].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동시에 자신의 성령에 의한 성화를 통한 진정한 의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다[82].

성화가 칭의와 동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중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보고가 먼저 열려 죄의 용서가 전가된 다음에 회개를 요구한다. 죄의 용서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와 더불어 중생을 시작한 후 평생을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이런 점에서 중생은 성화이다[83].

성화란 성령의 자비로우시고 끊임없는 역사로 죄의 부패에서 죄인의 전 성품을 정결케 하여 줌으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84].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의 완성을 이룰 수 없고 계속 정진해야 하며 죄와 날마다 싸워야 한다. 성화의 완성은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된다(고전 1:8).

---

80) 한철하, “칼빈의 완전주의”「광신신학공개강좌 강의안」(광주: 광신대학교, 2000). p.8.

81) 참고로 칼빈은 구원의 서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전체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구원의 순서를 굳이 설명하자면 맥그래스(McGrath)의 다음과 같은 도식이 도움이 된다.

선택(electio) - 신비한 연합(unio mystica) - 칭의(justificatio)
- 성화(sanctificatio) - 영화(glorificatio)

A.E.McGrath, Iustitia Dei, p.31. 유정우, “칼빈의 구원론에 나타난 선행의 위치와 중요성” (아세아연합신대 박사논문, 1998), p.125에서 재인용.

82) Inst., 3.3.19.

83) Inst., 3.11.11

84) 루이스 벌콥,「신학개론」(서울:세종문화사, 1976), p.246.

3. 칼빈의 용어 이해

칼빈이 사용한 용어 중에서 '중생'을 오늘날 우리의 중생 개념으로만 고정시켜 이해하면 혼돈이 있을 수 있다[85]. 강요 3권의 저술 순서를 보면, 소명과 신앙 - 중생과 회심 - 성화 - 칭의 - 예정 - 부활 로 배열되어 있다. 카이퍼와 같은 학자도 칼빈의 용어와 전체 의도를 잘못 이해함으로 신앙 이후에 중생이 온 것만을 보고 '칼빈이 신적동작보다 인적동작에 치중한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하였다[86]. 만약 카이퍼에 의하면 칼빈은 알미니안이 되고 만다. 이는 칼빈의 용어와 전체 의도를 잘못 이해함으로 오는 오해이다.

칼빈은 저술의 관심을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기 보다는 구원자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칼빈은 구원을 설명하며 회개, 중생, 성화등을 제유법적으로[87] 설명하고 있다. 칼빈이 사용한 제유법이란 하나의 용어로 관련된 다른 용어를 설명하거나 전체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인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칭의란 하나의 용어를 사용할 때에 죄사함, 화목 등 칭의와 관련된 전체 사항을 말한다. 또한 회개를 말할때도 중생, 성화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칼빈이 비록 제유법을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각 구원의 단계들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예컨대 회개와 성화과 동일한 범주내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회개의 정의는 육을 죽이고 영이 소생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88], 성화는

---

85) 존 머레이, 「조직신학Ⅱ」박문래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p.183. 성경에서 중생이란 말은 세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는 성령에 의한 새로운 영적 생명의 시작(요3:3,5)으로서 이것은 회개와 믿음에 이르도록 한다. 둘째는 심겨진 새생명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약1:18, 벧전 1:23). 셋째는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최종적으로 완성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딛 3:5, 마19:18). 최근 개혁교회 신학자들은 성령에 의하여 새생명이 심겨진 것을 좁은 의미의 중생으로 보고, 회개를 통하여 새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넓은 의미의 중생으로 생각한다. 주후 17세기 개혁교회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회개와 중생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후기 개혁파 신학에서는 중생이란 용어는 하나님의 단독행위로서의 시초행위를 가르키는데 사용되었다. 반면 회개는 중생 안에서 사람에게 부여된 은혜의 결과로서,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의식에 작용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86) 김길성, op. cit.. p.129.

87) 한철하 교수는 칼빈의 제유법 사용을 칼빈신학의 과학성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또 제유법적 용법을 '내적연관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최근의 칼빈연구」p.76.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순결하게 되어 바쳐지는 것이다[89]. 그리고 칭의는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며,칭의됨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지만 자체가 화목이 아니다. 이처럼 칼빈이 제유법적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용어의 의미들은 분명히 함으로 혼돈을 피하고 있다.

백영희 목사도 예수님의 대속으로 받아가진 기본구원의 중요한 내용으로 사죄, 칭의, 화친(화목)을 늘 함께 말하면서 그 의미는 분명히 구별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원인으로서 예수님의 보혈과 진리와 성령을 늘 제유법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예수님의 사활대속과 그것을 기록한 말씀과 그 말씀을 실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은 늘 하나로 작용함을 강조하였다(요일 5:7-8). 그럼으로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와 용어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용어가 뜻하는 내용(개념)을 두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이런 이해를 염두에 두고 칼빈의 성화론을 더욱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한다.

B. 칼빈의 성화론 이해

1. 칭의와 성화의 관계

칼빈에 의하면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이중적 은혜이다[90]. 여기에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칼빈은 칭의를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된 죄인이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

88) Inst., 3. 3. 5.

89) Inst., 3. 14. 9.

90) Inst., 3. 11. 1.

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죄의 용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의같이 입고 하늘 심판대 앞에 자신있게 서는 것이다.[91]"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함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92]. 칼빈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칭의가 도덕적인 나태에 빠지게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다. 그는 사돌레토(Sadolet)추기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당신이 신앙과 행함이 얼마나 분리할 수 없는 것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싶다면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고전 1:30) 우리의 칭의와 성화를 위해 주신 바 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온전함과 거룩함을 향한 열정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도 그리스도 자신도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는 의도 없고 신앙도 없다.[93]"

성화란 그리스도의 영(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케 함으로써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함을 받는 것을 말한다[94]. 칼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케 된 것은 중생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삶을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95]. 칭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성령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져다 주며[96]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거룩한 삶을 살게하신다.

91) Inst., 3.17. 8.

92) Inst., 3. 11. 2.

93) J. Calvin, *"Calvin: Theological Treati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12. ed. I.K.S.Reid. (London: SCM Press LTD, nd), p.236. 존 H. 리스,「칼빈의 삶의 신학」이용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p.265 각주 48에서 재인용.

94) Inst., 3. 11. 1.

95) Ronald S. Wallace,「칼빈의 기독교생활 원리」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27.

96) Inst., 3. 1. 1.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논할 때 먼저 양자는 구별된다. 칭의는 중보자인 그리스도와 곧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순간부터 완전한 것이 된다[97]. 칭의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분상의 변화를 단번에 얻게 되지만, 성화는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어 진다. 다시 말해서 칭의는 단회적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이며 칭의는 새로운 신분을 말하지만 성화는 점진적인 새로움을 말한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책의 제거를 의미하지만 성화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깨끗케 한다[98].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서로 간에 불가분의 관계로 통일을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누구라도 칭의 없는 성화나 성화 없는 칭의는 이룰 수 없다. 칼빈은 고린도전서 1:30절 주석에서 양자의 불가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바울은 우리 곧 본성적으로 불의한 우리가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만일 동시에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런 은혜의 선물들은 분리할 수 없는 끈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분리시킨다면, 그 사람은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조각조각 찢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다른 한편, 그리스도의 이 두가지 사역이(칭의와 성화) 연합되어 있는 한, 그들은 서로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는 바울이 분명하게 구별한 것을 혼동하는 참으로 잘못을 마음대로 범할 자유는 없다.[99]"

---

97) J. Richard, 「칼빈의 영성」이창우 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p.148.

98)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주의구원론」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p.316.

99) 존 칼빈,「고린도전서주석」존 칼빈 성경주석편찬위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0), pp.80-81.

칼빈에 의하면 양자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을 분리한다면 그리스도를 조각조각 찢는 사람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칼빈은 그의 시편 주석에서 "신앙은 행위와 별도일수가 없다[100]"고 하며 이 둘의 불가분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구별된다. 칭의에는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지만, 성화에는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칼빈의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성과 구별성을 종합하여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칭의와 성화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칭의와 성화 모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위에 동시적으로 있게 된다는 것이며, 양자는 서로 구별되지만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백영희 목사도 양자가 모두 하나님의 이중의 은혜라는 점에서 견해를 같이 한다. 백영희 목사는 칭의는 인간의 선행이 배제된 기본구원에 속한 것으로, 성화는 선행을 포함하는 건설구원에 속한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2.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해

칼빈의 사고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 그리스도의 인격 안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으로 가득 차 있었다[101]. 그의 구원론도 그리스도와 연합에 기초하고 있다. 즉, 칭의와 성화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다. 백영희 목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활의 대속에 연합함으로만 중생도 성화도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다[102].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

---

100) 존 칼빈, 「시편주석」 존 칼빈 성경주석편찬위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pl48.

101) T.H.L.파커,「죤 칼빈의 생애와 업적」 김지찬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6), p.96.

102) 이런 동일한 강조점에 대하여는 후술할 백영희 구원론의 특징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붙임으로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 이 연합으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103].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다[104].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거룩도 없다[105].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에게 진실하게 행하도록 그 자신을 우리에게 연합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연합한다. 그래서 칼빈은 강요 3권 1장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기록하고 있다[106]. 이렇게 성령의 신비적인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받게 된다. 칼빈의 말을 인용해 보자.

>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활동과 자극으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선한 것은 모두 성령의 은혜의 열매이다.[107]"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충해서 설명할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교리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있어서 중보자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그의 신성에 의해서 우리의 의가 된다"고 하는 오시안더의 주장에 반박하며, 중보자 그리스도가 신성으로서가 아니라 인성을 입으신 채로 육신으로써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하였다[108].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심은 우리가 그의 육체를 입게됨을 의미

103) Inst., 3. 11. 10.

104) Inst., 3. 11. 23.

105) Inst., 3. 14. 4.

106) Inst., 3. 1. 1.

107) Inst.. 3. 1. 3.

한다. 그가 우리를 자기와 하나로 만드심으로 인해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그리스도의 인성이 연합과 교제를 위한 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우리 편에서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전제로 하게 된다[109].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구원론의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관련이 있다. 구원의 확신은 그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심으로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만 갖게 되는 것이라고 칼빈은 가르쳤다[110].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논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성을 도외시 하지 말아야 된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통일성 속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중요시하였다[111]. 궁극적으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 즉 신성과 인성 모두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교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괴되거나 변질될 수 없는 것이며, 만약 변질된다면 곧 바로 구원론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을 칼빈은 직시하였다. 백영희 목사도 그리스도의 신인양성일위의 교리를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였다. 이것은 그의 기독론과 구원론이 성경과 칼빈의 전통 아래에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우리는 성령의 신비적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칭의와 성화 곧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의 은혜를 얻는다. 칭의도, 성화도, 견인도, 마지막 완전도 성령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불가능하다[112].

---

108) Inst., 3. 11. 8-11.

109) 원종천,「칼빈과 청교도영성」(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4), p.52.

110) Inst., 2. 12.1.

111) Inst., 3. 11. 9.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셨더면 우리의 영혼을 그의 피로 정결하게 하실 수 없었을 것이며, 우리의 죄책을 사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연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연합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113]. 이것은 인간의 주도권이 그 연합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이다[114].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115].

3. 믿음과 성화의 관계

살펴본바와 같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에 의하여 우리의 의로 전가된다. 그러므로 '믿음' 역시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구원론적 개념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칭의와 성화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는 믿음의 역사는 우리를 의롭게 하며, 동시에 경건한 삶과 함께 성화도 시작하게 한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믿음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성화가 이루어 진다. 따라서 칼빈은 믿음에 의하여 선행(성화)가 당연하게 따라 오는 것임을 말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며 동시에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익을 얻는데 그 유익 속에는 거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해지며 또한 그 거룩이 줄이 되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지속시킨다.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연합과 교제로

---

112) F. Wendel, *Calvin* , p.238.

113) Inst., 3. 1. 1.

114) F. Wendel, *Calvin*, p. 239.

115) Inst., 3. 1. 4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차 회복하며 그분은 우리를 성별하셔서 우리에게서 세속적인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들이 되게 하신다[116]. 그러면 칼빈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칼빈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믿음이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benevolence)을 굳게,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지성(mind)에 조명되고 우리 마음(heart)에 인친바가 된다.[117]"

이처럼 칼빈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지식으로 규정한다[118].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감각적으로나 지각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나 이해를 초월한다. 칼빈이 말하는 믿음의 구성요소는 이해가 아니라 확신이다. 이러한 확신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다.

>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두뇌 상층부에서 돌아 다녀서는 않되고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모든 어려운 시험을 이기게 된다. 마음의 확신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시다.[119]"

또한 칼빈은 믿음의 지식의 특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믿음의 신뢰성을 포함시켜 강조하고 있다. 칼빈에게서 믿음은 물론 구원론적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같은 의미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120]. 칼빈은 이러한 지식과 신뢰를 뗄 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확

---

116) Inst., 3. 1. 4.

117) Inst., 3. 2. 7.

118) 믿음을 지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이다. 엡 1:7, 4:13, 골1:9, 3:10, 딤전 2:4, 딛 1:1, 몬 6, 벧후 2:21, 요일 3:2.

119) Inst., 3. 2. 36.

120) Inst., 3. 2. 6.

실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게되고 이런 확실한 지식에서 확신이 생기고 확신함으로 신뢰하게 된다. 칼빈은 로마서 10:10 주석에서 신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믿음의 좌소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믿음이란 단지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확실하고 효력있는 확신과 신뢰이다."

이 지식은 체험으로 알게되는 지식이다[121].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요약컨대 칼빈에게 있어서 믿음의 요소는 참지식과 확신(승인)과 신뢰이다[122]. 백영희 목사도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믿음의 요소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확실하게 인정(영접)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1.하나님 시키시는 대로의 지식(지식 연결)
> 2.하나님 시키시는 대로의 인정(인정 연결)
> 3.하나님 시키시는 대로의 행함(행위 연결)이렇게 알고, 인정하고, 소원하고 행하여 자체 순종(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다.[123]"

결국 믿음은 선행을 포함하는 것임으로(약 2:14-26),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행 26:18)[124]. 이런 믿음이 없는 곳에는 회

---

121) Inst., 3. 2. 8.

122) 칼빈 이후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믿음을 논함에 있어서 믿음의 내용(fides quae creditur)과 믿음의 행위(fieds qua creditur)를 구분하였으며, 믿음의 내용은 지식(notitia)과 승인(assensus)로 구성되며, 신앙의 행위는 신뢰(fiducia)와 관련된다. 즉 지식과 승인이 신뢰까지 나아가야만 참 신앙이 된다. 이렇게 믿음의 구성요소를 지식, 승인, 신뢰로 생각한 것은 어거스틴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어거스틴은 믿음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께 믿음을 바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Westminster대소요리문답 72문에서도 믿음의 요소를 깨달음과 복음에 대한 동의, 승인,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요리 문답 86문에서도 같은 뜻으로 규정하고 있다.

123) 백영희 목회연구소 편, 「메모」(부산: 백영희 목회연구소, 1989), p.46.

개도 중생도 성화도 있을 수 없다. 반대로 이런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포함함으로 그곳에 열매로서의 성화가 따라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화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뜻인 것이다[125].

4. 회개와 성화의 관계

칼빈에게 있어서 회개는 그의 신학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회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회개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께로의 진정한 전환이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두려움에서 생겨나는 전환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육과 옛사람을 죽이는 일과 영의 소생으로 이루어진다.[126]"

이와같이 칼빈은 회개의 요소를 육의 죽임과 영의 소생으로 보았다. 이어서 칼빈은 "너희는 옷을 찢지말고 마음을 찢어(욜2:13)", "이스라엘아 네가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렘4:1, 3-4)",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약 4:8)"등, 주께로 마음을 전환하는 참된 회개에 대하여 신구약에서 몇 군데 실례를 들고 있다[127].

이러한 회개로 인하여 옛사람의 죽음(the mortification of our flesh)과 영의 소생(the vivification of the spirit)이 되어지며, 영의 소생은 곧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뜻한다. 회개의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

---

124) Inst., 3. 16. 1.

125) Donald K. Mckim 편저, 「칼빈신학의 이해」(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p.264.

126) Inst., 3. 3. 5.

127) Inst.. 3. 6. 6. 16. 17.

의 도말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128].

따라서 칼빈은 회개와 중생을 동일한 것으로 본다[129]. 즉 육이 죽고 영이 사는 회개의 개념은 중생의 개념인 것이다[130]. 다만 회개는 인간편에서 죄에서 돌이켜 새로워지는 것이며, 중생은 하나님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켜진 신생의 상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이 둘은 모두 믿음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이와같은 회복이 한 순간이나 하루 동안이나 일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때로는 느린 보조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 안에서 육의 부패성을 씻어내고, 죄를 깨끗케 하시고, 그들을 성전으로서 자기에게 성별하여 봉헌케 하시되, 일생동안 회개를 실천해야 할 것이며, 다만 죽는 날에 이 싸움이 끝나게 될 것이다[131]. 즉, 그리스도인의 일생 속에 완전 성화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육의 옷을 벗는 날에 이루어 질뿐이다.

칼빈은 성화와 회개의 관계를 설명하기를 신자가 회개의 경주장에서 일평생 계속 달리는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이 주장하는 육신을 날마다 생명과 평안의 거룩한 영의 역사로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132]. 바로 회개의 경과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은 '성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회개의 삶이 성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성화나 회개는 내용이 너무 흡사하다. 양자는 모두 하나님의 재창조 활동으로써 성장이 가능하며[133], 일생동안 지속되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상호

128) Inst., 3. 9.

129) Ibid.

130) 중생의 개념에 대하여는 칼빈의 용어 이해 속에 있는, 각주 85 번 중생의 개념 분류를 참조.

131) Inst.. 3. 8.

132) Inst.., 3. 3. 9.

일치된 목표를 향한다.

그러나 양자가 똑 같은 것은 아니며 구별된다. 즉, 성화는 '거룩함(holiness)' 자체이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전향(turning to God)'이다. 성화는 회개의 열매요, 회개는 성화의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구별은 되지만 양자는 서로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육의 옷을 벗는 날까지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관계임이 틀림없다. 성화를 이루어가지 위한 회개의 과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과 기도와 죄의 고백으로 진행된다[134].

백영희 목사도 회개를 단순히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니라, 옛사람의 요소를 버리고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즉,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도에 위반된 행위를 원통히 여겨 고쳐서 하나님의 법도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135]. 백영희 목사는 회개를 기본회개와 평생회개로 구별하며, 기본회개는 불신자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로서 중생과 신앙의 시작이며, 평생회개는 일평생 살면서 잘못된 자기를 말씀대로 개정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보았다[136]. 이때에 평생회개는 순종과 함께 성화(건설구원)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즉, 회개를 통하여 자신을 고치는 것만큼 성화가 된다. A. Hoekema도 동일한 내용으로 회개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의 최초의 회개와 그 후 계속되는 회개로 구분하였는데, 계속적인 회개를 성화로 보았다[137]. 백영희 목사나 A. Hoekema의 이런 견해는 칼빈의 회개와 성화의 관계의 내용과 동일한 강조점을 가지는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계속적인 회개로 선택하

133) Ibid.

134) G. C. Berkouwer, *Faith and Sanctific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52), p.112.

135) 백영희 목회연구소 편,「메모」, p.17.

136) Ibid., p.18.

137) A. Hoekema, op. cit., p.217.

셨다. 우리의 손은 매일 씻겨져야 하나. 비록 우리의 회개가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예수의 날까지 성화의 사역을 계속하실 것이다. 회개는 노예의 과제가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C. 성화의 삶

칼빈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온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진행과정으로 이해된다. 칼빈의 구원의 도리가 형식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임[138]을 이 장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개혁주의신학이 신앙감정과 삶은 없는 교조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은 머리를 중시한 스콜라신학이 남긴 폐단이지 칼빈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139]. 칼빈은 "복음의 효과가 가슴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영혼에 자리잡고 삶을 바꾸길 원하지 혀끝에서나 복음을 즐기는 경박한 궤변론자를 혐오[140]"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을 눈앞에 두고 분투 노력해서 도달해야 할 목적지[141]"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속에서 성화의 과정은 지속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런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삶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자기부정

138) Inst.. 3. 6. 4.

139) 필립 홀트롭, 「기독교강요 연구핸드북」박희석,이길상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5), p.218.

140) Inst., 3. 6. 4.

141) Inst., 3. 6. 5.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자기부정이다[142].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모본을 보이신 자기부정(mortification)의 과정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과정, 곧 성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칼빈은 강요 3. 7 자기부정에 관한 서두에서 "자기부정의 기독교 철학: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할 오류와 행동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육을 따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전 소유를 잊어버리라.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라. 그를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아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를 향하여 경주하도록 노력하라(롬14:8, 고전 6:19참조).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님을 배우고 자기의 이성에서 지배권을 빼앗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참으로 큰 유익을 얻는다.[143]"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소유하시며, 우리 스스로에게 지배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께서 자기 안에 사시기에 자기는 부정되는 것이다(갈 2:20).

그렇다면 칼빈이 말하는 자기부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자기를 부정한다[144]. 즉, 우리는 우리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속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구하라는 것이다.

---

142) Inst., 3. 7.

143) Inst., 3. 7. 1.

144) Inst., 3. 7. 2.

우리 자신의 생각, 육신의 탐욕과 욕망을 비우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알아두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며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 이렇듯 칼빈에게 있어서 자기부정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이다[145].

백영희 목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건설구원의 삶으로 보았는데, 특별히 자기 부인과 관련하여 지금 그 현실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함을 강조하였다. 이때에 자기부정은 단순히 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포기이다[146]. 이런 행동은 자신의 모든 의지와 욕망을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함을 말하며, 단순히 기계적이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다. 단순한 수동적 자기부인이라면 자신을 성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자기부정은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돌려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의미하며, 그 사랑은 보이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중심의 의향까지를 포함한다[147]. 칼빈의 말을 인용해 본다.

>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될 수 없다는 것을 마치 물과 불이 하나될 수 없는 것과 같다...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귀속되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자신의 생활전체가 형제를 사랑하도록 재조정해야 하며, 이 일에 매진하는 것이 마땅하다[148]"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느끼는 증오를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149]. 백영희 목사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으

---

145) Inst., 3. 7. 8.

146) 빌헬름 니이젤,「칼빈의 신학」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p.141.

147) Inst., 3. 7. 4-7.

148) 존 칼빈, 「요한복음주석」칼빈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p.478.

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람과 원수되고, 모든 피조물과 원수되므로 자기를 부인할 것을 강조면서,[150] 자연스럽게 형제사랑과 자기부정을 연결하고 있다.

>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기억하여, 주님의 양을 사랑으로 치고 기를 것이다. 이때에 대적은 바로 자기이다.[151]"

이런 자기부정의 과정은 곧 자기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그 심령이 감성, 목적, 기능 등에 있어서 완전히 와해되고 균형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정욕, 곧 죄의 적극적인 원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152].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무법한 사상과 감정들을 억누르고 연단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153]. 칼빈은 자기부정의 전과정을 로마서 9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바 영과 육 간에 벌어지는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하였다[154]. 아담의 부패에서 기인한 본성적 정욕과의 싸움은 일평생 지속적이며 신중하게 싸우며 성화의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칼빈은 말년에 그의 생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나는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란 보잘것 없는 것이며, 또한 내 자신이 보잘것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와같이 그는 실제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였다[155].

---

149) Inst., 3. 7. 4.

150) 백영희 목회연구소 편, 「메모」, p.36.

151) Ibid., p.64.

152) Ronald S Wallace, 「칼빈의 기독교생활 원리」p.76.

153) Ibid., p.83.

154) Ibid., p.320.

155) 정성구, 「칼빈의 생애와 사상」(서울: 세종문화사, 1980), p.397.

2. 십자가를 짐

칼빈은 강요에서 자기부정에 대하여 설명한 이후에, 다음 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부정의 일부라고 하였다[156]. 그 내용으로 볼 때에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기부인과 뗄 수 없게 얽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157].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부인이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성화의 외적인 과정이 십자를 지는 삶인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성화의 삶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백영희 목사의 강조점이기도 하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표본으로 삼아 그 고난에 동참함을 말한다[158].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과 영, 슬픔과 인내, 고통과 현실을 즐겁게 받아 들이는 것을 놓고 벌이는 투쟁을 의미한다[159]. 칼빈은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이 촉진[160]되고, 부활의 권능을 알게되며 부활에 참여할 준비가 된다[161]고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내면적인 자기부인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밖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환난과도 연관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심과 같이 신앙의 과정에 닥치는 고난과 환란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십자가라고 부른다. 따라서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고통들도 십자가의 한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한다[162].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인내로 짊어지되 이를 통해 성화가 더욱 촉진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강건해져야 한다. 칼빈은 오히려 우리가 환란을 많이 받으면

156) Inst., 3. 8.

157) 필립 홀트롭, 「기독교강요 연구핸드북」p.222.

158) Inst., 3. 8. 1.

159) Inst.. 3. 8. 7-11.

160) R. S. Wallace, p.94.

161) Inst., 3. 8. 1.

162) Ibid.

받을수록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더욱 확실하게 된다고 믿으며, 그때에 십자가의 고통은 현저히 줄어든다고 한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을 때에 포로, 멸시, 투옥, 수치, 심지어 죽음 자체등과 같은 그 자체로서는 악한 모든 환란들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였다[163].

백영희 목사도 십자가의 신앙, 순교의 신앙을 강조하였으며, 순교의 신앙은 평소에 자기가 날마다 죽는 순생의 삶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환란을 통과하는 신앙에 대한 강조점들로 가득하다. 이런 그의 설교는 그가 신사참배와 6.25 전쟁 중 공산치하에서 십자가를 지는 생활로 승리한 경험에서 나오는 힘있는 교훈이었다.

순종의 첫 단계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육체를 죽이는 것이다. 용광로의 원석을 제련하여 정금을 만들어 내듯이,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에게서 자기의 의지를 제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과 참된 순종의 빛를 보게된다[164]. 이렇듯 십자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한다. 칼빈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분명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고통을 감사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165]"고 하였다.

백영희 목사도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은 환란의 현실이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한 사람만드시기 위한 구원의 현실이므로 승리의 확신과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166]. 순종의 생활을 할 때에 닥치는 십자가(환란)이 크면 클 수록 십자가 후에 약속된 부활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소망 중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칼빈도 백영희도 고난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

163) Inst., 3. 8. 7.

164) Inst., 3. 8. 4.

165) Inst.. 3. 8.11.

166) 「메모」, p.63.

도 소망 중에서 신앙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일평생 계속 되어야 할 일이며, 이를 통하여 성화의 과정이 촉진되는 것이다. 단, 십자가를 지는 삶도 자기부정의 내면적 과정과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3. 선행

칼빈 당시 선행의 문제는 구원론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였다. 왜냐하면 로마교회는 칼빈의 이신칭의 교리가 선행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했고, 또한편 루터교는 믿음의 결과로서 선행을 강조하는 칼빈의 주장이 로마교회의 옛 체계를 열어줄 수 있는 위험한 교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167].

이런 상황 속에서 칼빈은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구원은 행위와 관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선행은 구원과 관계된 중요한 것으로 선행을 통하여 영생의 기업, 즉 구원의 완성에 이른다고 하였다[168].

여기에서 말하는 선행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관습에 기초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게 행하려는 참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 선행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통해 열매 맺는 것을 요구하며, 선행이 결여한 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용납지 않는다[169]. 성경에서 선행은 하나님의 명령이며(마 6:8, 5:16ff, 엡 2:10, 롬 12:2, 히 13:21),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약 2:18, 22, 딛2:14).

그러면 불신자들의 선행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칼빈은 이에 대하

---

167) T.H.L.Parker,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London, Geoffrey Chapman, 1995) p.95.

168) Inst., 3. 14. 21.

169) Inst.. 3. 17. 12.

여 마음의 동기의 불순함 때문에 선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그럼으로 우리는 먼저 대속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요한 웨슬레 조차도 "칭의"이전의 불신자의 선행은 선하지 못하며 죄악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백영희 목사도 불신자의 선행 문제에 대하여 칼빈이나 웨슬레와 같은 입장에 있다. 불신자의 선행은 믿음의 행위도 아니요(히 11:4-6), 말씀에 합당한 것도 아니요(고전 13: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도 아니기(마6:2, 5, 16) 때문이다. 백영희 목사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모든 피조물 중심이 다 '악'이므로, 불신자의 선행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악한 것으로 취급하였다[170].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이 우리의 의가 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우리의 건설구원을 이루는데는 우리의 있는 것을 다하면 돼요. 다해도 안될 터인데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다하면 돼. 불택자들은 다해도 안돼. 예수님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기본구원도 건설구원도 안되는 것입니다.[171]"

한편 칼빈은 선행과 칭의와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강요 14-18장까지 주로 선행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며, 선행으로 칭의받지 못한다. 그러나 죄인이 칭의 받은 후에는 선행이 동반되며, 선행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구원하시어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실 때에 죄사함(칭의)의 은총뿐 아니라 성화의 제 2 은총(선행)도 더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자녀답게 만드신다.

> "우리는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이 없이 성립하는 칭의를 꿈꾸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도

170) 「메모」, p.12.

171) 「목회설교록」 제118권 (1985. 3. 31. 주일새벽), p.263 이하.

붙잡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고전 1:30)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또한 거룩하게도 하신다. 이 은혜들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한쪽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쪽이 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가 없는 것은 아니나 행위에 의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며 거기에는 동시에 거룩함도 포함한다.[172]"

칼빈은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관하여 바울과 야고보서를 가지고 강요 3권 17장 11-12에서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야고보가 사용한 단어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말해 야고보의 의도는 칭의의 방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단 한가지 초점을 말하는데, 그것은 곧 선행이 신앙과 불변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73].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입은 성도는 성경의 율법에 대해 자발적으로 순종할 마음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 변화된 심령은 그 열매로 선행을 실천하게 된다. 이 선행의 실천은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율법을 순종한다. 이 순종의 마음은 곧 성화의 열매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다[174]. 그리고 순종에 대한 보상을 허락하신다. 여기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행위가 있기 전에 값없이 주신 것을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를 속이거나 희롱하시는 것이 아니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명상하고, 우리에게 제시된 복된 소망을 하

172) Inst., 3. 16. 1.

173) Inst., 3. 17. 11-12.
존 칼빈, 「야고보서 주석」존 칼빈 성경주석 출판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pp.330-331.

174) Inst., 3. 14. 9.

늘에서 얻으려고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노력하도록, 주께서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약속의 열매(영생)가 성숙하는 데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우리의 행위에 그 결실의 공을 돌리는 것은 마땅하다.[175]"

이와같이 하나님은 선행을 수단으로 하여 신자들을 성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다[176]. 영생은 믿음으로 얻지만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으로 선행을 사용하신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일평생 순종의 열매인 선행에 힘써야 하는 삶인 것이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삯이 아니라 보상으로 영생을 상속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백영희 목사의 건설구원론(성화구원) 역시 순종의 열매로서 선행을 강조하며 ,그 선행의 효력이 영원한 구원과 직결됨을 말한다. 그러나 그 역시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편에서는 순종이지만, 하나님편에서는 상으로 갚아주심을 강조하였다.

4. 내세에 대한 명상

칼빈은 성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세상욕망을 문제삼게 되고 세상의 욕망을 죽이는 좋은 방법으로 내세의 묵상을 언급한다. 성도는 세상적인 삶을 경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다음 세상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도록 자극을 받는다[177].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땅에 속한 일에 얽매여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그는 강한 어조로 이에 대한 절연을 시도하였다.

"우리는 세상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도히

175) Inst., 3. 18. 3.

176) Inst.. 3. 14. 21.

177) Inst., 3. 8.10. 칼빈이 현세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 하는 것은 그의 몸이 말년에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심리학적 지적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9장의 내용 전체가 대부분 1539년 판에 실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그리스도의 승천 주제와 연결시켜 생각함이 타당한다. 홀트롭 「기독교강요핸드북」p.223.

사랑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 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 따라서 영원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전력을 다해 이 악한 족쇄를 부수어 버려야 한다.[178]"

이러한 칼빈의 내세에 대한 주장은 플라톤적 이원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현세를 부정하는 세계관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무리 무수한 불행이 가득하더라도 현세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옳으며, 결코 일축해서는 안된다... 현세의 생활은 신자들의 구원을 촉진시키는데 전적으로 이바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세 생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현세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께서는 앞으로 하늘에서 면류관을 쓸 사람들이 우선 지상에서 싸우고 노력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179]"

이처럼 칼빈은 현세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보았고, 신자의 구원을 이루는 터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임을 밝히고 있다. 칼빈은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지 않는 한 현세 생활을 미워해서는 안됨을 강조한다. 칼빈의 이런 현세관은 백영희 목사의 현세관과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현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실에 두셨으니, 우리는 이 현실을 감사하고, 이 현실에 머물면서, 하나님 법도대로 생활해야 한다. 믿는 자가 분망하게 실패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할 일은 안하고 안 할 일을 하기 때문이다.[180]"

또 백영희 목사는 "세상은 영원을 배우는 학교요, 실물교재로서 하나님의 선물" 이라고 하였다[181]. 그러나 앞으로 있을 영생불멸과 비교해서는

178) Inst.. 3. 8. 2.

179) Inst., 3. 9. 3.

180)「목회설교록」제168권 (1988.8.8 저녁)

죄로 얽어매는 현세 생활을 경시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때에는 언제든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갈망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명상한다는 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을 성령과 함께 찾는 것과 같다. 천국생활을 명상하면서 우리가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의 최고선이며 최종적 목표이다.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살 나라를 열망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도 찾아야 한다. 칼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 끝나고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하여 그와 더불어 천국으로 승천하지 않는 경건에 대하여 경고한다[182].

5. 기도

화란의 신학자 Hendrikus Berkhof는 전통적인 교의신학 연구에서 기도는 언제나 간과된 주제였다고 통찰하면서 오로지 칼빈과 바르트만이 여기에서 예외적인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한다[183]. 칼빈은 강요 3권 20장의 제목으로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고, 또한 기도는 "신앙의 영속적 연습"이라고 함으로 성화의 삶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기도는 살아있는 믿음의 표현[184]이다. 백영희 목사도 기도는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사람으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 즉, 마음

---

181) 「메모」, p. 41.

182) 유정우, "칼빈의 구원론에 나타난 선행의 위치와 중요성" p.150.

183) Hendrikus Berkhof,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Eerdmans, 1979), p.495.
이에 대해 혹자는 칼빈이 기도를 강요 4권 은혜의 방편에서 다루지 아니하였기에 조직신학에서 그 체계가 모호하여 바빙크, 벌콥, 벌카워 등이 조직신학에서 기도를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고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C. Hodge는 기도를 그의 저서 *Systematic Theology* vol.3 (Grand Rapids; Eermans, 1958), pp.692-709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박형룡 박사도 「교회론」,pp.367-387에서 핫지의 해설에 기초하여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취급하고 있다. 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171.

184) 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p.171.

과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서 곧 믿음 표현인 것이다[185].

기도는 인간의 심령 속에 신앙이 있을 때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결과이며 성령의 능력을 행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길이다.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기도로만 활용할 수 있다[186]. 칼빈도 기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 저장되어 있는 부요에 도달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주의 복음에 의해 지목되었고 우리의 신앙이 응시한 보화들을 우리가 기도로 파낸다[187].

또한 기도를 계속하면 죄를 지을 수 없고 거룩에 이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을 베푸신다. 기도를 하되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할 때 육의 생활 체계를 끊으므로 능력을 입는다. 세상적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는 기도를 해야한다. 옛사람을 죽이는 기도는 세상과의 단절을 뜻한다. 즉 성화에 이른다. 죄를 반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죄를 끊고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들음을 받는다[188].

칼빈에 의하면 기도는 훈련되어야 한다. 기도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배울때에만 영적인 생활을 강화다는데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한다(살전 5:17, 빌4:6).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하며 이것을 습관화 시켜야 한다. 백영희 목사도 기도가 성화의 삶(건설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임을 인식하고, 서부교회 목회시절 전교인들에게 매일 30분씩 기도훈련을 시킨바 있다.

---

185)「목회설교록」제131권 (1986.1.9.새벽).

186) 서철원,「성령신학」(서울:총신대출판부, 1999), p.185.

187) Inst., 3. 20. 2.

188) 서철원, op. cit., pp.187-188.

D. 칼빈의 성화론의 특징

1. 하나님 은혜 중심의 성화

신약성경에서 은혜(Χαρις)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그 무엇을 말한다. 즉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을 말한다. 칼빈은 구원의 원인을 아래와 같이 강요에서 설명하고 있다.

>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동력인(the efficient cause)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질료인(the material cause)은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며, 형상인(the instrumental cause)은 성령의 조명인 믿음이고, 목적인(the final cause)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189]"

그래서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5:24),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고후 3: 18), 그리스도의 재림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빌 3:20-21).

칼빈은 강요 3권에서 구원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에 21장부터 24장까지 구원에 대한 결정적인 주권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보통 조직신학 체계에서는 예정론을 신론에서 다루지만, 칼빈은 하나님의 예정을 구원론을 다 설명한 후에 다루고 있다[190]. 이렇게 함으로 인간의 구원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칼빈은 성화에 있어서도 하나님 은혜 중심을 강조한다. 특히 로마교회의 인간의 공로사상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로마교회는 칭의와 성화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칭의 속에 성화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고, 칭의는 인간의 선

189) Inst., 3. 14. 21.

190) Inst., 3. 21-24.

행으로 보존된다고 가르친다[191].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고 그와 연합함으로 유익을 얻게 됨을 말한다. 또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육을 죽이시고 영을 소생케 하시는 일을 반복하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고 성결케 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라고 하였다[192]. 칼빈에게 있어서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100% 인간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합작품이 아니다. 존 머레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중지하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노력한다. 그러나 그 관계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이다.[193]"

A. 후크마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성화는 신자의 노력이 포함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더 노력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게 된다.[194]"

이렇게 성화는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면서도 그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선행을 다시 의롭다고 여기시어 상급까지 주시는 것이다.

---

191) Inst., 3. 4. 12.

192) Inst., 3. 14. 9.

193) 존 머레이, op. cit., pp.184-185.

194) 안토니 A. 후크마, op. cit., p.333.

이와같이 칼빈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 은혜 중심의 구원론(특히 성화론)을 전개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백영희 목사도 이와같이 그의 구원론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실천적이고 전투적인 성화

칼빈의 성화론은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이고 전투적이다. 어떤 이들은 칼빈이 하나님의 영광, 절대주권, 예정만 강조함으로 인간적인 책임을 등한히 한다는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칼빈의 성화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노력과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랑과 공로를 부인한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서 노력하라고 말한 것은 쉽게 찾을 수 있다[195].

칼빈 스스로가 제네바 사역시 1550년 이래 10년간 4천번 이상 설교하였고, 270회 결혼주례, 50회 이상 세례를 집례하였고, 수많은 강의, 회의, 상담, 저술 등을 한 것은 그의 건강에 비해 늘 인간적인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196].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논리적 모순을 완벽하게 풀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인간이성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성경적인 방법을 택하였고[197], 인간들 모두 하나님의 절대성에 복종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유순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성화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촉진시킨다.

이런 점에서 칼빈의 성화론은 실생활과 연결되어져 있다. 성경에서 죄와

---

195) K, Barth는 이와같은 성화의 전투적인 성격과는 반대로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할 일이란 오직 감사하고 찬양할 것 뿐이라고 하였다. K. Barth, *Church Dogmatics* Ⅳ/2, G.W.Bromiley and T.F. Torrance ed. (Edinburgh: T & T Clark, 1961), p.516.

196) 윌리엄 부스마,「칼빈」이양호, 박종숙 역 (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1), p.65.

197) 에드윈 H. 팔마,「칼빈주의 5대교리」박민일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p.146.

싸우되 피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말씀처럼(히12:4), 칼빈은 성화를 일평생 지속적으로 싸워야 하는 전투적인 삶으로 묘사한다. 신자는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 육신의 계략에 압도 당하지 않기 위해 늘 태만 부주의를 떨치면 죄와 싸워야 한다[198].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죄와 싸우는 흔적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간다. 거룩해지기 원하는 자는 자기의 이기심과 싸우며(빌 2:11), 정욕과 감정을 억누르고[199] 부정을 삼가는 싸움의 훈련과 노력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우리 마음의 탐욕과 야심, 정욕, 태만 등의 부재성은 심각하게 남아있음으로 투쟁이 없으면 전진도 없다[200].

이런 칼빈의 강조점은 백영희 목사에게서도 엿볼수 있다. 그는 건설구원을 설명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투하는 세상이며, 우리는 전투자이고, 전투시간은 현재이며, 전법과 전술은 진실이며, 전투의 실력과 배경은 예수님의 승리의 핏공로와 성령과 진리이며, 전투의 대상은 죄와 마귀와 세상임을 말하였다[201]. 이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신앙의 각오를 그는 다음과 같은 표어로 표현하였다.

"나는 독립으로, 무언의 용사로, 주님만 모시고, 어디까지든지![202]"

이와같은 전투적인 성화의 삶에 대한 자세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영원히 실패하느냐 영원히 성공하느냐 하는 구원론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한다.

3. 일평생 지속적인 성화

198) Inst., 3. 3. 14.

199) Inst., 3. 7. 4.

200) Inst., 3. 9. 1.

201)「메모」, p.58.

202) Ibid., p.52.

칼빈의 성화론은 회개와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칼빈의 회개의 정의는 육의 죽음과 영의 살림으로 되어있다. 이 회개는 일회적이 아니라 일평생 지속되어지면서 성화되져 가는 것을 칼빈이 말하였다. 칼빈은 이런 면에서 지속적인 성화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양자를 삼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한 순간이나 한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지속되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때로는 서서히 선택한 사람들 속에 육의 부패를 씻어버리고, 그들의 죄를 깨끗케 하시며, 거룩한 성전들로 순결케 하시는 일을 평생토록 계속되어지는 회개를 통해 실천해야 하며, 이 싸움은 육신의 몸을 벗어야 끝이 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203]"

칼빈은 이 땅에서 성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짐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의 주목하는 관점은 인간의 전적타락에서 시작하여 미래의 영원한 상태까지의 전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재세례파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의 정욕을 제어하는데 부심할 필요가 없고, 성령의 인도함에 대담하고 확신있게 자신을 맡기면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204]" 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성화가 쉬지 않고 충동하는 육적 욕망을 부단히 소멸시키고, 완전을 향한 진보는 촉구하지만 완전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모습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칼빈은 이땅에서 신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신자 속에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완전을 향한 진보의 가능성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백영희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해당되는 행위 자체는 그 원인이 행위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보혈의 공로와 말씀과 성령께 피동으로 순종한 것이기에 그 효력은 영원하고 완전한 요력이 있다고 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된다.

---

203) Inst., 3. 3. 9.

204) Inst., 3. 3. 14.

V. 백영희 목사의 구원론

백영희 목사의 구원론은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으로 구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구원론은 그동안 관심있는 자들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지만, 용어의 생소함으로 인하여 오해도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본 논문은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이러한 구원론이 칼빈의 구원론의 터 위에서 발전된 형태의 구원교리 임을 밝혀서 그동안 용어 사용으로 오는 부분적인 오해들을 풀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백영희 목사의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에 대해여 전체적인 개관과 의의를 살펴본 후에, 다시 기본구원 각론과 건설구원 각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A. 백영희 구원론의 이해

1.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개요

구원이란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205]. 그럼 무엇이 악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인가 라는 구원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206]. 가장 좁은 의미의 구원은 한 개인이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천국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비록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을 축소시킨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가장 핵심은 영혼 구원임을 부인할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천국간다는 이 간단한 구원론을 중세 1천년 동안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였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의 공로로 구원를 얻겠다고

205) 김세윤,「구원이란 무엇인가」(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p.11.

206) 가장 좁게는 사람의 영혼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넓게는 인류 문화 전체로 구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의 기독교강요 3권의 구원론과 본 논문에서 다루는 백영희의 구원론은 한 인격으로서의 개인의 구원 문제로 축소시켜 논의를 하기로 한다.

수도 없이 노력을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실패 끝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음을 종교개혁을 통해 밝히었다. 그리고 칼빈의 성화론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성경의 구원도리를 드러내었다.

백영희 목사는 이 터위에 구원론을 세우되,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으로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기본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전혀 개입됨이 없이 전적 하나님의 단독사역으로서 중생함을 받아 천국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천국가게 된 것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없이 꼭 같이 받아 가지는 기본적인 구원의 은혜를 말한다. 그래서 기본구원이라고 하였다.

건설구원은 기본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성화된 것만큼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과 실력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말한다. 건설구원 역시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선행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구원은 행함이 있을 수 없는 구원이지만, 건설구원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구원이다. 건설구원은 각 사람의 성화의 분량만큼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과 실력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러나 건설구원도 인간의 공로가 아니며, 하나님 50% + 인간 50%의 신인협력의 사역도 아니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라는 점에서 칼빈의 구원론과 동일하다. 다만 이땅에서의 각 사람이 성화된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영원한 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음을 밝힌다는 점에서 칼빈의 성화론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간 구원의 도리라고 할 수 있다.

2. 백영희 구원론의 이해를 위한 인간론

인간은 피조된 인격체[207]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면류관[208]이다. 인간은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은 이에 대하여 의존적이다. 그러면서도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다[209].

---

207) 최홍석,「사람이 무엇이관대」(서울: 총신대출판부, 1991), p.20.

208) Ibid, p.17.

피조된 인격체로서의 인간은 영과 육이 구별되나 분리되지 아니하는 영육 통일체[210]라고 할 수 있다. 양자는 분리할 수 없지만 구별되는 이원성을 가진다[211]. 이러한 맥락에서 백영희 목사도 사람은 영육으로 구별되지만 나눌수 없는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인간론을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마음을 육신에 속한 비물질적 요소로 설명하였고[212], 영을 마음과는 구별[213]되는 인간의 가장 본질에 속한 요소로 보았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러한 구별은 구원론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구별이지 존재론적인 구별을 의미함은 아니다[214]. 더욱이 인간의 영은 거룩하고 몸은 악하다는 대립관계를 제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215].

---

209) Ibid., p.21.

210) Ibid.. p.36.

211) Ibid., p.37.

212) 이와같은 인간 이해는 김희보 교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성경에서 마음(lev)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육신의 일부요 하나의 생리학적 불가견의 기관인 것이다. 김희보,「구약신학논고」(서울:예수교 문서선교회, 1975), p.59. 또한 영(ruach)에 대하여서도 오헬러(Oeheler)와 페인(Payne)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자체가 영은 아니요 혼(nephesh)이라"고 말하였다. 김희보 교수가 보는 인간은 "인간=육(flesh)+ 영(spirit)=영혼(soul)"로 요약할 수 있다. Ibid.,p.55.

213) 백영희 목사는 영혼(혼)과 영을 구별하며 영혼(혼)과 마음을 교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마음은 짐승도 가지고 있는 육의 기관이며, 아담 이후 인간은 허물과 죄로 영은 죽었지만(엡2:1), 육신의 혼과 생각으로 살고 있었다. 노아 시대 사람 역시 육체가 되었어도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영과 마음을 구별하고 있다. 「목회설교록」제 137 권, pp.56-60.

214) 마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한 인격을 이루는 신비한 연합과 같이, 우리 사람의 인격도 나눌 수 없는 단일의 인격이지만 영과 마음과 육체의 요소를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사는 부활을 진실된 신앙고백으로 받아들인다면 위와같이 논리적으로 구별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지않나 생각이 된다. 실제로 중간기 상태에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일시적인 분리현상이 나타남을 부인할 수 없다(최홍석, "인간의 구조적 본성에 대한 개혁신학적 이해(2)", 「신학지남」통권 227권 1991년 여름호, p.98.). 또한 기능적으로도 우리 안에는 성경이 교훈하는 바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로보건대 위와같이 단일 인격으로서 인간의 구성요소 자체를 구별하여 설명함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그 구체적인 구별의 타당성은 성경해석학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215) 백영희 인간론의 이분설(혹은 삼분설)적인 성격 때문에 자칫 플라톤의 이원론이나 워치만 니의 삼분설이 지니는 성속이원론의 약점이 있지 않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설구원론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결코 인간의 육을 천하게 여기지 않고, 몸의 부활을 확고히 믿기에 부활후 그 육신이 입을 영광과 실력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죄악된 육신의 소욕을 멸하고 성령께 피동된 영의 소욕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영육의 대립은 성경이 교훈(롬8:6-14등)하고 있는 바요, 칼빈도 이런 점에서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라(Inst. 3. 6. 5)"고 까지 표현하였다.

이렇게 처음으로 피조된 인간이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함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지구상 누구도 죄에서 해방된 자는 없다[216]. 이를 로마서 5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12절)"고 말씀한다. 죄의 삯은 사망인데, 사망은 크게 영적인 사망, 육신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나누어진다.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보며, 육신적인 사망은 육신의 호흡이 끊기어져서 영육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며, 영원한 사망은 심판받아 영육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 받음으로 이해된다[217].

이런 인간론을 배경으로 하여 백영희 목사는 중생이란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 사는 것으로 이해하였다(요3장)[218]. 그에게 있어서 중생은 기본구원에 속한 것이다. 중생한 영 속에서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말씀이 역사함으로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순종의 생활을 하게 함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이렇게 자라간 인격의 실력과 영광은 영원한 나라의 실력과 영광이 되며, 반면에 불순종한 만큼 성화되지 못하였기에 실력적으로 영광적으로 영원히 잃어버린 기능이 된다. 이것을 일컬어서 건설구원이라고 한다.

3.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구별의 당위성

(1) 신학적 당위성

지금까지 신학계에서는 구원의 단계를 구원서정이란 용어로 설명하여왔다. 그러나 학자들마다 구원서정을 각기 조금씩 상이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 중에서 하나님의 단독의 역사로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의 측면과, 인간의 책임있는 선행이 포함되어지는 구원의 은혜의 측

216) 안토니 A. 후크마,「개혁주의 인간론」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p.237.

217) 조영엽,「구원론 종말-내세론」(서울: 도서출판 미스바, 2004), p.256.

218)「메모」, p.16.

면이 있음을 대체로 다 인정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칼빈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절대주권 쪽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면, 웨슬레는 신인협력의 인간책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대체로 건전한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은 칼빈과 웨슬레의 양극 사이의 어느 지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칼빈의 이론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성경적 뿌리가 깊고 논리적 일관성이 뛰어난 반면에, 웨슬레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함으로 부흥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오늘날 일부에서는 칼빈의 구원론이 가지는 하나님 주권의 강조점 때문에 칼빈의 의도와는 별도로 인간의 책임있는 행위를 소홀히 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퇴조현상까지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219]. 반면에 인간의 책임과 열심을 강조한 웨슬레의 성결운동이 획기적인 부흥운동으로 교회사의 한 부분을 크게 장식하였지만 인간중심의 세속화를 막지 못하는 이론적인 한계를 드러내었다. 인간의 자력을 강조하는 모든 교리가 점차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필연이기 때문이다[220].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한 기본구원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서 거룩함을 입어 가는 건설구원이 필요하게 된다. 백영희 목사는 하나님의 단독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기본구원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간의 자율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룩을 건설구원이라고 하였다[221].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잘 조화시켰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도 일하시며 인간도 일한다고 가르친다. 즉, 성화의 과정은 100%하나님의 주권이요, 100%인간의 책임이다[222]. 하나님이 단독으로 창조하신 세계와 구원경륜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심오하다. 그에 비하면 인간이 하는

219) 이종성,「칼 빈」(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0), p.194.

220) 알란셀,「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구원」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p.34.

221)「목회설교록」제136권, pp.428-431.

222) 안토니 A. 후크마,「개혁주의 구원론」, p.14.

일이란 것은 순간적이고 티끌과 같이 작고 구더기와 같이 더러운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뭔가를 보탤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하라 명하신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보상으로 상을 더하여 주시려는 이중의 넘치는 은혜인 것이다. 그럼으로 성도는 바울과 같이 죽도록 충성하고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원수 되었던 자를 살리사 자녀 삼아주신 것은 기본구원에 속한 것이요, 살려서 양자삼아 놓은 아들에게 말씀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그 순종의 분량만큼 영원한 실력과 영광으로 보상하시는 것은 건설구원에 속한 은혜이다. 이는 칼빈이 말하는 칭의와 성화의 이중은혜와 같은 것이다.

요컨대 백영희 목사의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구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책임을 균형있게 조화시키려는 점에서 구별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성경해석적 당위성

우리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고 은혜로만 받게 되는 것은 기본구원이며, 우리편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여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건설구원이다. 백영희 목사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에 관련된 본문을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으로 구별하여 읽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전적 은혜로 주시시는 것을 자기 노력으로 받겠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일평생 구원 받은 확신 없이 불안 속에 살수가 있으며, 반대로 우리의 책임있는 충성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을 그냥 주시는 줄 알고 방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심신의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은 건설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이므로 이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예컨대 믿음으로 구원얻는다는 이신칭의에 해당되는 많은 말씀들(요1:12,

3:16, 롬3:21-24, 딤후 1:9-10 등)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며, 여기에 우리 편에서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말씀은 건설구원과 관련된 것들이다.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5:20)[223]"

>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10:22)[224]"

>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1)[225]"

>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벧전 1:15)[226]"

>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벧후 1:5-11)"

그 외에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11:12)",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24:13)",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전 15:2)" 등의 말씀을 들 수 있다.

---

223) 「목회설교록」제 153 권 (1987. 5.31.주일오후), p.471.

224) 「목회설교록」제 93 권 (1983. 7.13.수요새벽), p.413.

225) 「목회설교록」제 121 권 (1985. 6.16.주일오후) p.376. 이 말씀을 성화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인 듯 하다. Cf. 안토니 A. 후크마,「개혁주의 구원론」p.14; 박영선,「성화에의 길」(서울:도서출판 엠마오,1992), p.43 ; 박윤선 「빌립보서강해주석」CD자료.

226) 「목회설교록」제 181 권 (1989. 8.6.주일오전), p.146.

백영희 목사는 이와같은 말씀들은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늘 불안하고, 또 인간의 선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구원처럼 보여지기 쉬우며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 준다고 보았다.

백영희 목사는 마태복음 25:1-13 사이의 열처녀 비유 또한 건설구원과 관련된 말씀으로 보았다. 본문의 두 종류의 처녀는 꼭 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 점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두 종류의 성도로 보았다. 즉, 건설구원에 실패한 자와 성공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믿는 성도가 깨어 기름 준비한 심신의 기능은 성화되어 영원한 영생의 기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건설할 구원의 기회를 도적맞고 영원히 다시는 기회가 없음을 교훈한 것으로 보았다. 즉,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깬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면으로 주님을 모시게 되고(연합되어) 그것만큼 천국에서 효력있는 성화의 요소를 마련한 사람이 되며 실패한 그만큼은 영원히 다시 기회가 없음을 교훈하는 말씀으로 보았다. 만약 이 말씀을 인간의 기름 준비 여하에 따라 천국가고 지옥가는 것이 결정되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를 지지하는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227]. 이렇게 백영희 목사는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받을 말씀과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을 구별하고 있다. 건설구원은 순종의 분량만큼 각 사람의 차이가 있으며, 구원은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이 부끄러운 자가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임을 확신하였다(고전3:11-15).

(3) 신앙현실적 당위성

우리의 신앙현실에 있어서도 구원을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으로 나누어 생

227) 「목회설교록」(1980. 8.17.주일오전, 오후). Cf.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준비가 부족한 나머지 도중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문이 닫혀지고 만다” 고 주석하고 있다: in 존 칼빈 「칼빈주석」(서울: 칼빈주석편찬위, 1981) p.376 ; 박윤선 박사는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외식하는 교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윤선,「마태복음 주석」CD ; 윌리암 핸드릭슨은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치 않은 자들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해석하여 회개 여부에 천국에 들어가는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윌리엄 핸드릭슨,「마태복음 (하)」(서울: 아가페출판사, 1988), pp.271-272.

각하지 않는다면 구원관에 많은 혼란을 예상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신사참배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다. 장로교 27회 총회에서 신사에 절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의한 후에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행하였다. 그들 중 대부분은 죄인줄 알면서도 5년 7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회개치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중생과 성화의 불가분성만을 주장한다면 이들의 구원문제는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해방 후 일부 교계의 주장처럼 칼빈의 이론을 역사적 사회적 상황을 무시하고 곧 바로 적용하여 이들에게 구원이 없고 다 지옥에 가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분명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도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면 범죄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꼭 같은 구원을 얻는 것인가?

한국교회사를 통해 볼 때에 교회가 저지런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임은 분명하다. 그 죄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것이었다. 그렇다고 신사참배를 범한 사람은 전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갈 것이라면 은혜로 얻는 구원의 정통교리는 모순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죄를 지은 뒤 회개한 사람만 천국가고 회개치 않은 사람만 지옥에 간다면,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임종에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불안한 구원이 되고 말 것이다. 구원이 회개여부에 달렸다면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거나 치매 상태로 죽는 사람들의 구원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온다.

이런 신앙현실적인 혼란을 백영희 목사는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구별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사참배 여부를 떠나서 택함받아 믿고 중생된 사람은 기본구원은 얻지만, 큰 죄와 작은 죄, 습관적인 죄와 실수로 지은 죄, 회개한 죄와 거부한 죄 등에 따라 건설구원의 차이는 어떤 형태로던 반드시 있게 될 것으로 보았다. 칼빈 역시 같은 취지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바울의 몸(갈6:17), 그리스도의 영광을 많이 나타낸 그의 몸이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다”고 함으로 차이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

다[228].

이렇게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구별함으로써 신앙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원에 관련된 문제들을 바로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땅에서의 환란을 이기고 거룩함을 이루어 갈 성화의 삶을 촉진하고 있다.

B. 공통적인 기본구원

백영희 목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였다.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보았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기본구원을 얻는 사람은 많을 것이라고 보았다. 태아도 사람으로 본다면 다 구원을 받았고[229],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택정함 속에 있다고 보았다. 우리 나라 교회사에 있어서도 신사참배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모두 기본구원은 받았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고전 3:15). 기본구원은 이미 받은 것(하나님의 선택, 예정, 창조, 대속, 중생,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의 시민권을 가짐, 보혈과 진리와 성령의 보증, 성화구원의 씨)과 장차 받게될 것(생명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은 성도가 공통적으로 받아가진 기본구원의 은혜 안에 속한 내용들이다[230].

기본구원의 특징은 하나님의 단독사역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다[231]. 아무리

228) Inst.. 3. 25. 8.

229) 칼빈주의자 로뢰인 뵈트너도 택함 받은 자의 수효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수효보다 많은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영아기에 죽은 자들의 구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에 있다. 로뢰인 뵈트너, 「칼빈주의 예정론」 김남식 역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2002), pp.176-183.

230) 「메 모」, pp.15-16. 동일한 내용으로, 송용조, 「그리스도와 구원」 (서울: 서울성경학교출판부, 1989), p.90.

231) 같은 뜻으로 구원의 축복이 신자에게 경험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으로서의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단독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다. 김광열, 「구원과 성화」 (서울: 총신대출판부, 2000), p.45.

성자와 같은 사람의 행위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와 같이 더러워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사역에 가미가 되면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기본구원은 중생될 때 확정되는 것이고 영원히 자라가는 불변적이며 불가항력적인 것이다[232]. 기본구원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차이가 없는 공통적인 것이다. 순교한 베드로나 바울이나 비천한 우리들이나 차등없이 공통된 구원이니, 어찌 영원토록 감사 찬송할 은혜가 아니겠는가. 칼빈도 로마서 8:38-39을 인용하며 성도의 확실한 구원과 그 구원이 사도들이나 모든 신자나 차별이 없는 공통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 "그들은(스콜라 철학자들) 사도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이라고 해석을 지껄인다..... 바울이 논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공통적인 믿음으로 얻는 은혜이며 그만이 체험한 일들이 아니다.[233]"

이하에서는 기본구원의 요건, 내용, 성격에 대하여 상술할 것이다.

1. 기본구원의 요건

백영희 목사에게 있어서 구원의 요건은 언제나 예수님의 대속이다. 이 대속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구원의 진리를 개인에게 적용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피와 진리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을 일으킴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요일 5:7-8)[234]. 칼빈도 이신칭의의 교리를 설명하며, 믿음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는 약속에 있으며,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235],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236].

---

232) Ibid., p.51.

233) Inst., 3. 2. 40.

234) 「목회설교록」(1982.4.29. 목요새벽)

그러므로 기본구원의 요건으로서 피와 진리와 성령과 믿음은 칼빈의 이신칭의 구원론의 근본 터 위에 굳게 선 것이라 할 수 있다.

(1) 예수님

행 4:12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이 길 외에는 있을 수 없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들을 하지만 성경은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주의 이름을 따라 기독교는 '예수교'라고 부른다. 석가를 믿고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교이며, 공자를 믿고도 구원을 얻으려면 유교라고 한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237].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신 대속을 믿음이다.

(2) 성령과 진리의 역사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입히는 역할은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은 대속을 우리에게 입히는 책임자이시고 대속은 진리말씀 속에 있으며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도리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중생될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해결해 두었고 성령은 그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서 살리시되 진리의 법칙으로 그렇게 한다(요 14:17, 엡1:13, 살후2:13, 요일5:6-8)[238].

---

235) Inst, 3. 2. 29.

236) Inst., 3. 2. 33.

237) 이영인,「백영희 조직신학」(전남: 백영희 목회연구회, 2004), p.304.

238) Ibid., pp.305-306.

(3) 믿음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인간편에서는 믿음으로 수납한다. 전적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인간의 공로가 전혀 개입될 수 없다는 뜻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무조건 받아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예수님의 수고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오해가 많다. 즉, 믿음 자체가 의가 된다는 오해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천국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혹 '믿음으로'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노력은 필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성경이 요구하는 행위 중에는 우리 몸이 움직여야 하는 행위보다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행위가 더 많다. '믿음'이 중생의 전제 조건이 될 때에 이 '믿음'은 마음이라도 움직이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했다면 오해이다.

중생의 조건이 되는 '믿음'은 인간의 몸과 마음의 어떤 수고도 다 배제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전적 은혜로 주셨고 인간은 죽은 상태이므로 그 주시는 것을 저항하지 않았고 주시는 대로 받게 되었다는 외면만을 두고 표현한 것이다. 그 내면은 전적은혜이니 인간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주시는 것을 '받게 되어졌다'는 표현이다(엡 2:8-9, 빌3:9)[239].

갈2:16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고로.." 라고 했다. 칼빈도 "믿음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의를 얻어 우리에게 준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은 한 도구에 불과하며, 이 도구를 사용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얻는 것이다"[240]라고 설명하고 있다.

239) Ibid., p.305.

로마교회는 인간의 행위를 더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했고, 전적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부인하였다. 오늘 교회가 중세 로마교회에서 개혁하고 나온 것은 구원은 전적은혜라는 교리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기본구원의 내용

백영희 목사는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 창조, 대속, 중생,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시민권, 성령과 진리와 피의 보증, 성화구원의 씨, 생명 부활을 인간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단독 역사로 이루어주신 기본구원에 속한 내용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택함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조금도 차이가 없는 공통적인 것이다.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과 예정 그리고 창조

백영희 목사는 자존하신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택하셨다고 보았다(엡 1:4, 딤후1:9)[241].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다. 칼빈도 선택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공로에 대한 예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에서 옴을 말하고 있다[242]. 목적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도 만물도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할 때에 구원 얻을 자로 창조하셨다. 인간의 존엄과 구원의 가치를 이 이상 더 높일 수는 없다고 본다.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영원하고 광대한 창조 세계를 빠짐없이 예정대로 창조하셨다. 이 창조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보았다[243]. 뿐만 아니라 모든 현실과 피조물들도 우리 구원에 필요한 이용물로 주

240) Inst., 3. 18. 8.

241)「목회설교록」제 97 권, p.356.

242) Inst., 3. 22. 1.

243)「목회설교록」제 97 권, (1983. 10, 2 주일오전)

신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같은 견해는 칼빈에게서도 엿볼 수 있다.

> "현세 생활은 신자들의 구원을 촉진시키는데 전적으로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세 생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244]"

칼빈은 또한 강요 3권 10장에서 현세생활에 주어지는 모든 사물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것들을 성경에 합당한대로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다.

(2) 예수님의 대속

백영희 목사에 의하면 예수님의 대속으로 받아가진 기본구원의 중요한 내용은 사죄, 칭의, 화친 이 3가지를 들 수있다. 사죄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므로 주신 대속의 은총이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만한 댓가를 낼만한 것이 없다. 칭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만족을 이루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인데, 이것도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족을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대신 하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화목인데, 이것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화목제사로만 이루어주신 대속의 은혜이다[245]. 칼빈도 칭의를 설명하면서 이 세가지를 제유법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 "우리는 칭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하게 된 죄인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죄의 용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의같이 입고 하늘 심판대 앞에 자신있게 서는 것이다.[246]"

---

244) Inst., 3. 9. 3.

245) 「목회설교록」 제 97 권, (1983. 10. 2 주일오전)

246) Inst., 3. 17. 8.

백영희 목사는 이 대속을 칼빈주의의 원리에 따라 택자를 위한 제한적 속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 "감리교 알미니안주의에는 전인류의 대속이라고 말하고 장로교는 선택자에 한해서 대속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택함을 입은 자에게만 한해서 대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장로교 교리가 바로되어 있습니다.[247]"

(3) 영의 중생

예수님을 믿어 기본구원을 얻은 사람은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사람이 알기도 전에 노력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 사람을 씻어 그의 영을 살리셨다는 말이다. 사람의 노력은 그 어떤 행태로도 개입되지 않는다. 심지어 마음으로 믿는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다(요 3:3-6, 고전 2:1-14, 엡 2:1). 그러므로 중생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248].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표현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제일 외부 면으로로만 말을 한 것이다. 사람이 아는 것은 마음의 작용까지 이다. 자기 마음이 믿기로 결심한 것이 신앙의 첫 출발인 줄로 사람들은 알지만, 실은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믿을 마음을 가질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의 영을 무조건 은혜로 살려놓은 중생이 먼저 있었다[249].

'믿음'을 기본구원의 요건으로 '중생'을 그 결과로 설명한 것은 평범한 사람의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기본구원의 전개과정을 시간순서로 살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250].

---

247) 「목회설교록」 제97권 (1983. 10. 2. 주후), p.375.

248) 김광열 , op. cit., p.48.

249) A. Kuyper, Charles Hodge, Louis Berkhof, 박형룡 등의 개혁주의 학자들의 구원서정은 모두 신앙이나 회심 이전에 중생이 있다. 김길성, 「구원론」 p.61.

250) 같은 뜻으로, 김광열, op. cit., p.45.

영의 중생을 두고 한 가지 더 살필 문제는 중생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인간의 범죄로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져 작동 불능의 상태로 죽어 있었다. 이 작동불능의 영에게 다시 피와 성령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자 영이 중생이 되었다. 요일 5:7-8에서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 라 한 것은 대속과 성령과 진리의 역사라는 말이다.

우리를 중생시켜 우리 영에게 생명을 주어 우리 심신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는 이 생명 역사는 여전히 영과 마음과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부 인적 요소만 보고 중생의 역사와 이후 모든 행위를 인적 요소가 움직여 가는 인간의 수고로 보기가 쉽다. 그러나 중생된 영이 마음과 몸을 붙들고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는 그 외부는 인적요소이지만 그 속에는 대속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진리의 역사로만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받아 가진 중생의 내면은 피조물에 속한 것은 전혀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적 요소이다.

마치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그 짐승의 요소로만 만들어지듯,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생물학적 요소로 형성되듯, 중생된 영은 인적 요소이지만 그 생명은 신적요소이다. 인간의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인간이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생의 생명은 신적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므로 생명을 만들고 영원히 이어져 나가니 신적요소의 '연합'으로 생겨진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약 1:18, 롬 6:5)[251]. 안토니 A. 후크마도 중생의 본질을 순간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변화이며,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변화이며, 근본적 변화로 봄으로 이는 신적요소라는 근본 뜻과 동일함을 말하고 있다[252].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백영희 목사가 '영의 중생'을 말한다고 해서 중생의 효력이 영에게만 미친 것으로 본 것은 아니다. 건전한 견해는 항

251) 이영인, op. cit., pp.306-307.

252) 안토니 후크마 ,「개혁주의 구원론」, pp.169-173.

상 중생의 영향력이 인간의 기능들 중에 일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253]. 백영희 목사도 영의 중생을 통해서 보혈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중생된 사람의 심신에 영향을 미치는 전 인격적인 변화로 이해하였다. 다만, 이 변화는 점진적으로 적용되어 지는 것이다. 이것을 백영희 목사는 기본구원의 내용에 속한 것으로 피와 진리의 보증(건설구원의 씨)라고 말하였다[254].

(4) 하나님의 아들 됨

중생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상대한다. 우리의 신분이 일반 만물 중에 한 존재로 있다가 중생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요소를 받아 하나님으로 난 존재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말이며, 하나님께서 양육하며 기른다는 말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가질 존재라는 뜻이다.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할 우리는 그 자녀가 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기본구원의 내용이요, 중생의 결과로 얻는 신분이다(요 1:12, 롬 8:14, 갈 4:6, 요일 3:2). 세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주 희미하게 짐작하도록 해 주는 정도일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이 관계는 육의 부모 밑에서 자녀로 태어나는 관계를 가지고는 측량도 못할 실상과 무한을 가지고 있다[255].

(5) 천국시민권(또는 천국영생)

253) 루이스 벌콥,「조직신학 구원론」(서울: 기독교문사,1979), p.116 ; 안토니 후크마 「개혁주의 구원론」, p.171; 김길성,「구원론」, p.62 ; 김광열,「구원과 성화」pp.51-53.

254)「목회설교록」제116권 (1985. 2.9. 새벽), p.315 이하.

255) 이영인, op. cit., p.308.

중생한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다. 한 번 중생된 영은 다시 죽지 않는다.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다(요5:24). 그 영생의 지위는 믿는 사람끼리 차이가 없다. 그래서 기본구원이라고 한다(롬 8:1-2, 요일 5:18).

천국 영생이라는 표현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고생스런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다시는 세상의 고통을 겪지 않고 영원히 살아 존재하는 것을 '영생'의 의미로 대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단순히 존재의 연속과 고통이 없는 평안의 연속이라는 면에서만 보는 것은 실상의 일면만을 본 것이다. 물질계로 이루어진 현세도 그 오묘하고 광대한 것이 끝이 없을 정도이다. 하물며 물질을 초월하고 있는 영계의 범위와 그 활동은 오늘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그 나라의 모습은 오늘 세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우리 눈이 어두워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조금만 알리고 있다. 영원히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고 그 나라는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에 의하여 운영될 것이다[256].

(6) 성령과 진리와 피의 보증(건설구원의 씨)

성령과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은 셋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계속 역사해 주시는 보증이 된다(엡 1:12-14, 요일 5:7-8)[257]. 이 3가지는 중생될 때에 근거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남은 건설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근거와 씨가 된다. 이 보증과 씨는 기본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다. 이 보증을 받지 못한 자들 곧, 중생되지 않는 자들의 선행은 건설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인간 자체의 선행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이다. 칼빈도 칭의 후의 선행은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여김 받는다고 말함으로 동일한 강조를 하고 있다.

---

256) Ibid., p.309.

257) 「목회설교록」 제97권 (1983. 10. 2. 주후), p.375.

"죄 용서 받은 후에 따르는 선행은 그 자체의 가치에 의하지 않고 다른 입장에서 평가된다. 행위에 있는 모든 결함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덮이고, 모든 오점은 그리스도의 순결로 깨끗케 되어....(중략)....신자들이 행하는 선행은 의롭다고 간주된다.(롬4:22)[258]"

뿐만 아니라 피와 진리와 성령의 보증은 성도의 견인교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7) 생명의 부활

성경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요5:29). 불신자의 부활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영원 영벌에 들어가기 위하여 심판부활을 받는다. 반면 기본구원을 받은 자는 선한 행위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몸이 생명의 부활을 받는다[259]. 그 부활은 그 사람의 행함에 따라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공로도 다 생명의 부활을 받는다. 그러나 부활의 권능과 영광은 각각 다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 차이는 건설구원의 차이이다.

3. 기본구원의 성격

(1) 단번구원

기본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단번에 주어진다. 두 번 반복되지 않는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대속하신 것도 단번이다. 십자가는 두 번이 없다. 또 그 대속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에도 단번이다(롬6:10, 히7:27, 유1:3)[260].

같은 의미로 칭의가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교의학에서 거의 공식화되어 있다. 칼빈은 우리가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안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순

---

258) Inst., 3. 17. 8.

259) 「목회설교록」 제97권 (1983. 10. 2. 주후), p.375이하.

260) 이영인, op. cit., p.310.

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나라 후사, 생명의 소유자가 되며, 또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얻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모든 공적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했다[261].

존 머레이도 같은 의미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단번이며 반복되거나 취소할 수 없음과 부활의 결정성과 확정적인 성격 때문에 모든 신자의 삶의 시초에 적용되어지는 구원이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단번의 구원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262].

> "우리는 부르심, 중생, 칭의, 양자됨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번에 성취된 하나님의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것들은 본질상 확정적이다.[263]"

(2) 완전구원

기본구원의 두 번째 성격은 완전성이다. 안 믿는 사람을 처음 믿게 하고 영을 중생시킬 때는, 그 사람의 영에 대한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구원한다. 미래에 지을 죄도, 알고 지은 죄도, 또 지극히 작은 죄도 그렇다.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 영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대속으로 완전하게 해결했다.

이렇게 영의 중생은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한 다음 중생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중생받은 사람의 지위는 천국갈 백성의 지위가 되는 것이다. 그 중생의 성격은 죄로 인하여 다시 취소될 수 없는 완전한 것으로 중생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본구원의 '완전성'이라고 한다[264]. 이는 주님의 대속이 완전하

261) Inst., 3.15.6.

262) 존 머레이, pp.305-306.

263) Ibid., p.289.

264) 백영희 목사는 '중생된 영은 범죄치 않는다'는 표현을 많이 강조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혹자는 '중생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기도 하였다. 백영희 목사도 분명히 중생된 이후에도 하나의 인격으로서 사람은 범죄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요소적으로 한 번 중생된 사람의 영은 다시는 범죄를 하지 않는다. 중생한 다음에 범죄하는 것은 마음과 몸이다. 따라서 몸과

기 때문에 그 대속으로 씻음 받고 다시 살아난 영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대속 안에 있기 때문이다(롬 8:1-2, 히7:23-25, 히 10:14). 결코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는 인간 자체의 완전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대속의 효력으로 얻은 신분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칼빈도 칭의는 받아들여지는 첫 순간부터 완전하다고 봄으로[265] 이와같은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 "성경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완전성만을 보라고 한다.[266]"

>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든든하게 터로 삼은 사람이다....(중략)...이렇게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으므로(롬11:19 참조), 이미 영생에 참가 했으며, 소망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267]"

마음의 범죄와 성화의 정도에 따라 천국에 들어간 성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영 자체만을 두고 말한다면, 다시는 범죄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믿은 사람은 신분적으로 다 천국영생을 소유할 자이라고 보았다. 백영희 목사에 의하면 영과 마음은 구별되며, 영은 마음과는 달라서 이리저리 나누이는 것이 아니고 단일의 성격(목회설교록, 벧전1:3-4 "영의 중생" 설교 참조, 목회자 양성원 편, "중생된 영" 자료 참고)을 가지므로 한 번 중생되면 그 중생의 상태는 영원히 불변됨을 강조한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고 있지만 중생시킨 하나님의 피와 말씀과 성령의 완전과 불변성의 효력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근거되는 말씀으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요일 3:9)",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요일 5:8)"등을 들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원어적인 해석은 다음을 참고할 것. 조영엽,「구원론 종말-내새론」(서울: 미스바, 2004), p.61이하 ; 박창환,「신약성서희랍어」(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p.276: 불변적 현재의 상태 설명 참조.

Cf. 그러나 위의 요일 3:9, 요일 5:8의 말씀에 대하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대체로 '습관적이고 계속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박윤선,「로마서 주석」(서울: 영음사, 1976), p.222. Cf. 그러나 존 머레이는 '계속적인 죄'에 대한 해석에도 약점이 있음을 밝히고, 이 구절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존 머레이,「조직신학」Ⅱ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p.295.

본 논문에서는 백영희 목사의 '중생된 영은 범죄치 않는다'는 강조점의 의도를 중생의 취소불가능성과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런 이해는 존 머레이가 확정적 성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원과정의 시초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변화의 근본적이고 확정적인 성격을 보증하는 표현(존 머레이, p.297)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 문제에 대한 해석학적인 더 자세한 논의는 다른 연구 과제로 미루어 두기로 한다.

265) J. Richard,「칼빈의 영성」p.148.

266) Inst., 3. 11. 16.

또한 칼빈은 믿음의 확신을 흐리게 하는 스콜라 철학자들의 항의에 논박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한 구원의 확실성과 견인 교리[268]를 고린도전서 2:12과 로마서 8:38-39, 33-34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다.

>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칼빈은 이 성구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사면해 주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것인가?" 무죄가 확정되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였다[269]. 또한 요일 5:18절의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는 말씀을 "사단이 공격하여 올때도....(중략)... 영적 생명이 결코 그들 속에서 소멸될 수 없다.[270]"고 주석함으로 중생으로 얻은 생명이 다시 취소될 수 없는 확실성을 가짐을 강조하였다.

백영희 목사가 중생된 영의 범죄 불가능성을 말함은 받은 구원의 완전성(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이라고 이해할 때에, 칼빈이 말하는 칭의의 완전성과 그 중심되는 맥은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더욱 성경의 진리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실제로 신약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평생 죄를 이기는 점진적 성화 외에 구원의 시초에 즉각적이고 불변적이며 확정적으로 거룩함을 입은 면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신약학자인 도날드 거스리도 바울이 성경의 어떤 진술들은 성화가 완료된 것으로 말한다고 하며, 고전 1:2, 6:11, 엡 5:26, 살전 5:23 등을 예로 들고 있

---

267) Inst., 3. 15. 5.

268) Inst.. 3. 2. 39-40.

269) Inst., 3. 11. 3.

270) 죤 칼빈,「요한일서 주석」, p.293.

다[271]. 존 머레이는 확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를 구별하여, 처음 구원의 순간에 이미 확정적으로 완성된 성화의 성질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272]. 안토니 A. 후크마도 존 머레이의 이런 개념을 받아들여 고전 1:2, 6:11, 행 20:32, 26:18, 롬 6장, 엡2:4-6 등 여러 군데의 성경구절을 통하여서 이를 보충하여 설명[273]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확신하여야 한다. 칼빈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요, 오히려 이런 자랑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다[274]고 역설하였다.

(3) 영원 구원

백영희 목사가 말하는 기본구원의 효력은 영원성을 가진다. 한번 중생되었으면 영원한 천국이 저의 것이다. 중생은 횟수로는 단번에 이루어지며, 그 성질은 완전 불변이며, 시간적인 효력은 영원을 향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생된 사람의 영은 범죄로 다시 죽지 아니하며, 그 속의 생명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결정적이고 확정적이라는 데에 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취소하거나 반복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하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275]. 다만, 마음과 몸의 범죄는 평생 싸우며 회개로 고쳐가야 하는 건설구원의 과제이다. 기본구원의 완전성도 심신의 죄 없는 이땅에서의 완전주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271) 도날드 거스리 ,「성령.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중수 역 (서울: 성서유니온, 1988), p.250.

272) 죤 머레이,「조직신학Ⅱ」, p.290.

273) 안토니 A. 후크마 외 4인,「성화에 대한 다섯가지 견해」김원주 역 (서울: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2002), pp.92-95.

274) Inst. 3. 2. 39.

275) 죤 머레이, op. cit., p.305.

C. 개별적인 건설구원

위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 믿고 중생함을 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받아 가지는 일체의 구원의 효력을 기본구원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건설구원은 기본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믿은 후 평생 살면서 각자가 개별적으로 건설해 나가야 하는 신앙생활 일체에 관련된 내용을 말한다.

땅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힘써 이루어 가야할 성화를 집짓는 것으로 성경이 비유하였기에 '건설구원'이라고 하였다(마 7:24-27, 고전 3:10-15)[276]. 칼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건설'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것은 성경에 '건축'이란 용어가 나오기 때문이다. 칼빈의 말을 인용해 본다.

> "우리의 영육을 주의 날까지 순결 무흠하게 보존하도록 힘있게 노력해야 한다. 이런 충고들은 우리의 생활을 건설하는 기초로서 가장 복된 것이다.(Inst. 3. 6. 3)"

>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가 주안에서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엡2:21), 이 터 위에 서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한다.(Inst. 3. 15. 5)"

> "우리는 이 유일한 기초에서 손가락 넓이만큼도 어긋나서는 안된다. 토대가 일단 놓이면 현명한 공사 감독은 그 위에 똑바로 건물을 짓는다(Inst. 3. 15. 8)."

그 건설은 자기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므로 '성화구원'이라고도 한다. 백영희 목사의 말을 인용해 본다.

> "건설구원은 한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추어 가지는 것입니다...예수님은 원형이라면 예수님과 꼭같은 모형을 가진 우리가 되는 것

276) 송용조,「그리스도와 구원」, p.90.

이 우리의 구원입니다[277]"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견해이다[278]. 그렇게 깨끗해진 우리의 인격이 의의 기능으로 자꾸 만들어지므로 '기능구원' 이라고도 한다[279].

성도는 구원의 터가 되는 성부의 선택, 성자의 대속, 성령의 구속 적용의 은혜로 이미 받은 중생, 칭의, 양자된 것을 굳게 잡고 부활과 천국을 확신하며 감사와 소망 중에 성화(건설구원)에 진력해야 한다. 이미 입은 구속의 은총을 바로 알아 감사하며 장차 받게될 구속을 확신하며 소망하게 될 때 오늘에 이룰 건설구원의 은혜를 입게된다[280].

이를 위해 보혈의 공로가 있으며(히 10:19-22, 벧전 1:18-20), 신구약 성경을 주셨고(딤후 3:16-17, 요 17:17, 딤전 4:5),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롬 8:4, 13, 23, 27, 갈 5;16),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골 1:16,-17, 고전 3:22), 만물을 보전하시며 사용하셔서 필요한 현실을 만들어 주사 믿음으로 건설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히 1:3, 롬 8:27-28, 요 15:1-8)[281].

1. 건설구원의 요건

백영희 목사는 건설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과 진리 말씀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그리고 우리 편에서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는 기본구원의 요건과도 동일하며 다만 우리 편에서의 순종이 포함된다. 그러나 순종도 기본구원의 요건 속에 들어간 믿음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

277) 「목회설교록」(1982. 4. 4 오전).

278) 안토니 후크마, 「개혁주의 구원론」,p.324.

279) 이영인, op. cit., p.312.

280) 「목회설교록」 제98권 (1983. 10. 11. 새벽), p.103이하.

281) 송용조, op. cit., p.91.

(1) 성령의 역사

기본구원도 전적 성령의 역사지만, 믿게 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건설구원의 성화 역사도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령이 없는 성화는 없다고 단정하면 된다.

건설구원은 믿는 사람의 남은 평생 신앙생활이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평생토록 말씀대로 살아도 성령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이 단독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 건설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마치 불신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명에 해당되는 내용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그 이름도 우리 심신이 성령을 따라 성령을 닮는 것이므로 성화구원이라고 한다. 심신을 깨끗케 만드는 성화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요일 2:27, 요14:26)[282]. 칼빈도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였다[283]. 성화가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은 개혁주의 구원론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2) 대속과 진리

기본구원은 주님의 대속과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주어졌다.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대속을 처음 믿을 때 과거의 은혜로만 기억하고 감사해서는 안된다. 믿은 이후 평생토록 살면서 그 대속의 은혜를 늘 입고 살아야 한다.

처음 믿을 때 대속의 은혜는 우리를 믿는 자로 만들어 천국을 가게 했고, 이제 믿은 이후 신앙생활에서 대속의 은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순종을 할 때에 겉으로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순종했지만, 실상은 그 인간의 노력과 순종만을 가지고 흉내만 낼뿐이지 실제로 성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우리

282) 이영인, op. cit., p.312.

283) Inst., 3. 2. 39.

마음과 몸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화가 되는 것은 겉으로는 우리의 노력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대속이 근원이 되어 그 대속의 효력을 힘입어 순종할때에 심신의 요소가 하나하나 깨끗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 믿을 때 대속은 우리라는 사람 자체를 씻어 하늘나라 사람으로 만들고, 그 후 평생의 신앙생활에서는 그 대속이 우리 심신을 현실마다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씻어 점진적으로 적용되어 성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예수님의 대속과 진리의 법칙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건설구원에 빠질 수 없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요일 5:5-8).

(3) 순종

중생은 그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기본구원이다. 그러나 중생된 사람이 평생 신앙생활 하며 고쳐가는 건설구원은 자기 마음과 몸이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성령의 인도따라 진리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다. 순종이 없는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순종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한다. 기본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건설구원도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꼭 같은 표현이지만, 기본구원의 믿음은 믿어지게 하여 믿게 하고, 건설구원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도록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즉 처음 믿음은 '은혜'를 강조했고, '순종'의 믿음은 행동을 강조한 것이다(롬 6:12-18, 히5:8-10, 약2:14-26)[284].

칼빈도 이에 대하여 *Sermons on Various Passages of Genesis*(아브라함의 칭에 관한 셋째 설교)에서 이중의 칭의(믿음)에 대해서 말한다. 우선, 처음 부르실 때의 칭의(믿음)과 그후에 행위에 관한 순수한 믿음에 의한 칭의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바울은 첫 번째 믿음을 강조하였고, 야고보는 둘째를 강조한 것이라고 하였다[285].

---

284) 이영인, op. cit., p.313.

285)「기독교강요(중)」한철하 외3인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p.362 각주에서 재인용.

칼빈도 행위의 부분적인 의를 인정할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위를 완전한 것 같이 시인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행위의 의가 이신칭의를 배척하거나 흐려지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칼빈을 인용해 보자.

>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무죄로 우리의 불의가 덮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행위도 모든 허물이 그리스도의 순결로 묻혀 버리며 우리에게 책임이 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의롭고 또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만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다.[286]"

이렇게 칼빈도 성화에서의 믿음은 선행이며 선행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말한다. 이는 기본구원에서 믿음은 순종(선행)이며, 이 선행이 대속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건설구원을 이루는 의로 인정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같은 뜻으로 안토니 후크마도 "성화란 노력(선행)을 포함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이며, 우리가 노력(선행)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에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한다"[287]고 하였다. 따라서 결코 성도 자신이 구원의 장본인이라든지, 구원은 그들의 행위에서 유래한다는 결론이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2. 건설구원의 내용

(1) 심신의 성화

성령이 인도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되 우리 심신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성화시킬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대속으로 씻겨 거룩함을 입는 것이 성화구원이다. 즉 건설구원은 마음과 몸의 성화이다. 영은 중생되는 순간에 바로 깨끗하

---

286) Inst., 3. 17. 10.

287) 안토니 A. 후크마,「개혁주의구원론」, p.333.

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타락한 본성 아래에 있는 몸과 마음은 평생 마주치는 현실 마다 그 현실에 해당된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그만큼 성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심신이 성화된 부분을 평생 모아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합계를 낸 것이 천국 간 성도의 성화의 차이이다. 즉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쥐고 갈 것은 중생된 순간에 영원히 살아난 영과 그 영이 평생 깨끗하게 만든 몸과 마음의 성화된 부분이다(계 2:23).

이 성화된 실상은 오늘 땅 위에서 더러워진 손을 씻어 이전처럼 깨끗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이 받아 가진 하나님의 요소로 된 생명이 우리 마음과 몸으로 뻗쳐 나와 신적 요소화 시킨 결과이므로, 이 성화는 이 세상 피조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288].

(2) 심신의 기능의 실력을 갖춤

건설구원의 첫 번째 내용이 심신 자체의 깨끗한 성화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내용은 심신이 가진 기능의 실력문제이다. 믿는 사람이 평생을 통해 마련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실력이다. 심신이 실력을 갖추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순종한 것만큼 의의 기능이 생기고 자란다.

칼빈도 환란을 참는 자에게 주는 보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받는 환란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289]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이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실력(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의의 기능, 즉 구원받은 심신 속에 준비된 의의 기능은 건설구원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 기능은 모든 믿은 사람이 다 같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인가?

---

288) 이영인, op. cit.. p.315.

289) Inst,. 3. 18. 7.

이 기능은 '성도(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과 관련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뜻이다. 성경에서 기름부음은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성경에서 참 제사장, 선지자, 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우리가 신앙을 길러가야 하는 건설구원의 면에서 '그리스도'라는 구주의 직책과 관련하여 생각을 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되게 하셨다. 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우리도 주님 닮은 제사장으로 길러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다[290]. 즉, 우리도 어떻게 주님이 제사장직을 했는지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 제물이 되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를 희생시켜 제물삼아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되게 하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했다면 우리는 제사장 기능을 잘 한 사람이 된다.

택자를 구원한 대속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 밖에 없는데, 그 대속을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전하게 한 것은, 우리가 없으면 이 구원이 전해질 수 없거나 불편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다. 우리를 사용함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은 희생의 사람이 되어감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장성해 지고 깨끗해 지고 또 우리의 수고한 이 수고를 전부 하늘에서 계산하여 영광으로 돌려주실 것이므로, 이 수고는 주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본받아 안 믿는 사람을 믿게하고,

---

290) 같은 뜻으로 A.A.핫지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기름부음 받은 자시며, 신자는 크리스찬 혹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이다. 그의 중보적 직무는 (1)선지자의 역할, 그와 교제에 있어서 신자는 선지자이다. (2)제사장의 역할, 신자도 역시 그 안에서 제사장이다. (3)왕의 역할, 역시 그 안에서 신자도 왕이다. 그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는 그의 생명의 변형시키고 동화시키는 능력 안에서 그와 더불어 교제를 가지며,... 그들 가운데서 그 자체를 재생시킨다" 라고 하였다. A. A. 핫지, 「핫지조직신학」제3권, 고영민 역(서울: 기독교문사, 1982), p.75.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만드는 이 복음 사역에 충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계 1:6). 믿는 사람이 다 천국은 가겠지만, 천국에서의 심신의 기능의 실력의 차이는 세상에서 얼마남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했느냐에 따른 제사장의 기능의 차이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의 직책을 감당하셨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나오지만 원형으로서 참선지자는 예수님 한분 뿐이시다(행3:20-24, 신18:18, 요 6:14). 이유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천국가는 길을 보여주어도 전혀 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모든 뜻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알려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문제를 해결하셔서 죽은 영을 살리셨고 성령이 우리 살아난 영을 통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밝혀주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다(계5:1-14).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지자 기능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실력을 갖추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알도록 하셨으니 알려주셔서 알게된 것을 아직도 모르는 이에게 전달만 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석가나 공자같은 사람들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고 천국가는 길도 발견치 못하였지만, 그들보다 한 없이 무지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살려놓고 성령과 성경으로 알게하셨으니, 모르는 이들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안 믿는 사람에게 천국가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밖에 없다고 전하고, 믿게 된 사람에게는 더 잘 믿는 길을 알려준다면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능의 차이는 이 선지자의 실력의 차이일 것이다.

구약에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호하도록 세운 목자요 지도자였다. 외부의 침략에서 백성을 보호하고, 약한 이를 돕고 병든 이를 치료하고, 백성이 나아갈 길을 앞서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왕의 역할이다(삼하 5:2). 우리는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었다. 말하자면 원수의 나라에서 포로된 신세였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싸워 다시 본국으로 갖다 놓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고 옳게 행동하도록 의를 입혀주셨고,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치료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은 만왕의 왕되신 예수님을 뒤따라 그분과 함께 영계와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릴 왕의 실력을 마련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벧전 2:9, 계5:10).

오늘 세상에서 준비하고 실력을 갖춘 것만큼 왕노릇할 수 있다. 무한한 세상을 우리에게 다 유업으로 주신다고 해도 실력이 없으면 다스리지 못한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연습하고 실력을 갖춘 것 만큼 영원한 유업을 다스리고 통치할 실력을 갖추는 것이 된다. 이 실력의 차이는 천국간 성도가 다 같을 수가 없을 것이다.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차이로 차이가 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같은 성자나 믿고도 성화되지 못한 성도가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실력과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기능이 다 같을 수는 없다. 심는대로 거둔다는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 오늘 내가 얼마나 전해했으며, 형제 자매를 바로 믿는 길로 인도하고 도와주었으며, 어린 신앙을 유혹하는 주변의 시험을 차단하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었는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한 왕같은 기능의 실력을 기르는 훈련인 것이다[291].

(3) 예비하신 상급을 받음

백영희 목사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계22:12)”는 말씀대로, 성도의 행한대로의 보

291) 이영인, op. cit., pp.320-327. passim.

상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었다. 즉, 이기는 정도에 따라서 건설구원을 이룬만큼의 차등의 상급이 있을 것을 말하였다(마 25:39, 마 10:41-42, 마 5:19, 마 18:4, 마 19: 30, 눅19:11-27, 고전 3:10-15, 고전 15:41등)[292]. 성경도 분명히 장차 승리한 성도가 받을 상에 대하여 여러군데 언급하고 있다.

>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5:12)"
>
>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네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10:42)"
>
>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고전 3:8)"
>
>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 가노라(빌3:14)"

그리고 이 상급은 영원한 성질의 것이다[293]. 건설구원은 자기 마음과 몸 자체가 순종한 것만큼 성화되고, 영원한 실력을 갖추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일을 많이 한 것만큼 그 상이 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을 세상에서 받는 '상'을 생각해서 그런 종류의 기복적인 상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것은 유치한 것이라고 해서 비하해 버리는 학자들도 있지만[294], 천국에서의 '상'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천국에서

---

292) 백영희 목사는 반대로 심판에도 차등이 있음을 말하였다. 김길성 교수도 이와같이 상급의 차등(눅 19:11-27, 고전 3:14-15)과 영벌의 등급(마 11:22-24, 눅12:47-48, 20:47)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길성,「개혁주의 종말론」(서울: 총신대신대원, 2000), p.42, 44.

293) Ibid.,p.44.

294) 권성수 교수는 개신교 신학자들의 상급무시 경향은 크게 네가지 근거 때문이라고 하였다. 첫째는, 신학적 이유로서 하나님 주권적 구원과 은혜를 강조한 탓으로, 래드(G.E.Ladd)와 프라이스커(H.Preisker)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역사적 이유로서 예레미야스(J.Jermias)와 멕닐(A.H.Mcneile)은 예수님께서 상급을 언급하신 것은 상대방을 논박하기 위한 상대방의 용어를 사용한 것이지 예수님의 의도는 상급사상을 배제하였다고 본다. 셋째로 도덕적 이유로서 와일더(A.M.Wilder)는 당시 예

의 '상'은 일에 대한 칭찬이며, 그 일을 잘한 것을 주님이 인정하여 영원히 대우할 은혜로운 약속이기도 하다(고전 3:14, 고후 5:10). 성도가 받게될 상급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7에서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곧 믿음에 대한 상급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표현하고 있다. 다만, 그 모습이 천국에서 신령한 형태로 나타나되 어떻게 나타날지 오늘 지상에서 따로 설명할 길이 없어 일단 '상'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295].

루터도 갈라디아서 주석 후기에서 차등 상급이 있는 것을 분명히 주장하였으며[296], 칼빈도 은혜로서의 보상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297]. 칼빈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도 개혁주의 내의 상급경시 사상을 비판하고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선행의 공로성을 두려워 한 나머지 약속된 상들이 죽은 것같이 침묵에 누워있도록 수난하였으니 이로 인해 상의 풍부하고 다양한 약속의 형식으로 성경이 공급한 경건에의 격려가 무디게 되었다.[298]"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어 영생과 상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였다.

수님께서 교육수준이 낮은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상징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넷째 주석적 근거로서 미켈리스(W.Michaelis)와 헌터(Hunter)는 기독교는 "무엇을 위한 도덕"이나 "상업상의 계약"이 아니라고 하면서 약속된 상급은 바로 천국을 가르키며 차등상급은 없다고 하였다: in 권성수,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급교훈(1)" 「신학지남」통권 209호(1986년 가을), pp.28-33에서 요약.

295) 권성수 교수도 동일한 취지로 천국상급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상이 분명이 있음은 사실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분명치 못하며, 그 이유는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권성수,「천국상급」(서울: 도서출판 나비, 1989) p.38.

296) Ibid., p.20.

297) Inst., 3. 18. 3.

298) A.Kuyper, E. Voto., Ⅱ, p.377; 박형룡,「박형룡 박사 저작전집 Ⅴ: 구원론」(서울:한국기독교교육 연구원, 1988), p.377에서 재인용.

"영생은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아 칭의 됨으로 구속된 모든 신자들이 다 받는 것이나 상은 이에 추가적인 것으로 특별한 선물이며 보상의 성질의 것이다.[299]"

이런 카이퍼의 견해는 기본구원의 공통성과 건설구원의 개별성의 구별과 같은 것이다. 박형룡 박사도 그의 구원론 제7장 성화의 부분에서 카이퍼의 상급에 대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으며[300], 박윤선 박사도 그의 공관복음 주석, 산상수훈 주해에서 같은 입장[301]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의 권고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그분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히11:6).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푯대로 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이다(계2:10). 그러나 칼빈의 말처럼 선행의 보상으로 주시는 상급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302] 백영희 목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죽도록 충성을 하면 되느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된다. 왜 안되느냐? 인간은 다 유한한 자인데 지금 구원 얻는 것은 유한한 것 가지고는 구원이 안된다. 무한한 것이라야 되고 또 일시의 것은 안되고 영원이라야 된다. 우리가 죽도록 힘써 봤자 영원과 완전과 불변은 만들 수 없는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중략)....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은 네 전체가, 네 마음, 생명, 힘, 뜻, 성품, 네 전부가 원하면 내가 해주겠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과 연결이 승리한 그 승리를 네게 주겠다 하신 말씀이다....(중략)...다 은혜로 주기는 주는

299) Ibid., p.374.

300) Ibid., pp.373-377.

301) 박윤선,「성경주석: 공관복음」(서울: 영음사, 1980),p.653. 천국상급의 차등에 대한 같은 입장은 다음을 참고: Henry J. Foster,「베이커 주석」장지철 역(서울: 기독교문사, 1986), pp.177-178 ; William Hendriksen,「내세론」오성종 역(서울: 새순출판사, 1991), pp.122-124 ; 권성수, "마태복음에 나타난 상급에 관한 연구(1)" p.33.

302) Inst., 3. 15. 3.

데 조건이 붙었다. 무슨 조건이냐? 이제는 네가 중생되었고, 죽었던 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성이다. 네가 죽어있을 때는 네가 아무 소원도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다 살리지만, 이제는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네 자유성 백프로가 다 소원하면 내가 공짜배기로 해 주겠다. 그러나 네가 백분지 일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그것이 원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면서 다 원하도록 조력하겠다. 이것이 성신의 감화를 주는 것이오. 성신의 감화로 전폭 원하도록 만들고, 그래 가지고 전폭이 원할때는 내가 계약한 대로 싹 내가 계약이행을 해서 다 해 주겠다.[303]"

이렇게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과 피와 진리로 보증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이 백프로 다 죽도록 충성하도록 하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므로 여기에 인간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양심을 쓰고 심령이 밝은 사람은 모든 일을 건설구원을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이룬 그것을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서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진다 했습니다. 이제 그 면류관를 보니까 승리한 것은 전부 다 주님이 승리케 하신 그 은혜로 승리를 했기에...면류관을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304]"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하시며, 그 수고를 삯이 아니라 보상으로 주신다고 계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건설구원의 결과로 오는 수고한 만큼의 상급 역시 인간의 공로가 아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다. 이는 박형룡 박사가 상은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되 공로에 대한 댓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며 상급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에 위안을 주시기 위함[305]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

303) 「목회설교록」 제126권 (1985.10.2.새벽), p.389이하에서 요약.

304) 「목회설교록」 제162권 (1988.3.2.새벽), p.456.

305) 박형룡, 「박형룡 박사 저작전집 V: 구원론」,p.57.

3. 건설구원의 성격

(1) 중복적 성격

기본구원은 단번에 받은 구원의 은혜이다. 단번에 신분이 변화됨으로 그 신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부 다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구원은 일평생 한 현실 한 현실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므로, 점진적이고 중복적인 성격을 가진다.

오늘 실패한 사람이 다음에는 회개하고 돌이켜 큰 의인이 될 수 있고, 또 젊어서는 못다한 충성을 노년에 은혜 받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선 자가 뒤에 서고, 뒤선 자가 앞 설 수 있는 것이 건설구원의 성격이다(마 19:30). 신사참배 때는 실패했지만 다시 준비하여 6.25를 승리하고 순교한 종들도 있었다. 반대로 신사참배에는 승리한 종들이 훗날 교권 싸움에서 실패한 분들도 있었다.

이렇게 건설구원의 기회는 평생 중복적으로 주어지나, 그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같은 현실은 주어지지 않으므로 그 현실에서 이루져야 할 분량만큼의 성화는 이루지 못하게 되는 긴장 속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면에있어서는 건설구원도 부분적으로는 단번의 기회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신앙여정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건설구원은 중복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칼빈의 성화론이 실천적이고 전투적이며 일평생 지속되는 점진적인 특징을 가진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2) 개별적 성격

기본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하나님의 단독역사로만 이루어지므로 빠진부분이 없고 미진한 것이 없다. 그러나 건설구원이라는 성화의 과정은 매 현실마다 회개와 순종이라는 행위를 포함하게 되므로, 그 분량이 사

람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된다. 이를 건설구원의 개별적 성격이라고 한다. 성경은 하루밤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도 차이가 큰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그 영광의 차이가 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과 같이 차이가 있을 것이며(고전 3:10-15),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이 다른 것처럼 차이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전 15:41-42). 한 므나 받아서 열 므나를 남기고 열 고을 권세를 받은 종의 실력과 다섯 므나를 남기고 다섯 고을 권세를 받은 종의 실력과 한 므나 그대로 두고 있는 것까지 빼앗긴 종의 실력이 각각 다 차이가 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눅17:11-27).

한편 칼빈의 경우 그리스도의 의(칭의)를 붙잡은 자는 동시에 거룩함(성화)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306]. 칼빈은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면서, 각 사람의 성화의 개별적 성격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결코 천국은 산술적인 평등만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점에서 백영희 구원론은 칼빈의 터 위에서 한 발자국 더 성경적 진리에 나아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칼빈이 비록 성화의 분량의 개별적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강요 제 3 권 25장 부활의 장에 보면 부활의 영광이 개별적 차이가 있을 것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선물을 분해하실 때에 모든 성도에게 꼭 같이 빛을 비추시지 않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때에도 그 영광의 정도가 꼭 같지 않으리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307]"

요컨대 칼빈도 성화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며, 백영희 목사는 더욱 분명히 이 진리를 밝힘으로 성화의 삶을 촉진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

306) Inst., 3. 16. 1.

307) Inst., 3. 25. 10.

D. 백영희 구원론의 특징

1. 구원에 있어서 전적 은혜를 강조

살펴본바 백영희 구원론의 특징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은혜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본구원도 건설구원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진다. 기본구원이라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전적 은혜로 받는 구원이다. 이 기본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이다. 백영희 목사는 전적은혜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전적은혜라는 말은 공으로 댓가없이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서 은혜라고 하는데, 이 기본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우리는 공으로 받았으니 기본구원은 가치가 없어서 그런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구원은 건설구원보다 무한히 가치가 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이 아무리 성자 성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때묻은 옷과 같은 것입니다. ...(중략)...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이 기본구원에는 털끝만큼도 감당할 댓가가 되기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털끝만치라도 가해지면 더러워져서 기본구원은 망치게 됩니다.[308]"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는 거기에 전혀 가담시키지 않고 전적 은혜로만 주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백영희 구원론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건설구원 역시 동일한 은혜로 이루어진다.

> "주의 형상을 입는 우리가 마련할라고 하는 이 구원(건설구원)

308) 「목회설교록」 제97권, p.356면 이하.

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이지 우리의 노력은 여기에 가담되지 않습니다.....(중략)..... 우리는 받은 바의 은혜 우리에게 그 은혜생활 할 수 있도록 당신이 만들어 주신 그 은혜생활 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요소는 전적 받은 바의 은혜를 입어 은혜 입은 대로 은혜생활하는 그것이 우리지 우리 요소는 새로운 건설이나 창조에는 전혀 추호도 거기에 가담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종래에 이런 교리와 신조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신인합동설을 부인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신인합동설에 머무러고 있는 것이 현실 교회였습니다.....(중략).... 인적요소는 당신의 은혜가 와가지고 만드신 것만큼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것뿐이고 만들어진 그것이 만들어진 대로 보존되고 유지되고 행동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은혜로 와가지고 만드시니 우리의 구원은 전적 하나님 한 분의 조성이요 조성에는 인간은 가담하지 않앴다 다만 받은 은혜를 감당하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증거했습니다.[309)]"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의 이 권능의 은혜로 건설구원을 이루지 인적요소로 이룰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정을 지우고 나서는 것이 큰 지혜가 됩니다. ....(중략)....대개는 악령이 우리를 미혹해서 실패케 하는 것은 기본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만 건설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이 힘을 합해서 합동해가지고 구원을 이룬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배운 교리와 신조로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 자기가 생활에는 자기 인적요소를 이 건설구원의 자원으로 계산대고 사는 생활을 아주 하기 쉽습니다. 이 실수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중략)..이렇게 계산을 대서 스스로 우리 구원을 혼돈하고 혼잡시키는 그런 일이 많이 되어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310)]"

이와같이 백영희 목사는 신인협동설을 배격하고 건설구원에 있어서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에 관한 교리 속에서 강조하고 있다.

---

309) 「목회설교록」(1982. 4. 4 주일오후)

310) Ibid.

2.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에 연합을 강조

칼빈에게 있어서 구원의 효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음을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칼빈의 구원론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백영희 목사도 이에 대하여 칼빈과 동일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백영희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이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구원을 설명하면서 기본구원의 요건이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기본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의 효력은 사죄, 칭의, 하나님과 화친(화목), 새생명(중생)으로 요약할 수 있다(롬5:1, 6:4-7). 기본구원은 성령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서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활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었다.

칼빈도 강요 3.11.21-23에서 다만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죄가 용서되며, 칭의와 화해가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동일한 구원의 길을 밝히고 있다.

> "즉,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된 죄인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죄의 용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의같이 입고 하늘 심판대 앞에 자신있게 서는 것이다[311]"

칼빈이 성화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한 것과 같이, 백영희 목사는 특히 건설구원도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에 연합할 때에 이루어짐을 동일하게 강조하였다. 그가 로마서 6장 5절 이하의 본문으로 사활에 연합한 자에 대하여 설교한 내용[312]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11) Inst., 3. 17. 8.

312) 「목회설교록」(1982. 5. 30 주일오후)

"이 구원을 이루는데는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함께 죽는다'는 말씀인데.....(중략)...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 지식으로 연합한 것요, 지식만으로는 건설구원에 실효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예를들면 '추우면 옷을 입어야 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도 밥을 먹지 않고 옷을 입지않으면 밥이나 옷의 효력을 보지못합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죽어야 죽은 것만큼 대속이 효력이 있고, 죽었으면 죽은 것만큼 그 다음에는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실지로 죽는 것인데, 언제 어디서 실지로 죽을 수 있는고 하니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현실에서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 이것이 판정이 나는데..... (중략)... 사도바울은 이 싸움을 계속했고, 마지막에는 승리했는데(롬 7:22-33, 빌1:23, 딤후4:7), 우리의 심신의 요소가 그 현실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현실현실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것만큼 부활의 영광과 실력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건설구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영희 목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사활의 대속과 그 대속에 연합함의 근원이 없다면 구원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은 전적 은혜에 속한 것이기에 건설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 것이다.

이는 칼빈이 성화를 위한 선행을 설명하면서 선행 조차도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죄를 용서 받은 후에 따르는 선행은 그 자체의 가치에 의하지 않고 다른 입장에서 평가된다. 행위에 있는 모든 결함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덮이고, 모든 오점은 그리스도의 순결로서 깨끗케 되어..(중략)... 신자들이 행하는 선행은 의롭다고 간주된다.[313)]"

이러한 효력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형벌이며, 우리를 대신한 순종이며,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죽으심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 자체의 행위자체는 아무리 성자 성녀의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간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대형, 대행, 대화목의 의를 입고 있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위로 보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건설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건설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인간편에서의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3.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건설구원을 강조

백영희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은 전적 은혜에 속한 영역이지만 건설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인간편에서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상술한 백영희 목사의 로마서 6장 5절 이하의 설교를 계속해서 인용해 보기로 한다.

>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받아 죽으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받아 죽은 것이요, 우리가 순종한 것이되지만은 이것은 법적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이 죽을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깨끗한 새사람의 요소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는 칼빈이 성화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표현한 것과 같은 내용[314]이다.

---

313) Inst., 3. 17. 8.

314) Inst. 3. 7-8.

>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삶이 우리에게서 살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우리 자신은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요 우리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사는 것입니다(갈2:20).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살면, 그것을 죽일 법이 없고 다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중략)....실지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때에 비로소 건설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영생은 건설구원을 이룬 만큼의 부활의 실력과 기능이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다. 칼빈의 성화론은 실천적이며, 전투적이며, 평생 지속되는 과정이다. 이처럼 백영희 목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사는 이 건설구원의 생활도 평생 지속되는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 “그런데 한 번 살았으면 그것으로 일생을 산 것이 아니고 그 현실에서 살았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구원은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개별적으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 번의 순종이나 경험으로 완전성화를 주장하는 웨슬리안의 입장을 부인하고, 일평생 수고와 노력을 해야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런 수고와 노력을 건설구원의 요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순종’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어진 현실의 구원론적 긴장 강조

이처럼 일평생 수고와 노력 충성, 달리 표현하자면 순종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다.

>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실지로 죽는 것인

데, 언제 어디에서 실지로 죽을 수 있는 고하니 현실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야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에서만 됩니다. 현실에서만 죽을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315].”

이렇게 백영희 목사는 자기가 처한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영육이원론자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는 더러운 세상과의 단절 또는 현실도피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백영희 목사는 이런 태도를 철저하게 배격하며 자기 현실 속에서의 성화의 삶을 매우 강조하였다. 이는 칼빈이 현세의 올바른 활용은 양극단을 피하며[316], 각자 삶의 영역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만 살 것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317]. 이런 점에서 볼 때 구원론과 관련된 백영희의 현실관은 칼빈주의 전통에 서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백영희 구원론에 있어서 더욱 강조되는 것은 현실은 한 번 지나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고, 그 현실에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성화된 인격과 기능은 마련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현실이 영원을 결정하는 소중한 구원론적 의미를 가진 현실이 되는 것이다.

“행위는 영원합니다.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영원하고 또 의를 행해도 영원합니다[318]”

이와같이 성도의 행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영원히 따라가며,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차이가 있기에 한 현실 한 현실의 행동 하나하나가 구원론적인 의미를 가지며, 긴장을 가진다. 이런 성도에게 방종의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

315)「목회설교록」(1982. 5. 30 주일오후)

316) 존 칼빈,「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정기화 역 (서울: 소망사, 1995), p.85.

317) Ibid., p.94.

318)「목회설교록」제151권 (1987. 4.3 새벽)

‘성화’라는 통용되는 용어를 두고 ‘건설구원’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원론적 긴장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기에 ‘건설구원’이란 용어를 굳이 사용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구원론적인 긴장은 성도의 성화를 촉진시키는 유익이 크다고 할 것이다.

5. 성화와 상급의 차별성 강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상급에 차등이 없다고 말들을 한다[319]. 이는 로마교회의 공로 사상을 부인하고 오직 은혜만을 주장한 종교개혁의 반작용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더하여서 권성수 교수는 임마뉴엘 칸트의 “Duty for duty’s sake!”(의무는 의무 자체만을 위해서 수행하라!)는 소위 이상주의의 영향이 개신교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다[320].

백영희 목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7)”,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 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벧전 1:17)” 등의 말씀대로 성화구원, 건설구원은 죽도록 충성한 분량만큼 이루어지므로 각 사람마다 그 분량에 차이가 다 있음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전 3:8)”,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는 말씀과 같이, 건설구원의 결과로 얻게 되는 상급도 각 사람의 충성의 분량대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칼빈도 부활의 장에서 이런 상급이 부활의 영광의 차이로 존재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319) 권성수,「천국상급」, p.13.

320) Ibid., p.21.

"그리스도의 흔적를 가진 바울의 몸(갈6:17), 그리스도의 영광을 많이 나타낸 그의 몸이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다.[321)]"

"이제 남은 것은 부활의 모양에 대해서 다소 암시를 주는 것이다...(중략)... 본체로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나, 그 성질은 다르리라고 생각해야 한다....(중략)...사람과 짐승의 육체는 본체는 같으나 성질이 다르며(고전15:39), 모든 별은 같은 재료로 되었으나 그 광채가 다른 것 같이(고전 15:51-52), 이 나중 상태는 훨씬 더 훌륭하리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선물을 분배하실 때에 모든 성도에게 꼭 같이 빛을 비추시지 않는 것같이, 하늘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때에도 그 영광의 정도가 꼭 같지 않으리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중략).... 하늘에서 영광으로 그들을 장식하시란 것을 안 바울은, 자기의 수고에 해당하는 특별한 면류관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딤후 4;8). ...(중략)....자세히 연구해 보면 성경은 신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신다.[322)]"

VI. 백영희 구원론의 평가

A. 칼빈의 구원론 관점에서의 평가

1.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은혜의 관점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권' 사상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강요 제 1

321) Inst., 3. 25. 8.

322) Inst., 3. 25. 10.

권 마지막 부분(16-18장)에 주권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323]. 특히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주권 사상은 선택과 관련하여 강요 제 3 권 21장 이하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말하기를 "신자들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무상의 선한 뜻 외에 어떤 원인이나 이유도 고려될 수가 없는 영원한 선택에 달려있다[324]"고 하였다. 백영희 목사도 칼빈의 선택교리와 제한적 속죄교리를 그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 "하나님이 책임진 것은 변동이 없어. 주님이 누구를 책임졌는가? 칼빈은 '제한적 구속이라' 이걸 말했습니다.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구속했다' 칼빈이 위대한 사람이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그게 다 됐어. 그 칼빈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325]"

이런 주권적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영역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는 행위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 거저 주시는 선물[326]로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이다. 이신칭의에 있어서 믿음이란 것도 수동적인 것에 불과하다[327]. 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선행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위 때문에 신자들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자신이 그 행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란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그는 그의 너그러우신 은혜를 한층 더하는 의미로 그가 주신 행위까지도 받으신다는 것을 보이신다[328]"고 하여 성화의 은혜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백영희 목사도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고 보았다. 구원의 은혜를

---

323) 김하진,「주제별 칼빈주의」(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p.137.

324) Cf. De Aeterna Dei Pradestinatione,as cited, coll. 263. E.T., pp.34f. 존 머레이,「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p.87에서 재인용.

325)「목회설교록」제103권 (1984. 2. 22. 새벽), p.20.

326) Inst., 3. 11. 18-19.

327) Inst., 3. 13. 5.

328) Inst., 3. 17. 5.

둘로 구별해 보면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으로 나눌 수가 있다. 기본구원의 은혜는 선택, 그리스도의 대속, 중생, 하나님의 자녀, 천국시민, 부활 등을 포함한다. 건설구원은 심신의 구원으로 자기와 자기 행위가 성화되는 구원이다. 다 같은 구원 얻은 자로서 하늘나라의 영광의 차이는 성화구원의 차이이다. 기본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주신 구원이요, 이 구원생활을 바로 할 때에 성화구원도 덧입혀 주시는 것이다[329].

백영희 목사는 건설구원(성화구원)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친히 성화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기본구원의 은혜 속에 성화구원의 씨가 있어서 기본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건설구원 또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다[330]. 이와같이 백영희 목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절대주권과 전적은혜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다. 이것은 그가 칼빈의 전통 위에 있는 개혁주의 구원론의 가장 큰 신학적 흐름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예정을 다루는 관점

일반적인 신학서적들은 예정론을 신론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칼빈의 신학의 요체라고 불리워지는 기독교강요에서 예정론은 신론에서 다루지 않고, 구원론의 체계에서 칭의와 성화를 다 설명한 후 맨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백영희 목사도 예정론을 기본구원의 내용으로 구원론 체계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같은 체계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존귀하며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은혜의 상급이라는 관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백영희 목사는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상급까지도

329) 「목회설교록」(1982. 4. 11 행 1:6-11 "주님의 유언" 설교 내용 중에서 요약)

330) 자세한 내용은 앞의 내용 백영희 구원론의 특징의 장을 참조.

하나님께서 상으로 보아주시는 은혜라고 보았다. 마치 달이 빛을 발하는 것은 달 자체의 빛이 아니라 해의 빛을 반사한 것[331]에 불과하듯이, 순종과 충성을 의로 보시고 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일꾼은 하루 종일 일해도 하루 품삯을 주시만 어린 아들은 한 시간만 일해도 종의 일 년 품값 이상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 천사들의 품삯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티끌 같은 순종과 충성을 상으로 주시는 것은 은혜 위의 은혜인 것이다. 선물로 받은 것은 기본구원의 은혜이고, 상으로 받는 건설구원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 곧 은혜 위의 은혜인 것이다.

칼빈 역시 성경에 각 사람에게 행한대로 주시겠다는 말씀들은 선행에 보수가 아니라 자녀로서 거저 받는 기업(엡 1:18, 갈 4:7, 30)으로 보아야 하며,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보수가 아니라 은혜로 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332]. 칼빈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자.

> "성경에는 우리가 명령받은 일을 모두 행한 후에도, 자기를 무익한 종으로 생각하라는 명령이 있다(눅17:10). 우리는 주를 위해서 불필요한 일을 한 것이 없고, 다만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이에 대해서는 감사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 것'이라고 부르시며, 받아주실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상까지 주시겠다고 증거하신다.....(중략)....사람이 일종의 보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당연히 받을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가치를 주셨기 때문이다.....(중략)....주께서는 거의 항상 수고에 대한 보상과 싸움에 이긴 면류관을 하늘에 두신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실을 행위의 공로에 돌리고 은혜와는 절연시키는 것은 성경의 교훈과 반대되는 생각이다.[333]"

그러면 보상도 전적 은혜라면 왜 구태여 상으로 약속했는가? 이는 성도의

331) 김준수,「디지털기독교강요」(서울: 규장, 2000), p.386.

332) Ibid., p.388.

333) Inst., 3. 15. 3-4.

위로와 훈련을 위한 것이다. 즉, 성경은 이 복, 또는 상을 열망하며 십자가 훈련을 잘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334]. 백영희 목사도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할 것을 조건으로 상급을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이땅에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까지 다 하나님께로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았다. 박형룡 박사도 상급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이며 우리의 육체의 연약에 위안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백영희 구원론의 핵심은 칼빈의 하나님 주권과 전적 은혜의 전통 위에 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력구원이나 신인의 협동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안의 전통을 부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 볼때 백영희 구원론이나 칼빈의 구원론에서 인간의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라고 할만한 어떠한 요소도 찾아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구원받고 난 이후 삶의 관점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다(레 11: 44-45, 19:2).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며, 이와같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essential holiness)은 도덕적 거룩(moral holiness)로 나타난다[335].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또한 거룩하길 원하신다. 칼빈과 백영희의 구원론은 이런 성경의 교훈을 잘 표현하고 있다.

칼빈은 성화의 신학자라 불릴 정도로 구원에 있어서 성화의 삶을 강조하였다. 백영희 목사 역시 구원 이후의 성화의 삶을 건설구원이란 개념을 통해서 매우 강조함으로 그가 칼빈의 후예임을 보여주고 있다. 칼빈은 구체적인 성화의 삶으로 자기부인, 십자가를 짐, 선행, 내세 명상, 기도를 강조하였다. 백영희 목사 역시 동일한 점들을 강조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보았다. 특히 백

334) Ibid.. p.389.

335) Heinrich Heppe, *Reformed Dogmatics*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50) p.29.

영희 목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강조하였다. 백영희 목사는 "온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는 주기철 목사의 표어를 항상 외웠으며 교인들에게도 십자가의 신앙, 순교의 신앙을 위해 매일 기도할 것을 한결같이 강조하였다[336].

이는 칼빈이 "주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 주의 기치 아래 투쟁하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성공보다 앞세워야 한다[337]"고 외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백영희 목사는 한국교회가 휴거로 떠들썩 할 때에도 단호하게 휴거를 부인하였다[338]. 휴거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는 십자가의 원수의 신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며, 이를 위해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며 성화의 삶을 살 것을 교인들에게 강조하였다. 이처럼 백영희 목사도 칼빈도 모두 십자가을 지는 삶을 성도의 본분이라고 보았다.

5. 성화의 점진성의 관점

칼빈은 성화를 실천적이고 전투적이며 점진적인 성격이 있음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건설구원 역시 중복적 성격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일평생 현실 현실을 통과하며 피흘리기까지 수고하며 이루어 가야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이며 전투적이고 또한 점진적이다. 비록 죽도록 충성하고 수고하지만 성화의 완성은 내세에 이루어지며, 이땅에서의 완전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계속적인 건설구원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 땅에서의 성화의 완성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백영희 목사는 부분적으로 한 순간 한 순간 피와 진리와 성령에게 피동되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사는 이 요소는 영원히 변동치 아니할 성화의 부분이 됨과 질적으로 피와 성령

336) 「목회설교록」 제136권, p.536.

337) 빌헬름 니젤,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p.143.

338) 「목회설교록」 제165권, p.505.

과 진리가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은 피동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요소는 행위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완전한 피의 공로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이기에 그것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한 효력이 있음을 말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세에서의 완전한 성화를 말하거나, 분량적으로 완전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요컨대 백영희 목사는 영원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일평생 신령한 싸움을 싸우며 나갈 건설구원의 삶에 힘쓸 것을 강조하면서 웨슬레의 완전성화론을 배척하고 있다.

6. 성화의 개별적 차이점 대한 관점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는 동시에 불가분성을 강조하였다. 백영희 목사도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구별하면서도, 같은 원인(대속,성령,진리,믿음)을 가짐으로 양자의 관계는 서로 분리할 수 없다. 기본구원의 내용 속에 성화구원의 씨와 보증이 있으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거룩함을 입는다. 즉, 사죄와 칭의와 화친으로 새생명을 받은 자는 죄를 이기고, 의를 건설하며,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또한 받는다.

그러나 칼빈과 백영희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성화의 개별적 차이에 관한 것이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면서 성화의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별성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즉, 칭의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되고 성화는 칭의의 증거라고 보았다. 반면에 백영희 목사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하여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하면서 양자의 유기적 불가분성을 설명하면서도, 건설구원의 개별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칼빈이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성을 주장한 것은 구원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임에는 분명하며, 성도의 견인 교리는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다 구원받지 못한자로 보아야 하는가? 불가분성의 논리라면 그렇다고 보아야 한다. 정말 그렇다면

누구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어떤 조건 속에서 순종하고 있으며, 또 얼마만큼 순종하였는지는 다 차이가 있다. 백영희의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구별은 이런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칼빈이 미처 언급하지 못한 성화의 차이에 대하여 건설구원론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십자가의 단일대속을 둘로 쪼갠 것이 아니라, 단일의 대속이 중생시에는 영에게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심신에게는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즉, 칭의(중생)과 성화는 단일 구원의 다른 적용 모습임을 분해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는 그가 칼빈의 전통 속에 서 있지만 칼빈이 미처 지적하지 못한 성경의 구원도리를 밝힌 것이라 생각된다. 즉, 성화의 차이와 성화의 결과로서의 영원한 영광과 실력의 차이 및 상급의 차이들을 설명함으로서 성화의 삶을 더욱 촉진시키는 구원론의 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백영희 구원론은 칼빈주의의 터 위에 있으면서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이 되지 않고도 성화의 삶에 열심을 품을 수 있게 한다.

7.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관점

칼빈의 구원론에서 칭의와 성화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백영희의 기본구원도 건설구원도 모두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이 원인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은 개혁주의 구원론의 동일한 강조점이다.

8. 회개와 성화에 대한 관점

칼빈은 믿음에 의한 중생을 회개[339]라고 설명하였다. 칼빈은 중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전 과정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런 과정을 회

339) Inst.. 3. 3 제목: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

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회개는 죽임(mortification)과 살림(vivification)의 두 부분으로 성립된다. 죽임은 죄에 자기에 대해서 죽임이요, 살림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을 말한다[340].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회개를 계속해야 한다[341]. 이런 회개의 열매는 거룩한 생활, 다시 말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342].

백영희 목사의 구원론도 동일한 강조점을 가진다. 특히 회개는 건설구원에 있어서 순종과 함께 중요한 강조점이다. 그에게 있어서 회개란 단순히 후회함이나 뉘우침 정도가 아니다. 회개는 단번회개와 평생회개가 있는데, 단번회개는 처음 믿을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말로 회심이라 표현한다. 그리고 평생회개는 일평생 자기를 고치는 것을 말한다. 날마다 옛사람의 소욕을 죽이고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서 심신의 요소가 하나 하나 깨끗해져서 성화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과 백영희 목사는 성화의 과정으로서 회개의 개념과 과정 그 목적과 결과가 동일하며, 그 강조점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내세관과 현실관에 관한 관점

칼빈은 성화의 삶으로 내세에 대한 명상을 강조하였다.

> "내세의 삶에 비하면 현재의 삶은 무시해도 무방할 뿐 아니라, 완전히 멸시하며 싫어해야 한다.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라면 땅은 타향임에 틀림 없지 않은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곧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세상은 무덤이 아니고 무엇인가?....(중략)... 앞으로 있을 영생불멸과 비교해서 죄로 우리를 얽어매는 현세 생활을 경시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버릴 수 있

340) Inst., 3. 3. 3.

341) Inst., 3. 3. 2.

342) Inst., 3. 3. 16-20.

기를 갈망해야 한다.[343]"

"그리스도의 학교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자기의 죽는 날과 종말의 부활을 기쁘게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는 진보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자[344]"

칼빈의 이런 발언은 내세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차 있기에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언듯보면 그가 플라톤적으로 현세를 무시하는 것같지만 다음을 보면 그렇지 않다.

"아무리 무수한 불행이 가득하더라도 현세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옳으며, 결코 일축해서는 안된다....(중략)...특히 현세 생활은 신자들의 구원을 촉진시키는데 전적으로 이바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세 생활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중략)...그리고 우리가 현세에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께서는 앞으로 하늘에서 면류관을 쓸 사람들이 우선 지상에서 싸우고 노력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인데 이는 그들이 싸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얻기 전에는 개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345]"

이와같이 백영희 목사도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명상하고 늘 외우고 감사할 제목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면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 순교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이기에 순교의 신앙을 가져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성도가 살면서 개개인이 만나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설구원(성화)를 위해서 친히 마련하신 선물로 생각하였다. 더 큰 환란의 현실이면 더 큰 구원(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였다. 앞서도 설명한

343) Inst., 3. 9. 4.

344) Instl, 3. 9. 5.

345) Inst., 3. 9. 3.

바와 같이 성도의 현실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론적 긴장 속에 있는 소중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볼 때 칼빈이나 백영희 목사나 모두 현세의 현실관에 대해서 로마서 8:28절에 기록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고 할 것이다.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상과 같이 칼빈의 구원론의 관점에서 백영희의 구원론을 비교해 본 결과 백영희 구원론이 칼빈의 구원론의 틀 위에 서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죄 선언이요, 사죄의 은총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목이다. 성화는 이 은혜를 받고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이다. 칭의는 단회적이요 성화는 과정이다. 칭의가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부패한 성품이 실제로 변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칼빈의 구원론의 핵심은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기본적인 내용이며, 동일하게 하나님 주권 사상에 견고히 서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칭의는 누구나 동일하지만 성화는 각 사람에게 동일한 양태를 갖지 않는다는 것 또한 성경의 구원 도리이다. 백영희 목사는 개별적인 건설구원의 교리를 통하여 이점을 더욱 강조함으로 성화의 삶을 촉진하고 있다.

B. 한국교회의 구원론적 관점에서의 평가

칼빈도 백영희 목사도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은혜라는 것은 본래 값없이 받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백영희 목사의 강조한대로 너무 비싸서 값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

들이 “오직 은혜”를 강조한 것은 크나큰 공로이다. 그러나 개혁자의 후예라 자칭하는 우리들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346].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히2:1-3)” 라고 하신 말씀처럼 백영희 구원론은 구원의 지극히 큰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구원을 입고 벗지 말아야 할 것이며, 어떤 유혹, 어떤 환란이 닥치더라도 이 가치있는 구원을 입고 벗지 말하야 한다는 메시지를 백영희 구원론이 전해주고 있다. 이 구원을 입고 은혜 안에 사는 삶이 곧 성화의 삶인 것이다.

한국교회의 구원론은 크게 칼빈주의와 웨슬레 중심의 알미니안주의로 대별된다. 칼빈주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정을 높이는 하나님 중심의 구원론이라고 한다면,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의 구원론은 완전성결과 인간의 열심에 강조점을 둔 인간중심적인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전통적인 한국의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다보니 칼빈의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묵은 전통 안에서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반면에 알미니안적 구원교리를 가진 교회들은 인간중심으로 기울어져서 신앙과 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성령도 인간이 짜맞춘 공식대로 조작하려는 지극히 인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백영희 목사는 철저한 칼빈주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강조하면서, 건설구원의 교리를 통하여 인간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충성과 열심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

346) 김균진,「기독교조직신학」제3권, p.237.

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자는 어린 성도라 할지라도 기꺼이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할 것이 마땅하다는 순교적 신앙과 충성의 삶을 강조하였다[347]. 처음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교리가 교계에 알려질 때에는 그 중심의 뜻을 모르고 부분적으로 오해가 있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생과 구원의 확실한 신분과 아울러 성화의 삶을 강조하는 삶이 강조되는 교리라는 점이 차차 알려지면서 한국교회의 구원론에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의 구원론은 관심있는 학자들을 통하여 성경해석학적으로 타당한 지지가 지원된다면 한국교회에 균형잡힌 건강한 구원론체계를 제공하며 성도의 성화와 건강한 교회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VII. 결 론

A. 요 약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한국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른 구원론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하나님 주권의 이신칭의 구원론만 강조한 결과 거룩한 삶의 부재로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한국의 많은 장로교회들 조차도 교회부흥을 갈망한 나머지 알미니안주의로 돌아가서 인간의 노력과 경험만 강조한 결과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

본 논문은 위와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칼빈의 구원론의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틀 위에서 백영희 목사의 구원론을 재조명함으로써, 교단과 교파

347) 그가 목회하던 부산서부교회에서는 전교인이 매일 30분씩 어떤 환란이 와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충성할 수 있는 깬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운동을 10년 이상 계속해 왔었다.

사이의 상이한 깨달음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치되어야 하는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강조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올바른 구원관을 한국교회에 제공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논문이 진행되어 왔다.

Ⅱ장에서 먼저 백영희 목사의 생애와 신앙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의 생애 중에서 부산최대의 교회와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 부흥을 경험하였다. 그는 주기철, 손양원, 주남선 목사의 신앙을 이어받아, 신사참배 거부와 6.25 공산치하에서 사선을 넘는 순교적 신앙으로 승리하기도 하였다. 이런 체험에서 나온 그의 설교는 성경적이고 깊이 있는 영감설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Ⅲ장에서는 백영희 목사의 구원론이 교리사와 단절되어 하늘에서 떨어진 도리가 아니라 오랜 세월 교회사의 논쟁들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교리임을 밝혔다. 즉, 구원론에 관한 역사는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영역 중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가에 관한 논재의 역사이며, 백영희 목사의 구원론은 특히 칼빈의 하나님 주권의 구원론, 은혜 받은 구원론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Ⅳ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백영희 구원론의 배경으로서 칼빈의 구원론을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칼빈은 루터의 이신칭의의 구원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루터에게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칭의 이후의 거룩한 삶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래서 칼빈을 성화의 신학자라고까지 부르기도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이중의 은혜이며 서로 구별되지만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았다. 즉, 칭의된 없는 성화나 성화 없는 칭의는 있을 수 없다. 칭의 된 자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칭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론의 기초가 된다. 칭의와 성화는 모두 연합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의 의가 믿음에 의하여 우리의 의로 전가된다. 그럼으로 '믿음' 역시 칼빈에게

있어서 구원적 중요한 개념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이 믿음은 참지식과 확신과 신뢰를 포함한다. 다시말해서 이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선행이 따라온다. 따라서 칼빈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믿음은 거룩함(성화)를 이룬다. 이 믿음이 있는 곳에는 회개가 있고, 중생이 있고, 성화가 있다.

칼빈의 구원론에서 회개는 육의 죽임과 영의 소생을 말한다. 이런 회개가 있는 곳에 거룩함이 있다. 성도는 일평생 계속적인 회개를 통해 매일 씻겨져야 한다. 칼빈은 구원의 도리가 형식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임을 강조하면서 성화의 삶은 자기부정, 십자가를 짐, 선행, 내세의 명상, 기도하는 삶이라고 하였다. 이런 칼빈의 성화론의 특징은 하나님 은혜 중심의 성화이며, 실천적이고 전투적인 성화이며, 일평생 지속되어야 할 성질인 것을 말하였다.

Ⅴ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백영희 구원론을 소개하였다. 그의 구원론은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으로 구별한다. 하나님 주권에 기초한 기본구원의 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건설구원의 구원도리를 통하여 교회사의 해묵한 논쟁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고 하였다. 백영희 목사의 건설구원에 관한 일관된 입장은 100% 하나님 주권이요, 100%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는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으로 구별함을 통하여서 성경 속의 믿음만을 요구하는 성구와 행위를 요구하는 성구 사이의 혼돈을 피하려고 하였다. 또한 신앙현실적으로 믿는 사람 중에서 죄를 범하고 실족한 사람의 구원문제를 아울러 설명하고 있다.

기본구원은 예수님의 대속과 진리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는 전적 하나님 은혜의 역사이다. 이는 칼빈의 이신칭의의 구원론과 맥을 같이 한다. 기본구원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공통되는 구원이며 저 위대한 사도들이나 비천한 우리들이나 차별이 없는 은혜로운 구원이다.

반면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함을 입어가는 건설구원은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건설구원도 역시 대속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되,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순종을 요구한다. 대속과 진리와 성령을 입고 순종한 만큼 심신의 성화가 이루어지며, 영원 나라의 실력을 마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서 예비하신 상급까지 얻게 된다. 기본구원은 단번에 받았지만, 건설구원은 일평생 지속해 나가야 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칼빈의 성화의 특징과 동일한다.

백영희 구원론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 또한 전적 은혜를 강조한다. 건설구원 역시 신인협동설을 배격하고 칼빈의 입장과 일관되게 이중의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차등상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칼빈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에 연합됨을 강조하고 있으며, 건설구원에 있어서 인간편의 책임 있는 순종을 강조하며, 주어진 현실의 구원론적인 긴장을 강조하고 있다.

Ⅵ장에는 이제 칼빈의 구원론과 백영희의 구원론을 비교하여 중요한 일치점을 찾음으로 백영희 구원론이 칼빈의 신학 터 위에 있음을 밝혔다. 세세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칼빈의 전통 위에 있다고 할만한 몇 가지 점들을 요약하였다.

첫째, 칼빈도 백영희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절대 주권과 전적 은혜의 진리 아래 있음이 일치한다. 둘째, 이런 관점에서 칼빈도 백영희도 예정론을 신론에서 다루지 않고 구원론에서 다룸으로 구원의 가치를 신적인 가치로 격상시키고 있다. 셋째, 칼빈도 백영희도 구원 받고 난 이후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칼빈도 백영희도 성화는 점진적이고 전투적이며 일평생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으로 봄으로 웨슬레의 완전성화교리를 배격하였다. 다섯째, 칼빈도 백영희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구원이 이루어 짐에 일치점을 보았다. 여섯째, 회개와 믿음의 개념에 있어서 칼빈도 백영희도 내용상 같은 것으로 모두 평생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의 내용임을 설명하였다. 일곱째 내세관과 현실관에 관한 관점 역시 칼빈과 백영희가 일치함을 보았다.

그러나 성화의 개별적 차이점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양자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의 불가분성을 강조한 나머지 모든 자들의 성화가 다 같은 것처럼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백영희는 건설구원의 개별적인 성격을 통하여 이땅에서의 수고와 충성의 분량대로 차이가 있음을 성경을 들어서 설명하였다.

이런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하여서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백영희 구원론은 철저하게 칼빈의 은혜의 구원론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칼빈이 위대하여서 칼빈의 전통 위에 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칼빈도 백영희도 절대불변의 성경의 진리 위에 있기 때문에 일치되는 결과임이 분명하다.

백영희 목사가 건설구원을 강조하면서 성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을 인하여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의심한다면 백영희 구원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론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방종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도 역시 백영희 구원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살펴본대로 그의 구원론은 삶을 방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닥친 그 현실이 영원한 나라에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 짓는 구원론적 긴장속에 있는 현실인 것을 자각함으로 오히려 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봄이 옳다. 물론 용어의 사용이나, 또는 내용면에서 칼빈의 방대한 저술과 백영희의 많은 설교 속에서 세세한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일치점들은 칼빈을 칼빈되게 하는 중요한 신학적 강조점들이므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백영희 구원론이 칼빈 전통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칼빈주의 전통 아래에 있는 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들을 서로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본다[348].

---

348)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서울: 이레서원, 2001), p.527. 김재성 교수는 개혁파 전통 중에서 높은 칼빈주의와 균형잡힌 칼빈주의 그리고 낮은 칼빈주의를 구별하면서 그 안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을 설명하며, 그들 사이의 중심 내용을 통해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칼빈의 구원론과 백영희 구원론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가져다 주는 기쁨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옛사람은 죽이고 새사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한국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길이며,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B. 한계 및 전망

백영희 목사는 주기철, 손양원 등의 순교의 신앙을 이어 받았고, 또한 그 신앙을 성도들에게 계승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신앙관은 그의 구원관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더욱 깊이 연구를 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의 능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세상에 사람으로서 완전한 자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자시요, 그 말씀인 성경만이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각 선지자들 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에 필요한 만큼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셨다. 그리고 문서계시인 성경말씀을 신약교회에 주심으로 구원의 도리로서 특별계시를 완결하셨다. 완결된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에 필요한 정도의 구원도리를 깨닫게 하셨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의 성경 깨달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그 시대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였지만, 깨닫는 자의 개인적 시간적 지리적 역사적 배경 등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함으로,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다.

한국 장로교회가 서 있는 신학과 신앙의 유산은 칼빈의 깨달음의 터 위에 서서 발전되어져 왔다. 즉, 칼빈은 개혁주의 노선의 한국장로교회가 서 있는 확고한 기초이다. 개혁신학은 정체된 교리의 암송에 머물러 있는 신학체계

가 아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지속적인 개혁의지를 지니고 있었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라는 기념비적인 표어를 새겨놓고 있다[349].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는 칼빈도 백영희도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백영희 구원론에 대한 본 논문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은 한계를 인정하고 차후의 전망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먼저 본 논문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신학적 접근보다 교의적인 접근과 목회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의 구별과 그 내용에 관한 더 풍성한 성경신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 본 논문에서는 잠깐 각주에서 처리했지만, 백영희 목사가 강조했던 ‘중생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표현의 성경신학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 또한 또 다른 과제이다. 그리고 그 전제가 되는 인간론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또한 앞으로 다루어야할 과제이다.

이런 과제들을 본 논문에서 다 다루지 못함은 주어진 지면상의 제약 뿐만 아니라 논자의 학문적 미진함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관심있는 분들의 연구를 통하여 칼빈과 백영희 구원론을 견고한 터로 삼아, 보다 성경의 진리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구원론의 체계가 세워지길 기대해 본다.

349) 김재성,「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수원:합동신학대학원, 1997), p.319.

<참고문헌>

1. 원서

Barth, K. *Church Dogmatics.* Ⅳ/2. ed., Torrance, T.F. Edinburgh: T&T Clark, 1961.

Battles, F.Lewis. *Interpreting John Calvin*. ed.,Benedetto, Robert. Baker Books, 1996.

Berkhof, Hendrikus. *Christian Faith*. Grand Rapids: Eerdmans, 1979.

Berkouwer, G.C. *Faith and Sanctific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52.

Calvin, "J. Calvin: Theological Treati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12. ed., Reid, I.K.S. London: SCM Press LTD, n.d.

Dowey, E. A.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2.

Heppe, Heinrich. *Reformed Dogmatics*. London: Geoge Allen & unwin LTD, 1950.

Hodge, C. *Systematic Theology*. vol.3. Grand Rapids: Eerdmans, 1958.

McGrath, A.E. *A Life of John Calvin: A Study in The Shaping of Western Culture*. Oxford: Basil Blackwell, 1990.

_____. *Iustitia Dei: A history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Niesel, W.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 Baker Book House, 1980.

Parker, T.H.L.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London: Geoffrey Chapman, 1995.

Wallace, R.S.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Edinburgh: Oliver

and Buyd, 1959.

Weber, Otto. *Foundation of Dogmatics.* vol.2. Grand Rapids: Eerdmans, 1962.

Wendel, F. *Calvin.* Trans., Philip Mairet.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50.

2. 번역서

Battles, Fird Lewis.「칼빈신학의 이해」ed., McKim, Donald K.서울:생명의 말씀사,1991.

Cell, Geore E.「존 웨슬리의 재발견」송홍국 역.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Foster, Henry J.「베이커주석」장지철 역. 서울:기독교문사, 1986.

Reed, R.C.「칼빈주의의 뿌리와 열매」홍병창 역. 서울:교회교육연구원, 1985.

Richard, J.「칼빈의 영성」이창우 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Wallace, Ronald S.「칼빈의 기독교생활원리」나용화 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A. A. 핫지.「핫지조직신학」제3권. 고영민 역. 서울:기독교문사, 1982.

B. B. 워필드. 「구원론」지상우 역. 서울: 엠마오, 1989.

T.H.L.파커.「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김지찬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6.

_____.「칼빈신학입문」박희석 역. 서울: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1.

도날드 거스리.「성령,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중수 역. 서울:성서유니온, 1988.

로뢰인 뵈트너.「칼빈주의 예정론」김남식 역. 서울:도서출판 베다니, 2002.

로버트 A. 피터슨.「칼빈의 구원도리」황영철 역. 서울:반석문화사, 1994.

루이스 뻘콥.「기독교교리사」 신복윤 역.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79.
_____.「신학개론」 신복윤 역. 서울:성광문화사, 2000.
밀드레드 와인쿱.「칼빈주의와 웨슬레신학」 한영태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1.
밀라드 J. 에릭슨.「구원론」 김광열 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베른하르트 로제.「기독교교리사」 구영철 역. 서울:컨콜디아사, 1990.
빌헬름 니젤.「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6.
안토니 A. 후크마.「개혁주의 구원론」 류호준 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_____.「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안토니 A. 후크마 외4인.「성화에 대한 다섯가지 견해」 김원주 역. 서울: IVP, 2004.
알란셀.「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구원」 김경진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3.
앨리스터 맥그라스.「신학의 역사」 소기천 외2인 역. 서울:지와 사랑, 2002.
에드윈 H. 팔마.「칼빈주의 5대교리」 박민일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3.
윌리스턴 워커.「기독교회사」 송인설 역. 서울: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9.
윌리엄 부스마.「칼빈」 이양호, 박종숙 역. 서울:도서출판 나단, 1991.
윌리엄 핸드릭슨.「마태복음(하)」 김만풍 역. 서울:아가페출판사, 1988.
_____.「내세론」 오성종 역. 서울:새순출판사, 1991.
존 머레이.「조직신학Ⅱ」 박문재 역. 서울: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6.
_____.「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 나용화 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존 칼빈.「기독교강요」 김종흡 외3인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9.
_____.「고린도전서주석」 죤칼빈 성경주석편찬위 역. 서울:성서교재간행

사, 1990.
_____.「공관복음주석」 죤칼빈 성경주석편찬위 역.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1.
_____.「시편주석」 죤칼빈 성경주석편찬위 역.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2.
_____.「야고보서주석」 죤칼빈 성경주석편찬위 역.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2.
_____.「에베소서주석」 죤칼빈 성경주석편찬위 역.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92.
_____.「요한복음주석」 죤칼빈 성경주석편찬위 역.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2.
_____.「로마서, 요일주석」 죤칼빈 성경주석편찬위 역.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1.
_____.「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정기화 역. 서울:소망사, 1995.
존 H. 리스.「칼빈의 삶의 신학」 이용원 역.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프랑시스 웬델.「칼빈의 신학서론」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역. 서울:기독교문화사, 1986.
프레드 그래함.「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김영배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86.
필립 홀트롭.「기독교강요 연구핸드북」 박희석, 이길상 역. 서울: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5.
헨리미터.「칼빈주의」 박윤선,김진홍 역.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86.

3. 한국서적

권성수.「천국상급」서울:도서출판 나비, 1990.

김광열.「구원과 성화」서울:총신대출판부, 2000.

김균진.「기독교조직신학」서울:연세대출판부, 1990.

김길성.「개혁주의 종말론」서울:총신대신대원, 2000.

_____.「구원론」서울:총신대신대원, 1999.

김세윤.「구원이란 무엇인가」서울:도서출판 제자, 1997.

김준수.「디지털 기독교강요」서울:규장, 2000.

김재성.「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수원:합동신학대학원, 1997.

_____.「개혁신학의 광맥」서울:이레서원, 2001.

김하진.「주제별 칼빈주의」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김희보,「구약신학논고」서울:예수교문서선교회, 1975.

나용화.「칼빈과 개혁신학」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박영선.「성화에의 길」서울:도서출판 엠마오, 1992.

박윤선.「로마서주석」서울:영음사, 1976.

_____.「성경주석:공관복음」서울:영음사,1980.

박용규.「한국장로교사상사」서울:총신대출판부, 2001.

박창환.「신약성서 희랍어」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2.

박형룡.「박형룡박사 저작전집Ⅳ」서울: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7.

_____.「박형룡박사 저작전집Ⅴ」서울: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8.

백영희.「목회설교록」93, 97권. 부산:백영희 목회연구소, 1992.

_____.「목회설교록」103권. 부산:백영희 목회연구소, 1984.

_____.「목회설교록」118권. 부산:백영희 목회연구소, 1985.

_____.「목회설교록」121,126권. 부산:백영희 목회연구소, 1986.

_____.「목회설교록」131, 136-137권. 부산:백영희 목회연구소, 1987.

_____.「목회설교록」146권. 부산:백영희 목회연구소, 1991.
_____.「목회설교록」151, 153권. 부산:백영희 목회연구소, 1992.
_____.「목회설교록」162,165권. 부산:백영희 목회연구소, 1988.
_____.「목회설교록」168권. 부산:백영희 목회연구소, 1989.
_____.「목회설교록」177,181권. 부산:백영희 목회연구소, 1990.
_____.「메모」부산:백영희 목회연구소,1989.
목회연구회 편.「백영희 목사님의 주일학교목회 연구(2)」전남:백영희 목회연구회, 1997.
목회연구회 편.「백영희 목사님의 주일학교목회 연구(3)」전남:백영희 목회연구회, 1997.
서철원.「성령신학」서울:총신대출판부, 1999.
송용조.「그리스도와 구원」서울:서울성경학교출판부, 1989.
심군식.「해와같이 빛나리」서울:교회교육원, 1990.
원종천.「칼빈과 청교도영성」서울:도서출판 하나, 1994.
이근삼.「칼빈.칼빈주의」서울:총신대출판부, 1995.
이양호.“칼빈의 영성(2).”「기독교사상」1993.12.
이영인.「백영희 조직신학」전남:백영희 목회연구회, 2004.
이종성.「칼빈」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전용복.「한국장로교회사」서울:성광문화사, 1990.
정성구.「칼빈의 생애와 사상」서울:세종문화사, 1980.
조영엽.「구원론-내세론」서울:도서출판 미스바, 2004.
최홍석.「사람이 무엇이관대」서울:총신대출판부, 1991.
한국칼빈학회 편저.「최근의 칼빈연구」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01.

4. 논문

고광필. “칼빈의 이중은혜의 논리.”「칼빈과 개혁신학」1999.

권성수.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급교훈(1).”「신학지남」통권209호. 1986.가을.

_____.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급교훈(2).”「신학지남」통권210호. 1986.겨울.

_____.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급교훈(3).”「신학지남」통권215호. 1988.봄.

_____.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급교훈(4).”「신학지남」통권216호. 1988.여름.

나용화. “칼빈주의적 복음주의 신학과 한국장로교회.”「신학지남」통권268호. 2001.가을.

송종섭. “백영희 구원론.” 석사논문,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1994.

유정우. “칼빈의 구원론에 나타난 선행의 위치와 중요성.” 박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 학교, 1998.

정장신. “A Comparative study of John Calvin's and John Wesley's Thelogies of Sanctification.” 석사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998.

최홍석. “인간의 구조적 본성에 대한 개혁신학적 이해(2).”「신학지남」통권227호. 1991.여름.

채은수. “어거스틴의 구원론에 대한 선교학적 반성.”「신학지남」통권262호. 2000.봄.

한철하. “칼빈신학의 구원론적 이해와 복음사역의 중요성.”「성경과 신학」제15권. 1994.

한철하. “칼빈의 완전주의.”「광신대학교강의안」, 2000.

5. 기타

백영희 목회설교록 CD자료집.

박윤선 목사 주석 CD자료집.

「신앙계」 통권194호: 110.

「크리스찬라이프」 통권219호. 1986.8: 21.

「목회와 신학」 창간호. 1986.7: 189-195

ABSTRACT

Yun-suk Jang
The Department of Theology
Chongshin University
Gradeate School

This dissertation is said about Young-hee, Paik's Soteriology from a viewpoint of the theory of John Calvin. This work introduces Young-hee, Paik's Soteriology and it reveals that the theory is based on the theology of Calvin.

The paster, Young-hee, Paik(1910-1989) believed Jesus in 25 years old and became the deacon and he served four churches in 28 years old as an unpaid lay minister. He refused to worship to a Shinto shrin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and he kept his faith in cruel pain during the period 6.25 governed by the Red Army.
He graduated the Koryo theological school and worked as a best revivalist in Kosin denomination. Also he served at Pusan Seobu church and made it to a maximum church in Pusan in 80's. Moreover, it became a maximum church what has 13,000 children believers in all the world.

His theology was affected by the Calvinism and he had a faith of martyrdom what affected by Son, Yang-won and Ju, Ki-cheol. His pastoral duties and sermon were based on the Bible. His sermon is

united with the theology, the faith and his life so, it affected to many people.

From the ancient times church reaches to today, the argument about Soteriology was to the sovereignty of God and responsibility of human being. The theory of Mr. Back is based on a tradition of Calvin's theology which emphasizes a God main hoisting.

Calvin seized the theory, justification by faith, what motto of the religious reform and he emphasized holy life. To him the theology of a justification and a sanctification is a grace of duplication of the God. Calvin emphasized the inseparable characteristic of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He insisted that a receiver who got a justification is lives to a receiver who got a sanctification.

The grace is accomplished by a mysterious union with Christ. We can live a holy life for mortification and vivification with Christ every day. Calvin's theory of the sanctification is the center of God extremely and it has a practice and fight quality like to bear the cross and self-denial on the side of human being. Calvin's Soteriology is not end to sanctification but emphasizing the process of one whole life continuous sanctification with one salvation. Namely, it seizes both the sovereignty of God and the responsible life of man.

The theory of Paik is same to the stressed point of Calvin's in spite of the difference of terminology which it uses. He explained the salvation

with Fundamental salvation and Constructive Salvation according to the metaphor about Jesus and Paul's building. The Fundamental salvation was given to all the person whom it believes. We can get Fundamental salvation for the Atonement, the work of Holy Spirit and the word and faith. With Fundamental salvation, we can get a rebirth of spirit, identity of children, heaven citizenship and resurrection. The Fundamental salvation is applied only in time and the effect is forever. Also, there is not discrimination to the person whom it believes.

On the other hand, the Constructive Salvation emphasizes the life after get the sanctification. It is accomplished through the person whom get the salvation to live penitenceit and obey to the word and Holy Spirit. As Constructive Salvation becoming accomplished it becomes sanctification, have a personality of ability of God's Kingdom and received eternal award. The Constructive Salvation is not discrimination to the person whom it believes, but Constructive Salvation there is an individual difference as the degree of becoming sanctification.

However, both are a grace of duplication of God to Mr. Paik. This point and emphasize to God's prearrangement are same with Calvin. Calvin emphasized the life after get the salvation for the theology of sanctification and Paik also emphasized it for the life of Constructive Salvation . Therefore, their point is same.

However, if there is a difference point, it is the fact that Calvin emphasized the inseparable characteristic of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but Mr. Paik emphasized that even if a person receive Fundamental salvation but, he might fails to Constructive Salvation.

Also, Calvin couldn't explain the individual difference of sanctification but, Mr. Paik. explained it uses the discrimination characteristic of sanctification of each person. Therefore, his the theory of salvation more to promote sanctification of believers and gave strong wish to heaven to the Korean churches.